

The Sokcho Culture Journal

속초문화



‘함께’의 힘은 ‘혼자’보다 강하기에...

함께의 힘은

패배를 승리로 이끌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포기를 기회로 만들어내듯,

농협, 그 하나의 이름으로

농업인과 국민 행복시대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함께의 힘-NH농협



농협중앙회/

농협은행

속초시지부



속초문화

SokCho-Culture
Journal



CONTENTS

007 권두시

008 권두회호

010 발간사 _ 박무웅/속초문화원장

011 향토문화학교 수강생 / 속초문화원 회원모집

속초문화원 365

014 효행청소년 시상

015 향토문화학교

016 노인일자리사업

017 학교문화예술교육

018 꿈다락토요문화학교

020 속초도리원농악

021 속초 도문농요 보존 전승

022 북청사자놀이 전수

023 문화예술동아리 활동

024 어르신문화학교

026 어르신문화동아리

028 문화유적답사

029 설악문화제 설악제례

030 지역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워크숍 및 포럼

031 강원민속문화 발굴조사

032 청소년방학프로그램

034 청소년문화전수교육


035 속초문화원 가족 동정

217-101 강원도 속초시 변영로 541(영랑동 570-5) Tel.033)632-1231,639-2439 Fax.033)632-1241

<http://www.sokcho-culture.com> · <http://www.sokcho-history.com> · E-mail : sc2439@sokcho.org

펴낸곳 속초문화원 발행인 박무웅 편집인 김인섭 사진제공 속초시립박물관 발행인 2012.12.31

<속초문화>는 속초시 보조금 및 강원문화예술진흥기금을 지원받아 제작된 저작물로 일부글과 사진은 속초문화원과 저작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비매품)



CONTENTS

사진화보

037 향토문화학교 전시회 시상전

042 속초 관광사진공모전 수상작

특집

054 '돈돌라리' 민요의 실상과 전승론적 의미/장정룡

072 속초 무형문화의 유형고찰/양언석

기획 / 2014 속초문화원 문화예술교육

097 꿈다락토요문화학교

104 설악문화나눔 친구들

106 어르신문화학교 '설악문화나눔친구들' 회원 인터뷰

109 어르신문화동아리_돈돌라리

문화현장

113 속초시장 후보 초청 문화정책 간담회

115 전문가 초청 포럼

117 고행렬 신간

문화예술해적이

119 설악신문으로 본 문화예술 해적이

문화상

137 속초시 문화상 수상자

문화원 현황

138 속초문화원 임직원



속초 문화 조사위원 모집

속초문화원에서는 지역의 향토사조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향토문화에 관심과 열의를 가지신 시민 여러분을 속초 문화 조사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합니다.

열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속초문화 연구 및 자료수집에 동참해주실 분은 속초문화원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대상** : 속초시의 역사와 문화를 조사하고 기록하며 발굴하겠다는 열정만 있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 활동분야**

- 기초 자료조사 : 신문, 생활용품, 사진, 발간물 등 지역문화에 관계된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하는 일
- 향토문화 현지조사 : 민요, 설화, 민속 등 속초의 옛문화를 발굴하기 위한 현지조사 및 연구
- 시민구술사 : 속초시민의 삶을 듣고, 기록하며 속초시민생활사를 만드는 일

*** 응모자격** : '속초 향토문화학교' 과정을 이수한 자

※향토문화학교 : 속초의 문화와 예술, 향토사 자료수집의 연구방법 및 의미, 구술사 방법 등 향토문화 전반에 대한 소개

*** 문의 및 응모** : 지원서 작성(속초문화원 방문, 홈페이지 다운)

☎632-1231(팩스 632-1241)

속 초 문 화 원

2015 속초북청사자놀이 통소교육생 모집

속초문화원에서는 지역의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해 속초시 실향문화 콘텐츠인 '북청사자놀이'를 보전·전승하기 위해 지역주민 대상 통소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올해도 북청사자놀이의 신명나는 음악 '통소'를

무료강습하오니, 지역전통문화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 개요

교육기간 : 2015년 3월 ~ 12월

교육장소 : 속초문화원 문화사랑방

모집인원 : 통소반 00명

모집기간 : 상시모집(선착순 접수)

참 가 비 : 무료

신청방법 : 전화문의 후 접수

(속초문화원 632-1231)



속초엔 속초역이 없다

권정남

흑백사진 속 속초역은 물밀처럼 고요한데
 민족의 붉은 피 덜컥거리며 달리던 원산행 기차길
 그 검은 레일 누가 걷어버렸는지
 면도날 같은 아픔 서로 나누며 열차에 오르던
 가슴이 허전한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썰물처럼 개찰구를 빠져나오던 사람들은
 속초 바닷가 어디쯤서 모래알로 흩어졌는지
 총성이 멎은 수복지구엔 아직도 해당화는 피고 지는데
 고말지봉의 불란서식 건물
 속초역을 누가 기억은 하고 있는지
 60년 세월, 빛바랜 사진 속에서 웃고만 있는 살불이들
 잭폴처럼 자란 수북한 그리움이 헛바늘처럼 돋어나고 있는데

속초시 수복로 254번지
 꽃다방 건너편, 역이 있던 자리엔
 현대식 건물이 들어서고 주차장 뒷마당엔
 삼단 검은 머리 같은 비닐봉지만 아직
 울음처럼 텅굴고 있는데

속초엔 속초역이 없다.

권정남 이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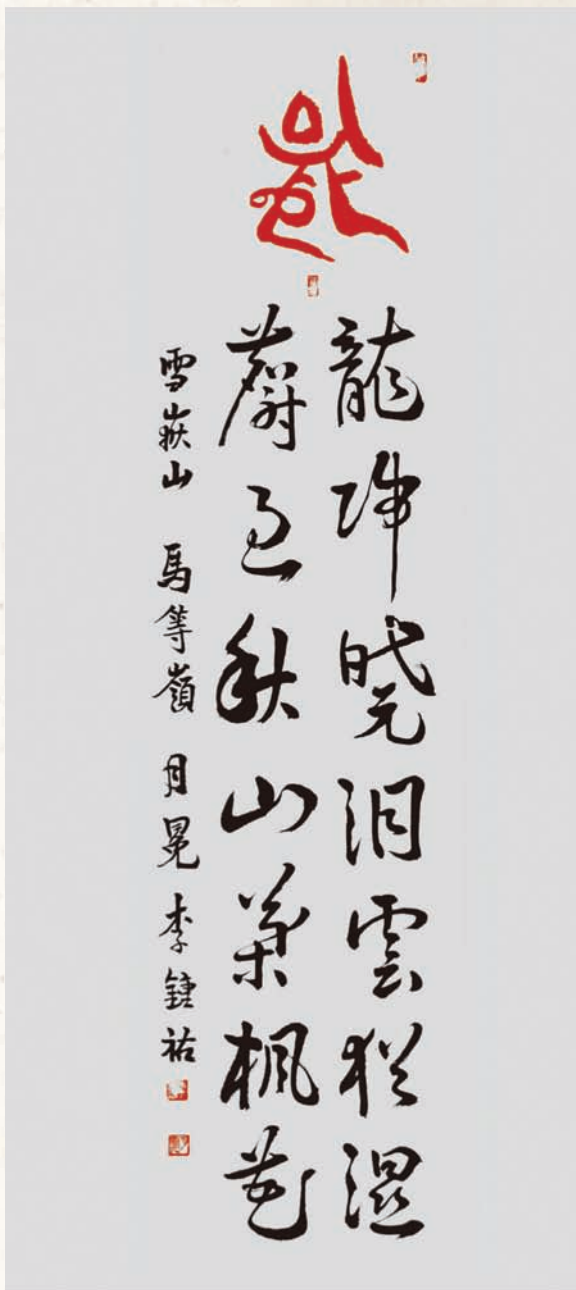
1987년 『시와 의식』 등단, 시집으로는 『속초바람』, 『서랍 속의 사진 한 장』, 『물푸레나무 사랑법』, 『연초록, 물음표』가 있음.
 수상으로는 강원문학상 외 다수. 한국문인협회, 한국시인협회, 강원도 문인협회, 설악문우회 '갈매' 회원으로 활동





월면 이종우

- 아세아 서화협회 초대작가
- 대한민국 아카데미 미술협회 초대작가
- 한국추사서예대전 입상 다수
- 현산무화제 회호대회 최우수상



雪嶽山 馬等嶺

용이 새벽 골짜기로 돌아오니
 구름이 오히려 젖은듯 하고
 사향 노루가 가을산을 지내며
 가을산 입세가
 단풍이 저꽃같구나

寒透疏梅点 易失灯
 深华髮夢 難期畫
 衰漁翁真可羨 坐者
 春水綠生漪

抄録萬海先生詩
 高峯崔煬圭

만해 선사시 「눈오는 밤 그림을 보고」

매화에 추위 스미니 향이 쉬 스러지고
 들불사위는 밤늪은이 꿈은 기약이 어려워
 저 그림속 고기잡이 노인은 참 부럽군
 앉아서 봄철 물에 잔 물결침 보느니



고봉 최양규

- 남의침묵 서예대전 초대작가
- 강원서예대전 추천작가
- 동아미술대전 입선
- 동해무릉서예대전 입선
- 대한민국 아카데미 미술대전 추천작가

문화예술이 지역발전의 근본이라는 믿음

올해의 달력도 이제 마지막 한 장을 남기고 있습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1월 1일의 다짐을 되새기곤 합니다. 생각보다 좋은 결과를 얻은 일도 있고, 시작조차 하지 못한 일도 있습니다. 잘한 일은 더욱 튼튼하게 만들고, 못한 일은 반복하지 않도록 준비를 잘 해야 할 일입니다.

올해 속초문화원은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은 꼼꼼하게 보완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은 첫 단추를 잘 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선, 함경도 민요의 하나로 오랫동안 청호동 아바마을에서 내려오던 ‘돈돌라리’를 완성된 공연으로 선보였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어르신문화학교 동아리 사업으로 진행되는 이 공연은 강원도어르신한마당이나 전국어르신의 날 축제에 초청받아 호평을 이끌었습니다. 지역의 문화자원을 어르신들이 특화된 콘텐츠로 만든 사업이라는 점에서 더욱 애착이 갑니다. 어르신들의 활약은 더 있습니다. ‘풀뭉음문화봉사단’은 올해 ‘설악문화나눔친구들’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하며 속초에서 설악권으로의 확대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어르신을 위로하고, 아이를 돌보는 이 사업은 속초 고유의 특징을 표방하면서 조용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속초문화원은 이 사업을 꾸준히 지원할 예정입니다.

6·4지방선거를 맞아 시장후보들에게 문화예술 정책을 제안하고 확답을 받은 일도 문화예술계의 위상을 높인 사건이었습니다. 속초문화원을 비롯해 속초예총, 속초민예총이 실무자가 함께 만나 의제를 설정하고 후보들이 다섯 가지 조항을 합의하여 문화예술의 발전을 약속했습니다. 소통과 협력이라는 기본적인 원칙이 잘 지켜진 사례입니다. 또한,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을 위한 전문가포럼은 속초문화원이 서울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지역발전을 제안한 사례가 됩니다. 이 날 이후 속초시가 문화예술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공모사업을 신청했다고 하니 그 결과에 관계없이 의미 있는 변화일 것입니다.

속초문화원은 지역의 문화가 박제화 되기 바라지 않습니다. 지켜야 할 전통은 단단히 지켜내고, 발전시켜야 할 향토문화는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의 최전선에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속초문화원장 박무웅

“속초문화원 향토문화학교” 제 23기 수강생 모집

속초문화원은 전통문화 계승과 향토문화 발전을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강좌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집시기 : 2월

신청방법 : 속초문화원 방문접수

등록비 : 연 3만원(재료비별도)

※문화원 회원은 1만원 할인혜택 및 1강좌 무료 수강 가능(정원미달시)

문의 : TEL 632-1231/ FAX 632-1241/www.sokcho-culture.com

속초문화원 회원 모집

속초문화원은 지역사회의 발전 및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법인 기관으로서 지역
문화를 발전시키겠다는 시민들의 의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속초문화원의 회원이 된다는것은 이러한 취지에 뜻을 같이 한다는 의미입니다.

회원혜택

1. 매년 발간되는 향토사안내서와 ‘속초문화’ 소식지 등을 받아 볼수 있습니다.
2. 관내 문화예술체험 행사를 발 빠르게 알려드리며 우선적으로 초대합니다.
3. 문화원이 소장하고 있는 모든자료(도서, 음반,DVD, 악기)의 대여가 가능합니다.
4. 문화유적답사 및 문화학교 수강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회원 자격으로 문화원 운영방향과 활동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회원회비 : 연 4만원

문의 : TEL 632-1231/ FAX 632-1241/www.sokcho-culture.com



속초문화원

365



- * 효행청소년 시상
- * 향토문화학교
- * 노인일자리사업
- * 학교문화예술학교
- * 꿈다락토요문화교육
- * 속초도리원농악
- * 속초 도문농요 보존 전승
- * 북청사자놀음 전수
- * 문화동아리 활동
- * 어르신문화학교
- * 어르신문화동아리
- * 문화유적답사
- * 설악문화제 설악제례
- * 지역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워크숍 및 포럼
- * 강원민속문화 발굴조사
- * 청소년방학프로그램
- * 청소년문화전수교육
- * 속초문화원 가족 동정



2014 효행청소년 시상

본원은 매년 관내 16개 학교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효행청소년 시상을 진행했다.

품행이 방정하고 경로효친 사상이 탁월한 학생을 학교장 추천에 의해 선발. 각 학교 졸업식장에서 ‘효행청소년상’을 시상했다. 본원은 매년 치르는 이 상의 시상을 통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경로효친 사상을 다시금 상기시킴으로서 예로부터 내려오는 아름다운 문화가 지속되길 바라고 있다.



2014 효행청소년상 수상자

번호	학교	학년반	성명	비고
1	속초초등학교	6-1	탁영서	
2	중앙초등학교	6-1	서정호	
3	영랑초등학교	6-3	전휘중	
4	교동초등학교	6-5	김윤성	
5	온정초등학교	6-1	이지희	
6	청대초등학교	6-4	우승민	
7	청봉초등학교	6-3	박채원	
8	청호초등학교	6-친절반	권은선	
9	대포초등학교	6-1	이수아	
10	설악초등학교	6-초롱꽃반	오제혁	
11	소야초등학교	6-3	고나영	
12	조양초등학교	6-3	김종국	
13	속초중학교	3-2	이한빈	
14	설악중학교	3-5	함성권	
15	속초여자중학교	3-7	최명심	
16	설악여자중학교	3-8	함선혜	

제22기 향토문화학교

속초문화원 향토문화학교는 지역의 전통 있는 평생교육강좌로 올해 22기생의 수료생을 배출하였다.

강좌는 3월 11일 입교식을 시작으로 '장구교실, 사물중급, 한지공예, 서예교실, 민요교실, 고전무용반, 노래교실' 등 7개 강좌가 11월까지 진행되었고, 11월 27일~29일 3일간 향토문화학교 발표회 및 전시회를 가졌다.

입교식

- 일시 : 2014년 3월 11일 11:00
- 장소 : 속초시문화회관 소강당
- 참가자 : 문화학교 수강생 등 70명

문화학교 결과

강좌명	요일	교육시간	교육회차	교육장소	향유인원	강사
장구교실	월 · 목	10:00~12:00	55회	갯마당연습실	7명	임효건
사물중급	월 · 목	13:00~15:00	55회	갯마당연습실	16명	
서예교실	화 · 금	10:00~12:00	55회	문화사랑방	17명	김동하
노래교실	화 · 금	13:00~15:00	55회	문화사랑방	33명	최봉하
민요교실	화 · 수	14:30~16:30	56회	갯마당연습실	20명	김헌섭
한지공예	수	10:00~12:00	28회	문화사랑방	10명	이진향
고전무용	수 · 목	13:00~15:00	57회	문화사랑방	16명	김민희

수료식 및 전시, 발표회

- 일시 : 2014년 11월 27일~29일
- 참가자 : 문화학교 수강생 등 100명
- 장소 : 속초시문화회관 소강당, 제1전시실
- 내용 : 개전식 : 11월 27일 10:30
수료식 : 11월 27일 11:00
전시회 : 11월 27일~29일 / 한지공예, 서예 작품 전시
발표회 : 11월 27일 10:30 / 노래교실, 장구교실



2014 노인 일자리사업 ‘실버문화 관광해설사’

만65세 어르신에게 사회참여의 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노인일자리사업 ‘실버문화관광해설사’ 사업을 2009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본 사업은 어르신들이 해설사 양성교육을 받은 후 지역의 주요 문화관광거점에서 속초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지역문화와 관광자원을 소개하며 지역문화관광의 첨병역할을 하였다.

올해는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간 아바이마을, 영금정, 영랑호 범바위, 청초청, 속초시립박물관, 학무정, 엑스포공원 등 7개 관광지에서 관광해설을 하였다.



- 사업명 : 2014 노인일자리사업 ‘실버문화관광해설사’
- 사업일시 : 2013년 3월 ~ 11월(9개월)
- 해설장소 : 아바이마을, 영금정, 영랑호 범바위, 청초청, 속초시립박물관, 학무정, 엑스포공원
- 참가자 : 36명
- 내 용 : 어르신 문화해설사 양성 및 근무

속초문화원은 초등학교 대상 전통문화교육사업인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을 2008년부터 주관하였다. 본 사업은 ‘북청사자놀이’, ‘속초도리원농악’, ‘속초도문농요’ 등의 지역 문화자원과 취타대, 창극, 국악관현악 같은 새로운 국악 장르를 지역 6개 초등학교와 연계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문화감수성 향상과 지역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국악을 배운 학생들이 풍물동아리를 형성하여 주 1회 풍물교육을 전수받아 교육의 연속성을 유지하였다. 특히 지역사회와의 공유 및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2014 속초·양양 어울림 음악축제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다.

2014 학교 문화예술교육 ‘국악이랑 놀자’



국악심화교육 내용

학교명	강좌명	지도 강사	인원	교육내용	교육 횟수
청호초등학교	북청사자놀이	신우근	29	연희(애원성, 곱추, 넝두리, 승무 등)	30
		김청익	29	마당극	30
		김태희	29	통소	30
속초초등학교	취타대	최재학	31	취타대 편성과 용고, 나각, 나발 교육	38
		임희영	31	태평소 및 전체 진행	30
청봉초등학교	창극	김한섭	21	판소리, 무용, 연희	61
온정초등학교	도리원농악	임효건	40	도리원 농악 전반(가락), 소고 및 상모	30
설악초등학교	속초도문농요	김부영	40	도문농요 및 농사놀이	30
대포초등학교	국악관현악	박치영	70	국악관현악 편성 및 악기교육	30
청소년풍물동아리	사물놀이	전형준	20	사물놀이	25

■ 2014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으랏차차! 속초사자탈 소망전시회’

일시/장소 : 2014년 9월 7일 8월 21일 ~ 24일/
엑스포 청초호 수변로

참가학교 : 학교문화예술교육 참여 학교 전체

■ 2014 속초양양 어울림 음악축제

일시/장소 : 2014년 10월 14일/속초문화회관 대강당

참가학교 : 속초초등학교 취타대,

대포초등학교 국악관현악, 청봉초등학교 창극

■ 제49회 설악문화제 ‘거리페스티벌’

일시/장소 : 2014년 10월 10일~12일/설악문화제 행사장

참가학교 : 청소년풍물동아리

■ 대포초등학교 발표회

일시/장소 : 2014년 12월 17일

참가학교 : 대포초등학교 국악관현악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꿈다락토요문화학교 ‘놀며 배우는 3(色)문화학교’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공모사업에 올해도 당선되어 “놀며 배우는 3(色)문화학교”라는 제목의 문화예술교육사업을 실시했다. 이 사업은 지역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힙합, 인형극, 영화 등의 예술장르를 콘텐츠로 다양한 문화체험을 하는 프로그램. 3~6학년 대상 20명을 3기로 모집하여 3월~12월 동안 총30회 교육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관외문화탐방, 발표회 등의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 등의 활동도 함께 하였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교육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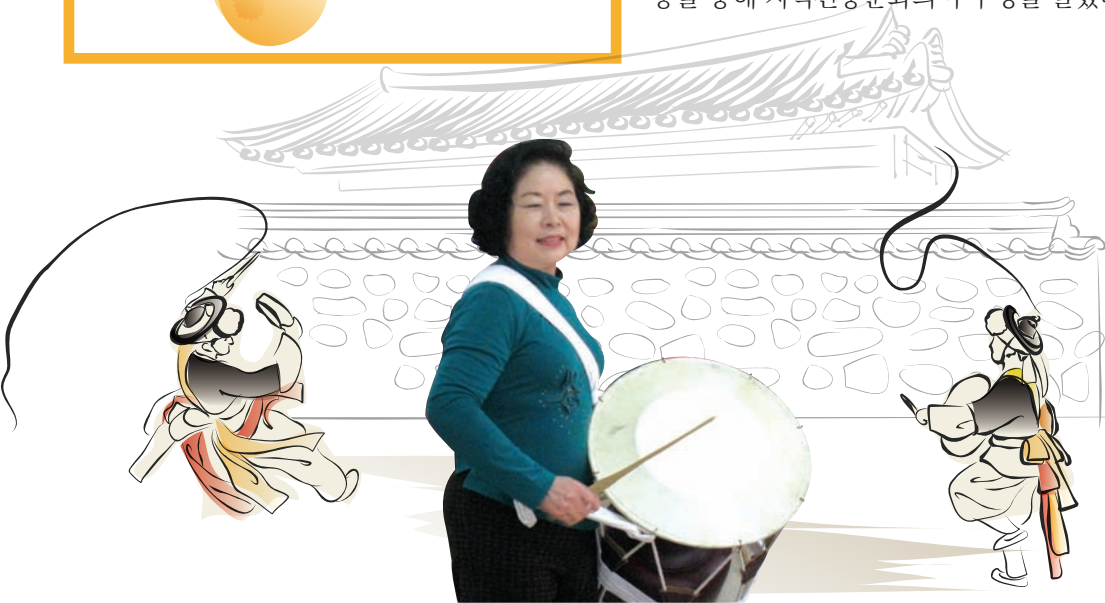
기수	향유자	참여강사	교육내용
1기	22명	5명	가족과 친구들에 대한 불만을 랩으로 표현하기
2기	21명	4명	내 경험과 고민을 인형극으로 제작하기
3기	20명	5명	내가 만들고 싶은 영화 만들기



속초 도리원농악대 운영

지역의 사라져가는 전통무형문화인 속초도리원농악을 보전·전승하기 위해 런갯마당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다.

속초문화원 주부풍물단과 학생풍물동아리 '뉘누리'대상 총 42회 전승교육을 진행. 강릉단오제 사물놀이경연대회 참가, 제49회 설악문화제 설악제례 기념공연, 찾아가는 문화자원봉사 등의 활동을 통해 지역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알렸다.



속초도리원농악 교육결과

교육	회차	기간	대상	강사
심화교육	36회	3월~12월 매주 목요일	주부풍물단 15명	전형준, 정호열
통합교육	6회	4월~10월 월 1회	주부풍물단 15명 뉘누리 20명	



속초문화원은 속초유일의 강원도 무형문화재인 속초도문농요의 지속적인 재현과 보존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속초도문농요 보존회원 및 속초시립풍물단, 런갯마당 소속 예술인으로 구성된 공연단은 올해 강원도 지정 무형문화재 소리콘서트, 강원국제민속예술축제 등 관외축제 초청공연으로 우리지역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알렸다. 그리고 올해 속초도문농요전수관이 건립되어 도문농요가 더욱 체계적으로 보존, 전승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속초도문농요 전승 및 공연



2014 속초도문농요 공연 결과

회차	일 시	장 소	내 용	관객
1회	9월 27일	횡성 정금민속전시관	강원도 지정 무형문화재 소리콘서트 참가	300명
2회	10월 9일	강릉 임영관	강원국제민속예술축제 초청공연	300명
3회	10월 12일	설악문화제 행사장	제49회 설악문화제 초청공연	300명
4회	11월 20일	대포초등학교 체육관	대포초등학교 학생대상 공연	80명
5회	11월 21일	문화회관 대강당	지역 고3수험생대상 청소년문화전수교육 초청공연	900명

속초북청사자 놀이 전수 및 공연

지역의 대표 실향민 문화콘텐츠인 속초북청사자놀이의 전승과 보전을 위해 지역예술인, 시민들과 함께 전수교육 및 공연을 진행하였다.

공연단은 속초시립박물관 6.25 실향민 체험행사 공연을 시작으로 총 11회 공연을 하였고, 공연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13회 공연연습을 가졌다.

특히 삼척이사부독도축제 초청공연과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실시한 강원민속의 해 기념공연은 지역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속초북청사자놀이 공연연습

일시 : 4월~11월 화요일 19:00~21:00 총 13회

장소 : 속초문화원, 속초시립박물관

참가자 : 북청사자놀이보존회원 40명



속초북청사자놀이 공연

회차	일시	장소	내용	관객
1회	6월 25일	속초시립박물관	속초시립박물관 6.25 실향민 체험행사 초청공연	100명
2회	7월 11일	삼척이사부축제 행사장	삼척이사부독도축제 초청공연(2회)	400명
3회	7월 19일	속초시립박물관	속초시립박물관 야간개장 초청공연	200명
4회	7월 26일	속초시립박물관	속초시립박물관 야간개장 초청공연	200명
5회	7월 30일	국립민속박물관	강원민속의해 기념 공연	200명
6회	8월 8일	속초시립박물관	속초시립박물관 야간개장 초청공연	200명
7회	8월 15일	속초시립박물관	속초시립박물관 야간개장 초청공연	200명
8회	8월 16일	속초시립박물관	속초시립박물관 야간개장 초청공연	200명
9회	9월 21일	엑스포공원 행사장	함남도민 한마당 큰잔치 초청공연	500명
10회	10월 11일	설악문화제 행사장	설악문화제초청공연	300명
11회	12월 21일	속초시립박물관	속초시립박물관 세시풍속행사(동지) 초청공연	100명

속초문화원 산하 문화예술 동아리

속초문화원은 지역문화예술의 뿌리인 문화예술 동아리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설악주부풍물단 ‘해울림’과 통소교실은 지역문화인력 확충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 사물놀이 동아리는 제19회 강원도사물놀이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장려상을 수상, 민요반은 지역의 다양한 문화행사에 초청되어 공연활동을 하고 있다.



2014 어르신 문화학교 ‘풀묶음문화 나눔봉사단 Season3’

어르신문화자원봉사자 양성과 활동을 지원하는 어르신문화학교 ‘풀묶음문화나눔봉사단이 세 번째 마당을 올렸다. 올해는 어르신들이 봉사단명을 ‘설악문화나눔 친구들’로 개명하여 1월부터 11월까지 150여회 문화자원봉사를 진행하였고 속초시시니어클럽과 함께 노인일자리사업 ‘풀묶음강사파견사업’을 함께하여 지역사회에 큰 호평을 받았다.



사업명 : 어르신문화학교‘플류음문화나눔봉사단 season3’

교육기간 : 2014년 4월~12월

교육내용

구분	회차	대상	교육내용
기초반	15회	신규교육생 16명	다양한 문화체험활동을 통한 문화봉사자 양성
심화반	15회	문화봉사단 14명	연극놀이, 종이접기, 전통놀이 등 문화봉사활동에 필요한 교육
통합 워크숍	4회	봉사단 29명	봉사활동 내용 및 진행방향 공유



봉사활동 분야 및 내용(2014년 1월~11월)

활동분야 : 전통문화(사물놀이, 민요, 고전무용, 전통놀이 등), 동화구연(신문지동화, 수건동화, 동화구연, 옛날이야기, 동화 소품 만들기 등), 기타(종이접기, 북아트, 지역축제 행사지원 등)

봉사횟수 : 153회

구분	대상	비고
초등학교	죽왕초등학교, 영랑초등학교, 천진초등학교, 아이진초등학교	주 1회
지역아동센터	다솜아동센터, 어울림아동센터, 꿈동산아동센터	주 1회
어린이집	착한어린이집	월 2회
노인복지관	성암노인복지관, 예은요양원, 가리따스요양원, 평강요양원	월 2회
기타	제6회 사회복지대축제, 청호동성당	

2014 어르신 문화동아리 ‘실향민 문화전파단 돈돌라리아!!’

지역의 사라져가는 실향민문화인 돈돌라리와 함경도민요를 보전·전승하기 위해 지역어르신들과 함께 실향민문화 전파단 ‘돈돌라리아!!’를 육성하였다. 어르신들은 돈돌라리, 전갑성타령 등의 함경도민요와 무용을 배워 어르신문화대축제, 등대축제 등 총8차례 공연활동과 강릉mbc 강원 365 등 방송출현을 통해 지역문화의 우수성을 알렸다.





사업명 : 어르신문화동아리 실향민문화 전파단 ‘돈돌리야!!’

교육기간 : 2014년 4월~11월

교육대상 : 어르신동아리 24명

교육내용 : 함경도민요와 무용

공연활동

공연일시		공연장소	내용
1회	6월 25일	속초시립박물관	속초시립박물관 6.25 실향민 체험행사 초청공연
2회	7월 26일		속초시립박물관 아간개장 초청공연
3회	8월 8일		속초시립박물관 아간개장 초청공연
4회	8월 15일		속초시립박물관 아간개장 초청공연
5회	9월 19일	홍천문화센터	2014 강원도권역 어르신문화축제 공연
6회	9월 24일	국립중앙박물관	2014 어르신문화대축제 공연
7회	10월 11일	설악문화제 행사장	제49회 설악문화제 시민문화동아리 경연대회 참가(2등)
8회	10월 18일	속초등대	속초민예총 주관 등대축제 초청공연

2014 문화유적답사

속초문화원 문화가족들의 문화정체성을 일깨우고 문화시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관외지역 문화유적답사를 올해 두 차례 진행하였다.

1차 답사는 5월 20일 경기도 수원 화성 일대를, 2차 답사는 12월 13일~14일 부산 일대를 탐방하였다.



2014 문화유적답사

회차	일시	장소	참가인원
1차	5월 20일	경기도 수원 일대	80명
2차	12월 13일~14일	부산 일대	40명

제49회 설악문화제 설악제례

설악제례는 설악문화제의 시작과 끝을 알리며, 속초시의 번영과 시민의 안녕을 기원하고자 하는 행사이다. 올해는 10월 4일 설악산신제(설악산 소공원)를 시작으로 11일 영신제, 12일 송신제를 설악문화제 행사장에서 진행하였다.

특히, 설악문화제 행사장에서 진행된 영신제와 송신제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설악제례의 의미를 더욱 크게 하였다.



제례명	일시	시간	장소
설악산신제	10월 4일	08:00~09:00	설악산소공원
영신(산신합동)제	10월 11일	10:00~11:00	설악문화제 행사장
송신(산신합동)제	10월 12일	16:00~17:00	설악문화제 행사장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워크숍 및 포럼

올해 속초문화원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자리를 마련하였다. 4월 19일 오후 1시 속초문화원 문화사랑방에서 '사진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시민워크숍', 5월 13일 오후 2시 속초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설악신문사, 속초예총, 속초민예총과 함께 '6.4 지방선거 속초문화예술분야 정책발표회', 11월 10일 오후 4시 속초문화원 문화사랑방에서 2014 전문가 초청 특강 '문화관광 도시로서의 속초관광 활성화 방안' 등 워크숍 및 포럼을 진행.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였다.



2014 강원민속 문화의 해 기념 ‘지역민속문화 발굴조사’

강원민속문화의 해를 맞아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거나 소멸되어가는 지역의 민속문화의 보존 전승을 위해 지역의 지명과 민속마을을 조사하는 강원 민속문화 발굴조사사업을 진행하였다. 강원도문화원연합회 주최로 실시한 본 사업은 강원도사 등 고문헌에 등장하는 지역의 지명을 확인하여 고유의 명칭과 현재의 지명과 위치를 수집·정리하는 속초의 지명조사, 지역전통마을(상도문)의 역사, 신앙, 세시풍속, 일생의례 등을 조사하는 마을민속조사 등 두 개 사업을 속초문화원 소속 향토사연구위원들과 함께 진행. 본 결과물은 지역향토민속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추후 조사보고서로 발간될 계획이다.



청소년 방학프로그램

청소년방학프로그램은 여름방학동안 지역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을 전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초등학생대상 2개 문화강좌와 고등학생대상 예술체험캠프 등 3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문화강좌는 초등 1~3학년대상 영화를 보며 다양한 문화체험을 즐기는 '영화야 놀자'와 초등 4~6학년 대상 놀이를 통한 예절교육 프로그램인 '생활예절과 오감체험'을 진행하여 창의성과 사회성을 함양하는 계기가 되었다. 예술체험캠프는 문화예술체험을 경험하기 어려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극, 음악 등 예술체험과 놀이의 공간이 되도록 진행하여 청소년 향유 문화프로그램의 틀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프로그램명	일시	장소	향유인원	진행강사	문화자원봉사자
여름방학문화강좌 '영화야 놀자'	7월28일~8월8일 09:30~12:30	문화	28명	2명	
여름방학문화강좌 '생활예절과 오감체험'	7월28일~8월8일 13:30~16:30	사랑방	14명	4명	
청소년예술체험캠프 '뮤지컬로 더위사냥'	7월29일~31일	속초시립 박물관	27명	4명	3명



2014 청소년 문화전수교육

‘꿈꾸는 청춘, 너희들이 미래야!!’

수능이 끝난 고3수험생 대상 지역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문화예술공연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청소년문화전수교육 사업을 11월 21일 속초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진행하였다.

올해 행사는 ‘꿈꾸는 청춘, 너희들이 미래야’란 제목으로 속초도문농요보존회, RUN갯마당, 서울시어터 등 지역문화예술단체 공연과 초청공연으로 밴드 사운드박스의 공연이 펼쳐졌다.

전통문화와 지역예술단체의 창작공연, 초청밴드가 어우러진 이번공연은 지역 3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900여명과 함께했다.

행사명 : 2014 청소년문화전수교육 ‘꿈꾸는 청춘, 너희들이 미래야’

일시/장소 : 2014년 11월 21일 / 속초문화회관 대강당

대상 : 관내 3개 고등학교 3학년 500여명

공연내용

지역전통문화 : 속초도문농요

지역문화예술단체 : RUN갯마당(국악),
서울시어터(뮤지컬),
키라(댄스)

초청밴드 : 사운드박스



Culture Center
movements

속초문화원 가족 동정

속초문화원·속초시니어클럽 노인 문화강사 양성 추진

속초문화원(원장 박무웅)과 속초시니어클럽(관장 홍흥기)이 4월 21일 문화원에서 노인일자리사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속초문화원과 시니어클럽은 이번 협약에 따라 새로운 노인일자리 사업 창출 및 참여자 확대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속초문화원이 노인들을 문화강사로 양성해 지역아동센터 및 초등학교 돌봄교실 등에 배치하는 ‘풀뭍음강사과견사업’을 중심으로 노인일자리 협력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속초문화원·서울중구문화원 업무협약식

agreement

속초문화원과 서울중구문화원은 상호간 협력을 공동의 발전을 위해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11월 26일 속초문화원 문화사랑방에서 진행된 본 협약식에서 양 문화원은 지역문화의 상호 교류 및 공동 연구 등 지역문화의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협약하였다.



고재양 이사, 강원도지사상 표창

11월 7일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강원문화대축전에서 고재양이사가 문화원활성화지원 부분 유공자로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윤광훈 이사, 대통령 표창

a presidential citation.

윤광훈 이사가 2013년 12월 26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유공자 표창식에서 지역주민의 통일지 결집과 평화통일 기반 구축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임동환 이사,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표창

임동환 이사가 9월 17일 서울디지털단지 G밸리비즈플라자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 주최로 열린 '산업단지 출범 50주년 기념식'에서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한편 임동환 이사는 12월 전국농공단지협의회 회장에 선출되기도 했다.

정봉재 이사, 제10대 속초예총회장 취임

2월 27일 속초예총 정기총회를 통해 본원 정봉재 이사가 제10대 속초예총 신임회장으로 당선되었다. 임기는 2015년 정기총회까지 1년이다.

김인섭 사무국장

'제18회 민족예술상-고진감래상' 수상

김인섭 속초문화원 사무국장이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의 '제18회 민족예술상-고진감래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2월 28일 서울 가톨릭청년회관 바실리오홀에서 열린 '민예총 2014년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가졌다.

*Sok-Cho
Culture Center*

유인혜 회원 대상 수상

도리원농악, 돈돌라리 등 속초문화원에서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유인혜 회원은 11월 25일 태백종합예술회관에서 태백아라레이 보존회가 주최하는 제9회 태백아라레이 경창대회에 참가하여 대상을 수상하였다.



*Family
movements*

향토문화학교
전시회

지상전



한지공예 시상전시



용기 _ 심은정



문갑 _ 이강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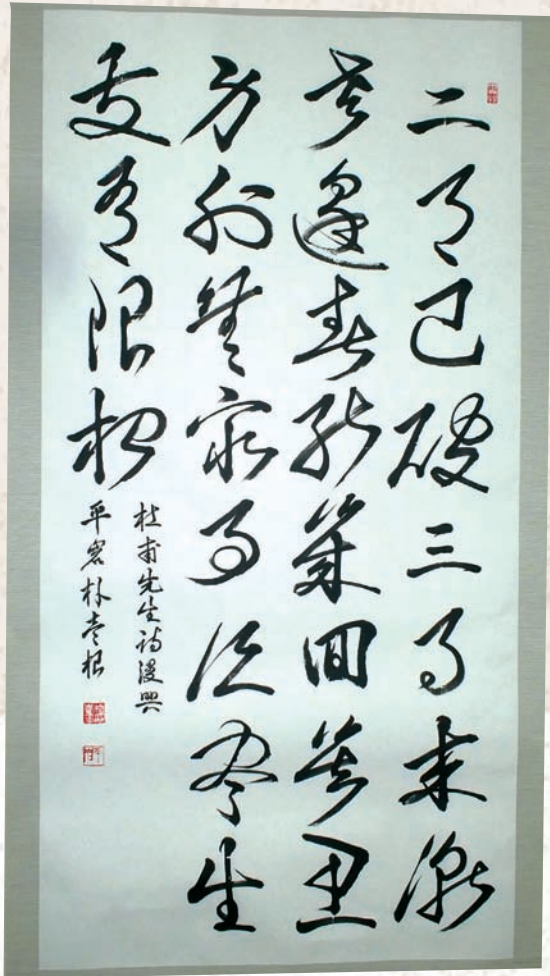


나비장 __ 정경아, 이선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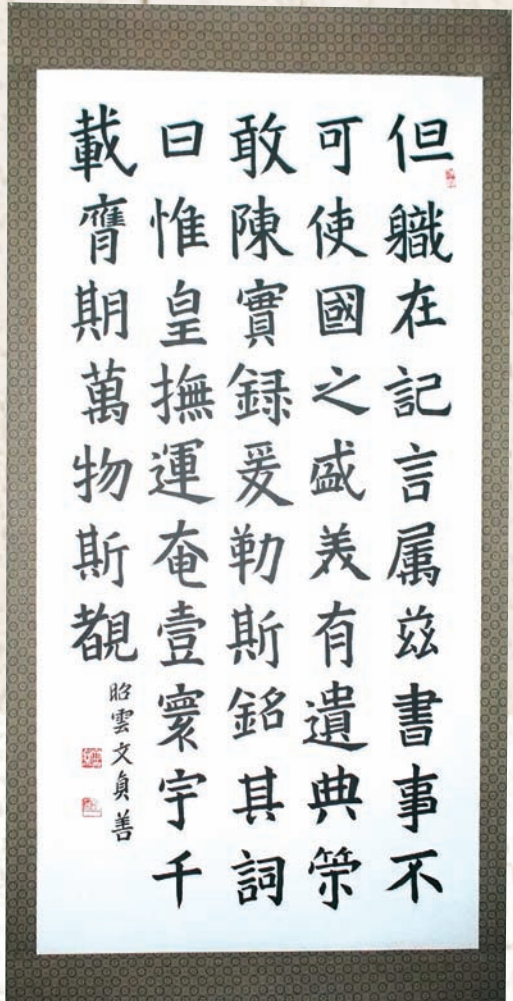


상과꽃등 __ 한미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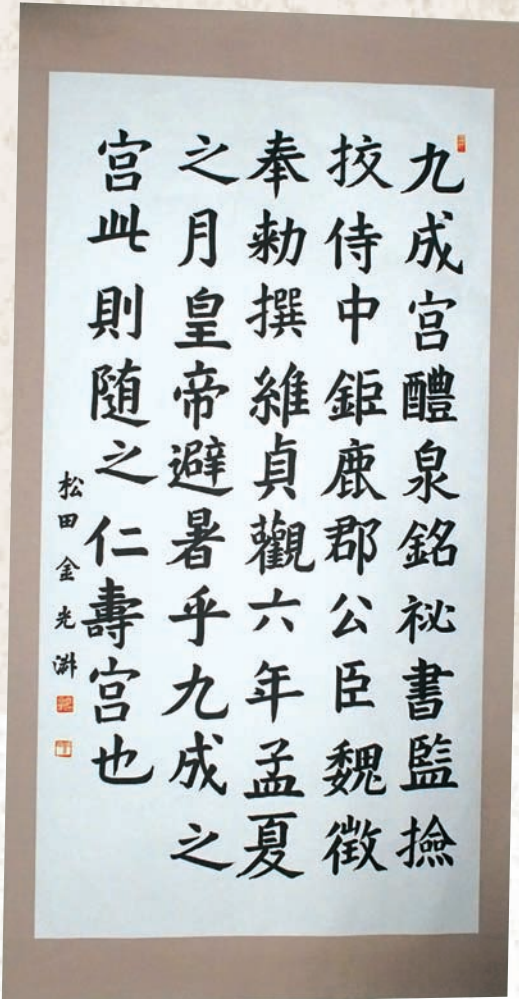
서예 지상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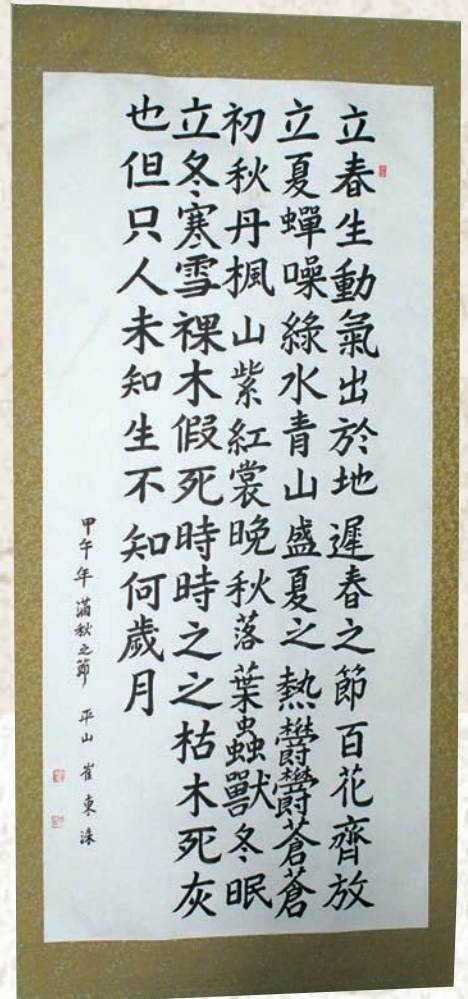
- 평암 박일근
- 두보의 시 만흥(흥에겨워)



- 수운 문정선
- 구성궁예천명(九成宮禮泉銘)



-송전 김광숙
 -구성구예천명(九成宮醴泉銘)



-평산 최종수
 -무제(無題): 사계절을 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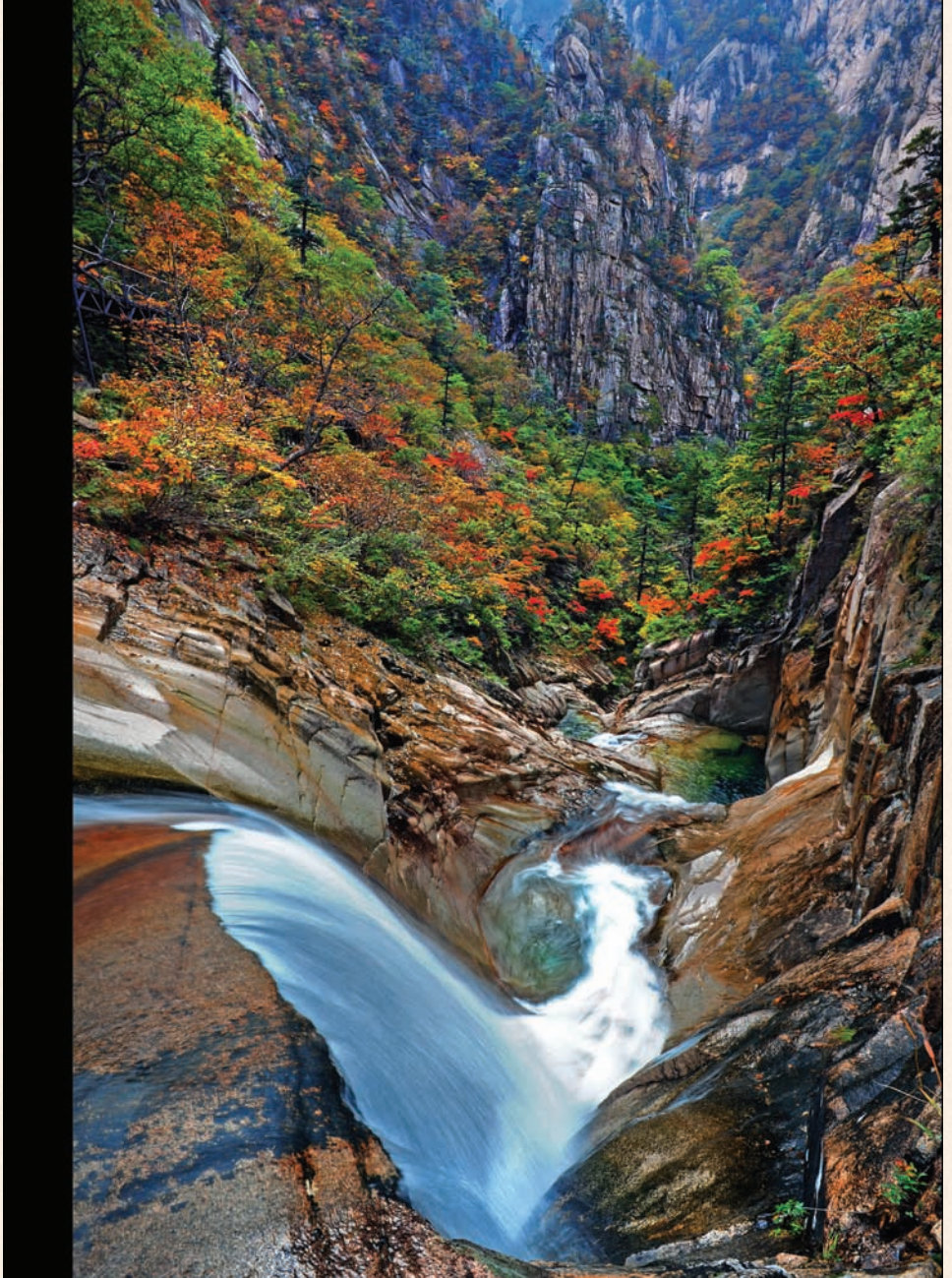
제 14회
속초 관광사진
공모전 수상작



__금상
__이성길
__태고의 신비 설악산



—은상
—이해순
—지신뵈기



__동상
__김부오
__오련폭포



—동상

—장소라

—꽃과 구름



__동상
__이찬수
__워터보드와 보트



__가작

__김태성

__ 설악대교의 석양



__가작

__이항우

__등대와 풍경



— 가작
— 김기덕
— 축제



—가작
—박수복
—여명



—가작

—박명호

—트라이애슬론1

특집

* '돈돌라리' 민요의
실상과 전승론적 의미 | 장정룡

* 속초 무형문화의 유형고찰 | 양언석



'돈돌라리' 민요의 실상과 전승론

장정룡 (강릉원주대 교수)

1. 머리말

속초에 살고 있는 실향민은 고향을 북쪽에 두고 갈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민족분단의 비극적 역사의 희생자이다. 또한 그 상실의 고통을 극복하고 남쪽에서 자기실현을 수행하고, 모듬살이를 추구하며 늘 고향회귀와 남북평화통일을 꿈꾼다. 속초는 함경도 피난민 제2의 고향인 청호동 아바이마을이 존재하고 있다. 이들의 이주정착은 속초 속의 함경도라는 새로운 융합문화를 창조하였다.¹⁾

아울러 이들의 함경도 문화이식과 정착은 분단한국의 한을 간직한 채 속초에서 전승의 꽃을 피우고 있다. '돈돌라리'는 함경남도 지역에서 전승된 '가무놀이' 또는 '노래춤'으로서 그 가락과 춤사위가 상징적이며 복합적인 의미를 내재한 것으로 파악된다. 본고에서는 '돈돌라리' 민요의 유래를 고찰하고, 속초 전파와 정착 과정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돈돌라리의 어원과 노랫말의 전승양상

돈돌라리는 함경남도 신창, 덕성, 단천, 이원, 갑산, 풍산지역의 민속무용으로 특히 북청 모래산(현재 신창군 속후)의 돈돌라리가 가장 유명하며 북한에서도 현재 집단가무놀이로 널리 퍼졌다.²⁾ 이 민요는 문화이식(文化移植:culturation acculturation)으로 정착된 것이다. 문화이식은 제국주의에 의한 식민화, 정복이나 전쟁 혹은 군사적 점령, 대규모의 인구이동의 경우에 발생하는 현상이다.³⁾

함경남도에서 속초로 옮겨온 민요 ‘돈돌라리’의 민요적 정체성과 그것은 의미를 탐구하면, 우선적으로 “돈돌라리란 어원은 알 수가 없고 일제에게 나라를 잃은 이후부터는 ‘동틀날’ 즉 조국광복의 여명이 밝아온다는 뜻에서 불렀다고 전해온다”고 하였다.⁴⁾ ‘돈돌라리’의 어원설명은 대부분 유사한 바,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돈돌라리 민요, 1930년대초 북청지방에서 창조되었다. 가사는 ‘돈돌라리, 리라라리요’ 등 별 뜻이 없는 어구들의 반복으로 이루어지면서 ‘모래산천, 시내강변, 보배산천’ 등의 단편적인 표현들이 그와 결합되어있다. 음악은 리듬이 선명하고 절도가 있으며, 흥겹고 낙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곡조는 부르기 쉬운 선율로 이루어져 있으며 ‘먹일소리’ ‘반는소리’의 구분이 선명하지 않다. 이것은 노래가 무곡으로 발전한 것과 중요하게 관련되어있다. 이 민요에 맞춘 춤은 제각기 흥이 나는대로 추다가 원을 지어가면서 절도있게 추기도 한다. 춤가락은 손목을 다양하게 움직이는 동작과 경쾌한 발 움직임에서 다른 춤들과 구별된다. 북청지방에서는 이 노래에서 파생된 ‘흘라리, 라이라테들, 라이쏘’ 등 수많은 민요들이 있다. 이런 노래들도 ‘돈돌라리’와 마찬가지로 무곡으로 되어 있다.⁵⁾

돈돌라리는 북청지방 민요이다. 이곳 사람들의 노래에 ‘동틀날이 오리라’ 즉 ‘광복의 날이 다가온다’는 뜻을 담아 명절날이나 모임이 있을 때마다 이 노래에 맞추어 춤을 추며 놀았다. 노래에는 일제침략자들을 하루빨리 우리나라에서 쳐몰아내고 다시금 평화롭게 살 날이 동이 터오듯 반드시 올 것이라는 믿음과 신념이 반영되어 있다.⁶⁾

북청지방민요인데 이 곳 사람들은 노래 제목을 ‘동틀날’ 즉 ‘해방의 날이 다가온다’는 뜻으로 해석하면서 명절날이나 모임이 있을 때마다 이 노래에 맞추어 춤을 추면서 놀았다.⁷⁾

일설에는 ‘동틀날이 동틀날이 동틀날이요’라고 부르다가 일제 강점기 순사가 찾아오면 그 뜻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발음을 흘려 ‘돈돌라리’라고 불렀다고도 한다. 필자의 관건으로 ‘돈돌라리’가 본래 ‘돌고돌다’의 회전을 의미하는 ‘돌다’의 ‘돌’이 겹쳐 ‘돌고 돈다’와 같이 이 말을 강조한 ‘돌돌’이 ‘돈돌’로 변하고 ‘라리’는 ‘메나리(미나리)’ 민요를 뜻한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함경남도 북청지방에는 돈돌라리,

1) 장정룡, 「속초실향민문화의 전승과 창조적 발전방안」 『속초문화』 26호, 속초문화원, 2010, 94~125쪽

2) 장정룡, 「속초실향민 민속놀이의 콘텐츠 개발」 『속초문화』 23호, 속초문화원, 2007, 80쪽

3) 이우영, 『북한문화의 수용 실태조사』 통일연구원, 2001, 8쪽

4) 최창호, 「북청의 돈돌라리와 흘라리」 『민요따라 삼천리』 평양출판사, 1995, 42쪽

홀라리와 함께 ‘미나리’ 민요가 전승되므로⁸⁾ ‘돌고 돌면서 부르는 메나리 또는 미나리’라는 뜻의 ‘돌돌 미나리’가 음운축약으로 줄어서 ‘돈돌라리’가 된 것이 아닐까 의심된다.

‘돈돌’이라는 뜻은 회전(回轉)을 뜻한다. 제 구비로 돌아온다는 어원이다. 국토를 빼앗아버린 일본의 침략적인 식민지가 된 우리 땅이 제 나라의 백성의 손에 되돌아온다는 뜻이 되기도 한다. 여러 군민들이 이 노래를 부르다가 일본경찰에 끌려가 고문당한 사실을 생각하면 필경 일인들은 그러한 사상적인 표현으로 본 것이 분명하다. ‘동틀날’ 여명의 뜻도 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가지 첨부시켜 생각할 것은 속후(俗厚)에 있는 모래산 이야기다 이것은 분명 근대에 들어와서부터 전해 내려온 이야기다. 이조 초에까지 소급하여 이신 벌군(以臣伐君)하여 집권한 이조는 저 모래산에 모래가 다 덮히면 망한다는 뜻에다가 돈돌한 사실을 생각하면 필경 일본인들은 그러한 사상적 표현으로 본 것이 분명하다.⁹⁾

메나리는 우리나라 민요의 토리로 ‘메나리(미나리)조’라는 특색을 갖고 있으며 우리민족에게는 보물과 같은 곡조다. 흥사용은 메나리는 민요를 지칭하다고 했으며 한국의 보물, 거룩한 녀이라고 까지 말하였다.¹⁰⁾ ‘돈돌라리’는 춤과 노래로 진행되는 가무곡으로 반일운동 때 널리 불린 것으로 전한다.

반일운동을 하는 과정에 널리 불리워진 ‘돈돌라리’는 8소절로 되어있는 짧은 형식의 민요인데 운치있는 선율을 더듬어보아도 가무곡의 하나였음을 알 수 있다. 원래 북청지방은 모래로 형성된 산과 밭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장 사람들은 주로 시내강변의 백사장에서 ‘돈돌라리’의 춤을 추었다. 둥그렇게 원을 짓고 사람들이 둘러앉으면 그 중 몇몇 사람들이 춤판에 뛰어 들고 나머지 사람들은 손벽장단을 치며 노래를 부른다. 여기에는 피리, 저대 등 풍악반주가 따르기도 하였지만 기본은 북장단이었다. 춤판이 점점 흥겨워지고 분위기가 고조되면 춤판에 뛰어드는 사람이 많아지고 빙글빙글 돌면서 원을 짓고 춤을 추었다고 전해온다.¹¹⁾

지금까지 전하는 돈돌라리는 8소절로 구성된 비교적 짧은 민요곡조다. 그동안 한국, 북한, 중국 조선족 등에서 전승된 노랫말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악보는 두가지를 게재한다.¹²⁾

- 1) 돈돌라리 돈돌라리 돈돌라리오/리라 리라리 돈돌라리오
- 2) 돈돌라리 돈돌라리 돈돌라리오/시내강변에 돈돌라리오
- 3) 돈돌라리 돈돌라리 돈돌라리오/모래산천에 돈돌라리오
- 4) 돈돌라리 돈돌라리 돈돌라리오/보배산천에 돈돌라리오¹³⁾
- 5) 돈돌날이 돈돌날이 돈돌날이오/모래靑山에 돈돌날이오
- 6) 오막살이 초가집에 모래江山에/니라리 니라리 돈돌날이오¹⁴⁾

5) 『문학예술사전』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1972, 22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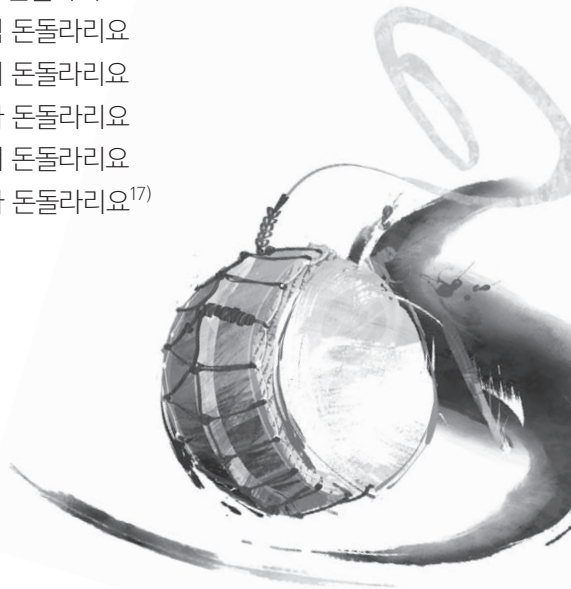
6) 김범주, 『우리말 어휘의 뜻과 유래』 금성정년출판사, 2010, 140쪽

7) 안옥규, 『어원사전』 동북조선민족교육출판사, 1989, 111쪽

8) 이동원, 『조선민요의 세계』 (하), 평양출판사, 2002, 432쪽 “놀이과정에는 ‘동틀날’이와 함께 ‘홀라리’ ‘미나리’도 광범히 불리워졌다. …놀이과정에서 함께 불리워진 민요 ‘미나리’(未來里)도 미래가 마을에 온다는 본래 뜻을 살려 조국광복에 대한 지향을 유연한 선율에 담아 절절하게 토로하고 있다.”

9) 북청군지, 『북청군지편찬위원회』 1970, 260쪽

- 7) 산에가면 산이모두 황금산이라/열매가 주렁져 돈돌라리오
- 8) 들에가면 들이모두 풍년벌이라/금나락 넘쳐나 돈돌라리오
- 9) 집집마다 찾아가면 웃음꽃이라/기쁨이 넘쳐나 돈돌라리오
- 10) 일터마다 찾아가면 노래소리라/일하기 흥겨워 돈돌라리오
- 11) 간곳마다 경치 좋고 살기가 좋아/금수라 이강산 돈돌라리오¹⁵⁾
- 12) 돈돌라리 돈돌라리 돈돌날이오/모래청산에 돈돌날이오.
- 13) 보배청산에 동틀날이오/동틀날이 동틀날이 동틀날이오/리라리라리 동틀날이오
- 14) 동산에 해솟고 서산에 해떨어진다/동틀날이 동틀날이 동틀날이오/리라리라리 동틀날이오
- 15) 역사를 핑핑 돌리는 무산대중아/동틀날이 동틀날이 동틀날이오/리라리라리 동틀날이오
- 16) 무산혁명대열로 뭉쳐 나가세/동틀날이 동틀날이 동틀날이오/리라리라리 동틀날이오¹⁶⁾
- 17) 돈돌라리 돈돌라리 돈돌라리오/때물젖어 가난살이 돈돌라리오
- 18) 조밭콩밭 김다매면 돈돌라리오/햇밥지어 첫술뜨니 돈돌라리오
- 19) 남편소식 그리워서 돈돌라리오/밤이가고 해가뜨면 돈돌라리오
- 20) 돈돌라리 돈돌라리 돈돌라리오/얼씨구나 노래춤에 돈돌라리오
- 21) 돈돌라리 돈돌라리 돈돌라리오/안팎살림 후줄근해 돈돌라리오
- 22) 예비불러 우는자식 돈돌라리오/울지말고 웃어보렴 돈돌라리오
- 23) 겨울가고 꽃피어서 돈돌라리오/천자만홍 꽃피어서 돈돌라리오
- 24) 돈돌라리 돈돌라리 돈돌라리오/돌물레가 돌고돌아 돈돌라리오
- 25) 양말뜨고 조끼뜨며 돈돌라리오/애간장이 타고나서 돈돌라리오
- 26) 기다리는 내사랑아 돈돌라리오/그언제면 님이올가 돈돌라리오¹⁷⁾



10) 洪露雀, 『朝鮮의 메나리 나라』 『別乾坤』 1928년 5월, 최철 설성경, 『민요의 연구』 정음사, 1984, 104쪽 재인용

11) 최창호, 『북청의 돈돌라리와 흘라리』 『민요따라 삼천리』 평양출판사, 1995, 43쪽

12) 좌측 악보는 북한자료인 최창호 위의 책에서 인용하였으며, 우측 악보는 서영화, 최준 수집정리, 『민요곡집』 룡녕인민출판사, 1982, 535쪽으로 조선족 악보이다.

13) 문하연, 『돈돌라리와 달래춤』 『조선의 민속놀이』 군중문화출판사, 1964, 30쪽

14) 『북청군지』 북청군지편찬위원회, 1970, 259쪽에 오막살이, 다른 자료는 초기씨리(살이)도 나온다.

15) 엄하진, 『조선민요의 유래』 예술교육출판사, 1992, 41쪽

16) 이동원, 『조선민요의 세계』 (하), 평양출판사, 2002, 431~43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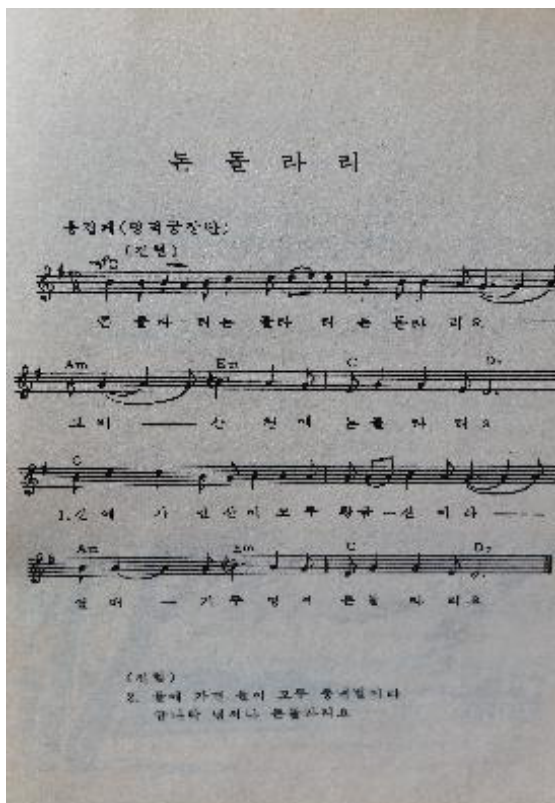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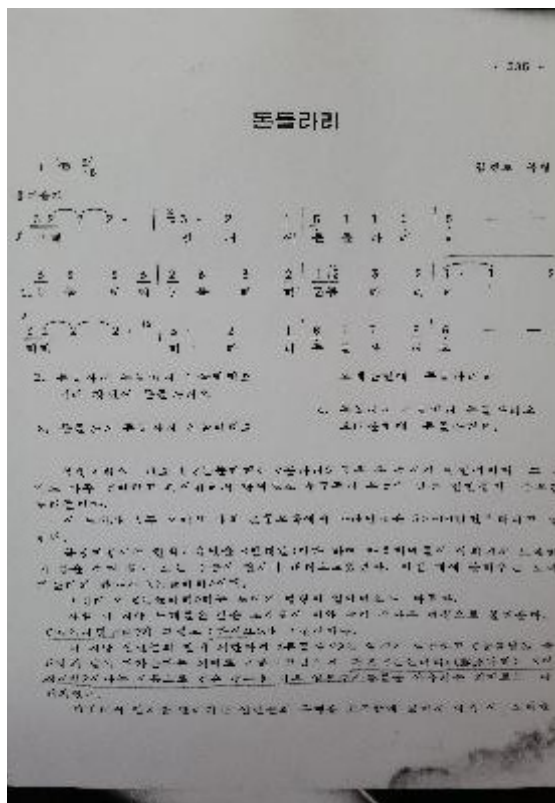
17) 김정훈, 『중국 조선족 민속춤과 민속놀이』 북경민족출판사, 2010, 102쪽



-조선의 민속놀이(1964년)에 수록된 돈돌라리 춤 장면-



-민요따라 삼천리(1995)에 수록된 돈돌라리 춤 -



3. 돈돌라리와 답추무, 달래춤의 상관성

앞서 ‘돈돌라리’를 어원론적 측면에서 원무곡식으로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른 ‘돌돌미나리’가 ‘돈돌라리’로 추정된 바 있다. 북한의 연구에 의하면 돈돌라리를 부르며 추는 춤은 발해의 답추무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

답추무는 답가 또는 답추가에 의하여 추어졌던 춤이었는데 답추무의 구체적인 형식은 원을 지어선 사람들 속에 북을 메고 노래를 맥이면 원무를 하는 사람들은 그 맥이는 노래의 가사에 화답하는 노래를 합창으로 부르면서 춤을 추었던 것이다. 원무가들의 구체적인 춤동작은 여성들이 민족적인 연중행사 때 그네줄을 가지껏 벌렸다가 그네가 밑으로 내려올 때는 그네줄을 잡히는 것과 동시에 그네발판을 다리로 힘껏 굴러서 높이 올라가는 그러한 동작형태를 모방하여 답추무가 창작되게 되었던 것이다. 답추무의 무용형식과 그 구체적인 동작들은 20년대 초에 이르러 ‘돈돌라리’민속무용으로 발전하였던 것이다. 답추무가 인민들의 연중행사 놀이에서 흥겨운 춤으로 추어졌다면 ‘돈돌라리’ 민속무용은 조국강토에 드리운 검은 구름을 헤쳐버리고 동트는 새날 즉 빼앗긴 조국을 되찾으려는 우리 인민들의 애국적인 이상과 염원이 춤과 노래에 구현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확연하게 구별되고 있다. 때문에 ‘돈돌라리’ 민속무용은 옛날의 답추무의 형식을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시대의 환경과 사상조류의 요구에 맞게 혁신적인 성과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다.¹⁸⁾

주지하듯이 발해(698~926)는 고구려를 계승한 한민족의 주권국가로서, 7세기말부터 10세기초까지 229년 동안 우리나라 역사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해동성국(海東盛國)이었다. 중국 동북지역과 북한 북부, 러시아 원동의 남부지역을 포함한 광활한 영토를 차지한 발해사에 대한 연구는 고고학적 발굴과 함께 역사적 전통과 문화적 특성, 민속과 전승설화 등에 대하여 진행된 바 있다.¹⁹⁾

북청지역은 발해국 시대에 5경 가운데 하나인 남경 남해부의 수부가 북청군 속후면 하천리에 있었다. 당시의 도로 흔적을 지금도 찾아볼 수 있는데, 하천산과 부근전야에는 이때 폐허인 초석이 있고 성벽의 잔해가 하천리의 구릉에 묻혀있다. 발해의 견면(바다숨), 말과 돼지, 곤포, 건문어, 자하배는 이곳의 토산물로 수출이 되었다고 하며, 특히 음악의 곡조와 함께 일본에 전해졌으며, 곡보는 고려악중 여러 곡이 들어 있음을 볼 때²⁰⁾ 발해 답추무가 이곳의 돈돌라리로 계승된 것이 아닐까 추정하는 바이다.

7세기경 고구려의 장수인 대조영이 세운 발해국의 주민들이 추던 춤과 답추무는 유사하다. 발해인들의 대표적인 세시풍속 집단무용으로 답추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발해풍속에서 매년 세시풍속 명절 때면 모두가 모여서 이 날을 축하하기 위해 음악을 연주하는데 먼저 노래와 춤에 능한 사람을 명하여 몇몇이 앞으로 나가면서 노래를 부르면 그 뒤로 선비와 병사 등 여러 사람이 따라 부르며 원활하고도 자유롭게 빙빙 돌면서 춤을 추는 원무곡식(圓舞曲式) 춤을 추었다. 이것을 답추(踏鉞)라 한다.²¹⁾

원무곡인 답추는 강강술래춤과 같은 모습으로 유추되는데, 노래와 춤을 곁들인 일종의 집체무로서²²⁾ 일본에도 널리 알려져 일본조정에서도 발해국 사신을 맞이할 때 답가를 연주하여 환영했다고 한다. 답추는 노래를 부르며 춤추는데 서로 팔을 이어서 끼고 수십 명이 서로 따르면서 땅을 발로 차면서 장단을 맞추는 답지위절(踏地爲節)과 같은 것이며, 『서경잡기』에 나오는 연비답지위절(連臂踏地爲節)을 말한다. 따라서 답추는 땅을 발로 차면서 장단을 맞추는 ‘답지위절’로서 답지의 답(蹠)은 ‘밟다’는 뜻과 ‘차다’는 뜻을 다 가지고 있다. 곧 추격지(鎚擊地)와 같은 것이며 전투무도의 형태로도 보고 있다.²³⁾ 중국 소수민족인 장족(藏族) 집단가무의 척답무(踢踏舞, 일명 堆諧)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면위에서 발로 차고 땅을 밟는 행위다.

퇴해(堆諧) 가무의 무도동작의 가장 큰 특징은 다리 부분의 차기와 밟기이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차기와 밟기는 서양 탭댄스의 밟기 동작과 다르다. 서양 탭댄스의 다리 동작은 춤추는 사람의 발바닥과 발꿈치(발뒤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선후, 경중으로 분류되며, 지면위의 규칙적인 운동으로, 그리하여 발생하는 각기 다른 여러 종류의 차기와 밟기는, 그 소리가 특징적이다. 중국 장족(티벳족)의 퇴해는 전체 발 부분이 지

18) 『박병화, 『민속무용 돈돌라리』 『천리마』 제10호, 1990, 91쪽

20) 『북청군지』 북청군지편찬위원회, 1970, 124쪽

21) 『契丹國志』卷24 王沂公行程錄(王欣公上契丹事), 『宋會要輯稿』蕃夷2 “渤海俗, 每歲時聚會作樂, 先命善歌善舞者, 數輩前行, 士兵相隨, 更相唱和, 回旋宛轉, 號曰踏鉞” 이외에도 『續自治通鑑長編』卷79, 『遼史』卷39에 수록되어 있다.

22) 王承禮, 『渤海簡史』 黑龍江人民出版社, 1984, 204쪽

23) 張軍, 『說渤海的踏歌』 『哈爾濱學院學報』 제22권, 제2기, 2001, 74~76쪽

면상에서 규칙적으로 만들어지는 차기동작의 음악이 특징적이다. 이것으로도 서양의 탭댄스에서 변화해 온 것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다. 가무자가 뛰고 움직일 때, 상반신은 움직이지 않고 단지 방향을 바꿀 때만 아주 조금 비스듬히 기울뿐이다. 전설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춤을 잘 추는 사람은 머리 꼭대기에 물이 담긴 그릇을 놓아도 물이 조금도 흘러내리지 않았다고 한다.²⁴⁾

따라서 답추는 필자의 언급과 같이 단순히 땅을 밟는 것이 아니라 땅을 신에게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서 ‘땅을 밟로 차면서 고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밟해의 답추는 멀리 우리나라 고대 삼한 때 마한 사람들이 5월과 10월 농공시필기가 되면 다양한 세시행사로써 ‘회선완전(回旋宛轉)’의 방식으로 둥근 원을 돌면서 굽혔다가 도는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다. 이것은 이른바 허리를 굽혔다가 세우는 ‘답지저양’ 그리고 손과 발을 서로 맞추는 ‘수족상응’ ‘구기상수’의 춤과 유사하며²⁵⁾ 돈돌라리도 돌고 도는 원무라는 측면에서 같은 방식이다. 이는 농악의 원무와도 상관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기도 한다.

조선의 농악은 종으로 가장 긴 역사악인 동시에 횡으로 가장 넓은 토속악이라는 점에 있어서 흥미를 느끼게 된다. 농악의 비릇을 찾으려면 실로 망연한 감이 없지 못하나 한인의 기록이라 할지라도 “馬韓常以五月下種訖 祭鬼神 群聚歌舞 其舞數十人 俱起相隨 蹋地低昂 手足相應節奏 有似鐸舞”(三國志)이라 한 것은 단오절쯤에 이앙이 끝나면 일년풍양을 빌어 귀신에 제사하고 수십명이 단취하여 춤추고 노래하되 같이 이러서 뒤를 따라 다니면서(아마 당고의 형식일 것이다) 발춤을 추며 고개를 들었다 숙였다하며 수족으로 절주를 맞추되 그 소리가 탁성과 같다하였고 또 후한서에도 “辰韓俗喜歌舞”라 한 것이 있음을 보면 삼한시대부터도 조선의 농민은 그 향토무악에 매우 즐겨하였던 것을 알 수 있고 그 무도의 양식도 금일의 그것과 방불하였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渤海國俗 每歲時聚會作樂 先命善歌舞者數輩前行 士女隨之 更相唱和回旋宛轉 號曰踏鎚焉”(문헌통고)이라 하고 “濊常用十月祭天 晝夜飲酒歌舞 名爲舞天 其作樂 大抵與夫徐同 特所用月異耳”(동사서)이라 하였는데 ‘회선완전’함이 전자의 ‘구기상수’와 방불한 원무의 형식을 말하는 것 같고 특히 주의를 이끄는 점은 ‘답추’와 ‘특소용월이이’라는 것이다. 답(踏)은 무도의 답을 말함이었으나 추(鎚)는 응당 악기관계를 말하는 것일지니 구당서 예증기에 “上元夜(中略)出內人連袂踏歌”라 한 예를 볼지라도 답은 추를 답한다는 것이 아니요 두 개의 독립된 명사일 것 같다. 즉 답하고 추한다는 것으로서 추는 분명히 악기의 일종일 것이다. 후한서에 “夫餘以臘月祭天 大會連日 飲食歌舞 名曰迎鼓”라 한 것과 아울러 생각하면 다 가치 그 의식화한 무악을 추상명사화시킨 것을 볼 수 있고 그 관념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악기명을 끝으로 붙인 것 같다. 그러면 추는 금속제 타악기구나 그 당시부터 과연 ‘팽매기’같은 것을 사용하였을 것인가. 그리고 전기 인용문중 ‘월이(月異)’라는 것도 ‘팽매기’의 소리를 형용한 ‘달다리’의 차자가 아닐가 하는 점도 있으나 역시 추와 가치한 연구과제로 담겨들 뿐이다.²⁶⁾

이러한 원시종합무용 형태는 중국 운남, 태국 치앙마이일대에 살고 있는 한민족과 혈통이 유사한 라후족의 신년행사와 유사하며, 고대 마한인들의 농경의식춤은 세시풍속으로 전해졌다.

마한에서는 해마다 5월이 되면 씨를 뿌리고 나서 귀신에게 제사를 올린다. 이때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노래하고 춤추며 술 마시고 노는데 밤낮을 쉬지 않는다. 춤을 출 때는 수십 명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서로 뒤를 따르면서 땅을 차고 구부렸다 치켜들었다 하면서 손과 발이 서로 장단을 맞추는데 이 모습은 꼭 중국의 탁무와 흡사하다. 10월에 농사일이 끝나면 역시 이렇게 논다.

상기 3세기경『삼국지』동이전 마한의 기록에서 “땅을 차고 구부렸다 치켜들었다”는 답지저앙(踏地低昂)의 행위는 이른바 땅의 신에게 풍작을 기원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답지’는 ‘땅을 밟는다’는 표현은 복합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답지’는 일상적 행위가 아니라, 적어도 ‘밟는’의식을 강조한 것이고, 단순히 밟은 것이 아니라 밟로 땅을 ‘차는’ 행위이고 ‘저앙’도 땅을 굽어보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풍작을 기원하며 감사한 의식무임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한 흔적을 우리와 동일한 혈청과 풍습을 가지고 중국과 태국일대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인 라후족의 신년제의 집단무에서 볼 수 있다.²⁷⁾

다음에 주목되는 것은 주야 음주가무의 모습, 그리고 그것이 탁무와 흡사하다고 한 것이다. 집단적으로 서로의 뒤를 따르면서 타악이 수반된 집단무용의 모습을 엿보게 한다. 탁무(鐸舞)는 중국의 한-위나라 때 민속무용으로 탁을 들고 추는 춤이다. 이것은 중국 고대의 동이악으로 잡귀를 쫓는 매귀(埋鬼)의 식과 연관된다. 중국 청해성 상손채(上孫寨)에서 출토된 신석기시대 무도문채도분(舞蹈紋彩陶盆)의 안쪽 면에도 다섯 명이 손에 손을 잡고 한쪽 발을 치켜든 모습이 새겨져 있다.



-중국 청해성 상손(上孫)에서 출토된 신석기시대 채색도자기, 한쪽 발을 살짝 들고 손잡고 춤춘다-

24) 彦克, 『豐富多彩的藏族歌舞』 武漢 長江文藝出版社, 1956, 27~28, “堆谐 歌舞的舞蹈动作, 最大特点是在脚部的“踢” “踏”。但这种“踢” “踏”, 都不同于西洋“踢踏舞”的“踢踏”。西洋踢踏舞的脚步动作, 是由于舞者的脚掌与脚根, 分别先后轻重, 在地面上作节奏性的运动, 因而发出各种不同的“踢” “踏” 声音为特征的; 而藏族“堆谐”, 则是以整个脚部随着音乐在地面上作着有规律的踏动为特征的, 这显然不一样(这里, 也可证明它不是由西洋“踢踏舞”变化而来)。歌舞者在跳动时, 上部并不摇动, 只是转方向时才有微微的斜倾. 因此, 传说着凡跳得好的人, 头部顶着一碗水也不会溢出一二来。”

25) 『後漢書』 韓傳 “常以五月下種訖, 祭鬼神, 群聚歌舞, 飲酒晝夜無休. 其舞數十人俱起相隨, 踏地低昂, 手足相應, 節奏有似鐸舞. 十月農場畢, 亦復如之”

26) 『동아일보』 1939년 7월 6일, “郷土舞樂의 農樂, 江陵 풍물의 印象記① 李如星 文書”

이것 또한 발해의 답추처럼 한쪽 발로 땅을 차는 무도행위로 볼 수 있으며,²⁸⁾ 그 역사가 오래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수십 명이 서로의 뒤를 따르면서 춤을 추는 ‘구기상수(俱起相隨)’의 행위는 이속(夷俗)의 전통을 지닌 것으로 수십 인이 동글게 무리 지어 땅을 밟으며 노래 부르는 답가(踏歌)와 다르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마한의 축제는 파종과 수확의 농경세시의례와 직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세시놀음은 계절제의로서 하늘의 신에게 제사를 올리고 음주가무로 놀이판을 벌이며 신과의 만남을 통해 인간의 소원을 빌었음을 알 수 있다.²⁹⁾

지난 2008년 국립문화재연구소와 러시아과학원이 공동발굴한 러시아 연해주의 콕샤로프카 발해 성터에서 사람들이 손잡고 춤추는 장면이 새겨진 토기가 출토됐다. 특히 토기에서 사슴 뿔 같은 것을 머리에 단 사람들이 치마를 입고 서로 손잡고 있는 모습은 발해의 춤으로 기록된 ‘답추(踏鏈)’와 유사해 화제가 됐다. 답추는 실제 사람들이 손잡고 같이 추는 춤을 말한다. 어떤 사람은 발을 오른쪽으로 향하고 어떤 사람은 앞쪽을 향하고 있는 등 춤추는 사람들의 발모양이 약간씩 다른 것도 특징인데, 부경대 강인욱 교수는 동글게 원을 그리고 있는 것을 묘사한 듯하다고 말하였다. 이것은 한국의 강강술래 같은 집단무를 형상화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답추(踏鏈)와 답가(踏歌)는 땅의 신에게 노래와 춤으로 풍요를 기원하던 생명력이 가장 길고, 오랫동안 전승된 종합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발해인은 노래 잘하고 춤추기 좋아하는 민족으로 답추는 ‘능가선무(能歌善舞)’의 전통을 계승한 것이라 할 수 있다.³⁰⁾ 발해인들은 춘절, 단오, 동지 등 다양한 명절행사를 했으며,³¹⁾ 당나라에 있던 인일, 상원, 한식, 청명, 칠석, 중원, 중추, 중앙, 제석 등 대체로 있었다는 견해도 있다. 이처럼 중요한 명절이나 군왕, 부처님 탄신일 등 여러 가지 경축 행사를 했으며 미신점복, 예언, 풍수 등의 풍속도 있었다고 한다.³²⁾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돈돌라리’춤은 원무곡인 ‘답추무’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³³⁾ 북청지방 ‘달래춤’에서 유래되었다는 견해도 있다.

돈돌라리는 ‘달래춤’에서 유래된 노래라고도 전해온다. 음력 3월 한식무렵이면 여인들이 남대천 기슭 모래밭에서 달래를 캐다가 노래를 부르며 바구니를 들고 춤을 추었는데 그것이 돈돌라리로 발전하였다고 한다. 노래와 춤은 당대시대의 생활의 반영이기 때문에 세월의 흐름과 사람들의 생활환경에 따라 변화하기 마련이므로 1930년대부터는 반일집회를 하다가 경찰이나 밀정놈이 온다는 신호가 오면 그것을 위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로 ‘돈돌라리’춤을 추었다.³⁴⁾

28) 劉秉果, 『中國古代體育史話』 文物出版社, 1987, 圖版

29) 장정룡, 「축제와 세시」 『한국축제의 이론과 현장』 월인, 2000

30) 張碧波, 『說渤海의踏歌』 『東北民族與疆域論稿』(下), 黑龍江教育出版社, 2002, 241-245쪽

31) 楊保隆 編, 『渤海史入門』 青海人民出版社, 1988, 40쪽

32) 王承禮·劉振華, 『渤海的歷史與文化』 延邊人民出版社, 1991 “渤海人已有春节、冬至等年、节的观念, 届时举行朝会及庆祝活动。唐朝有人日、上元寒食、清明、七夕、中元、中秋、重阳、除夕等, 渤海也大体上存在这些季节性节日。遇到重大活动及国王、佛祖诞辰等等, 也有不同形式的庆祝和纪念。同时, 也存在着迷信占卜、预言和看风水的习俗”

33) 장정룡, 「발해전설과 풍속연구」 『국제아시아민속학』 제4집, 국제아시아민속학회, 2013, 99쪽

34) 최창호, 「단청아리랑과 북청의 돈돌라리」 『금수강산』 3호(누계 제20호) 1991, 53쪽

35) 서영화·최준 수집정리, 『민요곡집』 료녕인민출판사, 1982, 535쪽

북청지방의 민요인 돈돌라리, 흘라리 등은 그 정서가 낙천적이며 그 음악도 아주 명랑하고 평이한데서 남녀노소 누구든지 부를 수 있는 인민성이 풍부한 노래들이다. 이 노래가 속후 모래산 야외 군중오락에서 나타난 것은 50~60년대 전부터라고 말한다. 북청지방에는 한식다음날을 ‘달래날’이라하여 마을처녀들이 야외에서 노래하며 춤을 추며 즐겨노는 풍습이 전하여 내려오고 있었다. 이런 때에 불리우는 노래 가운데의 하나가 ‘돈돌라리’이다. 그런데 이 ‘돈돌라리’라는 노래의 명칭이 일반민요와 다르다. 사실 이 지방 노래들은 많은 노래들이 이와 같이 색다른 명칭으로 불리운다. ‘라이라렛뚜리’가 그렇고 ‘라이쓰’가 그런 것이다. 이 지방 인민들의 말에 의한다면 ‘돈돌라리’는 일제가 멸망하고 ‘동틀날’ 즉 해방의 날이 다가온다는 의미로 이해되고 있으며, 혹은 ‘돈돈나리’(豚豚나리) ‘돼지서방’이라는 이름으로 검은 정복을 입은 일본순사놈들을 야유하는 의미로도 이해되었다. 이런 데서 일제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을 고무함에 있어서 역시 이 노래들이 크게 작용하였던 것이다.³⁵⁾

돈돌라리는 우리나라 조선동해안 지방의 특색을 가장 뚜렷이 나타내고 있는 노래의 하나로서 지난날의 함경남도 북청군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서 명절이나 어떠한 모임이 있을 때마다 여러 사람들이 큰 원을 짓고 돌아가면서 춤을 추면서 군중적으로 불려오던 민요이다. 노래 원문은 다음과 같다. ‘보배산천에 돈돌라리오, 돈돌라리 돈돌라리 돈돌라리오, 리라 리라리 돈돌라리오/시내강변에 돈돌라리오, 돈돌라리 돈돌라리 돈돌라리오 리라 리라리 돈돌라리오/모래산천에 돈돌라리오 돈돌라리 돈돌라리 돈돌라리오, 리라 리라리 돈돌라리오’ 노래에는 ‘보배산천’ 시내강변, 모래산천과 같은 자연표현들과 결합되면서 ‘돈돌라리’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어 나온다. 그러면 조흥구의 기본을 이루며 노래의 제목으로도 되는 이 ‘돈돌라리’란 말은 어떻게 생겨난 것이고 그 뜻은 무엇이겠는가. 지난날 이 지방에는 해마다 이른 봄이 오면 여인들이 모래밭이나 강변에 나와 달래를 캔 다음 즐겁게 춤추며 노는 달래터놀이라는 것이 있었다. 이때마다 노래를 부르며 달래춤을 추었는데 그 노래에 ‘돈돌라리’란 말이 정착되어 불리워지게 되었다고 한다. 여기에서 ‘돈돌라리’란 말은 ‘동틀날’이란 말이 변화된 것이며, ‘돈돌라리 돈돌라리 돈돌라리오’는 ‘동틀날 동틀날 동틀날이 온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한다. 따라서 그 내용은 밝은 날, 광명의 날이 다가온다는 뜻을 상징한다고 한다. 한편 ‘돈돌’은 계속 따라서 ‘돌자’는 뜻의 말이고, ‘라리’는 순수한 조흥구라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노래는 내용에 있어서 조국의 자연과 산천을 지극히 정다운 심정으로 자랑하고 있으며 곡조가 부르기 쉽고 선명하며 낙천적인 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 노래로 하여 우리나라의 북청지방은 돈돌라리의 고향으로 널리 알려졌다. 여러 기회들에 이 지방의 여성들은 강가나 경치 아름다운 산기슭에 모여 ‘돈돌라리’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즐기었다. ‘돈돌라리’는 봉건기에는 봉건적인 착취와 속박을 반대하고 조국산천을 사랑하는 심정을, 일제식민지 통치시기에는 일제를 반대하며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한 송고한 감정을 자아내었다.³⁶⁾

이처럼 ‘돈돌라리’는 본래 ‘돌고돌다’의 회전을 의미하는 ‘돌돌’이 ‘돈돌’로 변하고 ‘라리’는 ‘미나리’나

36) 김인호, 『어원유래상식』 2, 사회과학출판사, 2009, 237~238쪽

37) 김정훈, 『중국 조선족 민속춤과 민속놀이』 북경민족출판사, 2010, 103~106쪽

‘아라리’를 칭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돌돌미나리’ ‘돌돌아라리’가 음운축약으로 줄어서 ‘돈돌라리’가 된 것이 아닐까 의심된다. 돈돌라리춤은 우리 민족 고유의 답추무와 같이 발해춤의 ‘회선완전(回旋宛轉)’과 마한의 춤인 ‘구기상수(俱起相隨)’ ‘수족상응(手足相應)’ ‘답지저양(踏地低昂)’과 같은 방식의 춤사위에서 유래했다고 하겠다. 현재 중국 조선족들이 추는 돈돌라리 춤사위는 모두 11가지다. 즉 범벅동작, 밀고당기기동작, 활개뛰기동작, 여미기동작, 손벽치기동작, 채질동작, 방아짚기동작, 취엮기동작, 팔굽받쳐들기동작, 어깨짚기동작, 뽀뽀기동작 등으로 구성된다.³⁷⁾

4. 돈돌라리의 변이와 속초지역 정착과정

돈돌라리는 속초 뿐 아니라 북한과 중국 조선족들 속에서 재형상되어 무용춤과 함께 불리고 있다. 이는 본래 함경남도에서 시작되었지만, 한국전쟁이후 월남한 북한의 함경도 주민들이 속초에 정착하면서 자연스럽게 동해안 지역의 특색을 뚜렷하게 지닌 이주민요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 노래가 언제 어떻게 창작되었는가 하는 것은 아직 고증된 자료가 없다. 북청지방의 ‘달래춤’에서 유래되었다면 그 가원의 역사가 깊을 것이다. 그러나 이 노래가 1920년대에 창작된 신민요라는 설도 있다. 신민요는 민족음악에 바탕을 두고 현대적 미감이 나게 새롭게 창작한 민요를 이르는 말이다. ‘노들강변’을 비롯하여 ‘울산타령’ ‘조선팔경가’ ‘처녀총각’ ‘물결따라(별한)’ 등 1920년대와 1930년대에 창작된 신민요들은 담고 있는 내용이 명백하고 선율조성에서 세련미가 있고 현대적 미감에도 맞는 것이 일반적 특성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지어는 1900년에 창작된 계몽기민요인 ‘이팔청춘가’도 주제가 명백하다. 그러나 ‘돈돌라리’는 그렇지 못하다. 바로 이러한 점들을 고찰해볼 때 1920년대에 창작된 신민요라기보다는 오래 전부터 전해오는 이 지대의 ‘달래춤’에서 유래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아무튼 ‘돈돌라리’는 북청지방의 민요이며 오늘에 와서도 예술적 생명력을 잃지 않고 날을 따라 사람들속에서 더욱 널리 애창되고 있는 가락의 하나이다. 전후 에 이 노래는 가사가 개작되어 전국적으로 널리 불리워졌으며 이 가락에 안배된 무용도 전국적으로 파급되었다.³⁸⁾

돈돌라리춤은 대중적이고 평이하여 누구든지 북장단과 노래에 맞추어 춤판에 뛰어들어 마음대로 춤출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보급된 오랜 과정을 통하여 놀이 구성에는 일정한 격식이 이루어졌다. 흰 모래밭의 춤판을 둘러싸고 큰 둥그러미를 지어 군중이 둘러앉으면 그 중 여러 사람이 춤판 한 복판에 뛰어 들어간다. 이것을 계기로 모여 앉은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며 손뼉을 치면서 흥을 돋운다. 때에 따라서는 미리 준비하였던 피리, 통소 등 풍악반주가 거기에 따르기도 한다. 이리하여 놀이판의 분위기가 고조되면 한복판에 나간 사람은 군중들의 손뼉장단, 북장단, 노래에 맞추어 명랑하고 경쾌한 돈돌라리춤을 춘다. 그러면 둘러앉았던 군중들 중에서 한 두 사람씩 연달아 춤판에 뛰어 들어가 본격적인 군중가무가 벌어진다. 처음에 군중들은 제각기 흥이 나는대로 춤을 추다가 점차 대열을 지어가면서 둥그렇게 원을 짓는다. 춤 대열은 몇 겹으로도 될 수 있는데 그 중심에는 한 명의 먼저 춤추는 사람이 나타난다. 돈돌라리 춤가락은 우리나라 민간무용 가운데서도 고유한 특색을 가지고 있다. 우선 이 춤은 우리나라 민족무용 동작의 특징의 하나인 날씬하고 우아한 춤사위와 대조되는 활발하고 움직임이 잦고 절도가 명료한 낙천적이고 경쾌한 성격을 가졌다. 이러한 춤 성

격은 인민들의 아름답고 명량한 품성과 순박성을 반영한 것이다. 춤사위에서는 여러 가지 동작들이 바뀌어 지면서 변화를 나타낸다. 그런데 여기서는 다른 춤들에서 흔히 두 팔을 옆으로 벌리는 움직임보다 팔을 옆으로 들고 움직이는 동작과 머리를 숙인 채 좌우로 살랑살랑 흔들면서 춤추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돈돌라리춤에서 특색있는 또 하나는 손을 움직이는 동작이다. 손목을 돌리면서 잔가락을 쓰는 것이 이 춤가락의 고유한 특징의 하나이다. 또한 다리 동작에서도 뒤로 살짝살짝 들면서 춤추는 것은 돈돌라리춤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다.³⁹⁾

‘돈돌라리’의 속초정착은 1950년대 전파된 원형질의 지속화이며, 문화적 융합성을 함께 지닌다. 돈돌라리는 현재 함경남도 지방무형문화재 1호로 지정되었으며, 지난 제40회 한국민속예술축제(1999년 9월 15~17일, 제주도)에 이어, 속초에서 개최된 제17회 강원민속예술축제(1999년 10월 9~10일)에서도 특별공연을 가졌다. 6.25를 겪은 속초 실향민들에게 고향의 전통민속의 부활이라는 수확과 함께 망향의 한을 달래고 통일정서 형성에 크게 이바지 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함경남도 북청군이 원산지로 알려지고 있는 ‘돈돌날이’의 ‘돈돌’은 회전(回轉)으로 제 구비로 돌아온다는 뜻인데 가난에서 풍요, 억압에서 해방으로 그리하여 일제 강점기에 반일사상 민요로 지목되어 금지당한 역사를 가지기도 하였다. 이 돈돌날이가 해방후 함경도 전 지역일 정도로 집단적 가무놀이(북한의 정책적 개작이었지만)로 성대하였으나 6.25사변으로 하나의 망향으로 그리는 추억의 민속놀이였을 뿐이었다. 이 사장된 민속동요 돈돌날이를 함남북청민속예술보존회가 10여년 전부터 되살리기를 시작, 정부로부터 98년 함경남도 지방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받아 오늘에 전국각지에 순회하면서 북한민속 보급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돈돌날이 춤은 누구든지 바가지장단 또는 북장단과 노래에 맞추어 춤판에 뛰어들어 마음대로 춤출 수 있는 간단한 것이었다. 그러나 오랜 전승과정을 통하여 놀이구성에는 일정한 형식이 갖추어졌다. 흰 모래판의 춤판을 둘러싸고 큰 원형을 이루면서 둘러앉으면 그 중 몇 사람이 한 북판으로 들어가면서 춤을 춘다. 이때 모여 앉은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고 손뼉을 치면서 흥을 돋운다. 경우에 따라서는 미리 준비하였던 통소들의 풍악반주가 뒤따르기도 한다. 이리하여 놀이판의 분위기가 고조되면 한 북판에 나간 사람들은 군중들의 손뼉장단, 바가지장단, 북과 징 장단 노래에 맞추어 명량하고 경쾌한 돈돌날이 춤을 춘다. 그러면 모여 앉았던 사람들이 춤판에 뛰어 들어가 본격적인 군무가 벌어진다. 처음에는 제각기 춤을 추다가 점차 대열을 지어가면서 원형을 이룬다. 그 중심에는 무동, 곱추, 유걸이 등이 나타나서 연희한다. 돈돌날이 춤가락은 우리나라 민간무용 가운데서도 고요한 특색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민속춤의 특징인 날씬하고 우아한 춤사위와 대조되는 활발하고 움직임이 잦고 절도가 명료한 낙천적이고 경쾌한 성격을 지녔다. 북청춤의 특징을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머리를 약간 숙인 채 좌우로 살랑살랑 흔들면서 춤을 춘다 2) 팔을 옆으로 들고 움직이는 동작과 손목을 돌리면서 잔가락을 쓰면서 춤을 춘다 3) 발꿈치를 살짝살짝 뒤를 들면서 춤추는 다리동작, 돈돌날이는 그 춤과 어울리는 특색있는 곡조를 갖고 있다. 이 곡조는 열 가지 변형을 갖고 있으나 총체적으로 하나의 공통된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돈돌날이’ 군가요라는 명칭으로 부를 수 있을 정도

38) 최창호, 『북청의 돈돌라리와 흘라리』 『민요따라 삼천리』 평양출판사, 1995, 44쪽

39) 문하연, 『돈돌라리와 달래춤』 『조선의 민속놀이』 군중문화출판사, 1964, 29쪽

로 통일된 모습을 보인다. 모든 가락이 단순하고 소박하면서 밝은 성격을 띠고 있다.⁴⁰⁾

함경남도 북청민속예술보존회에서는 과거의 전통을 따라서 원형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음에 반하여, 현재 북한에서는 원형상의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고 판단된다. 즉 마당에서 행하던 율무 형식의 놀이가 3마당 4인무의 무대예술 작품으로 옮겨지면서 표현양식상 많은 변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한 정황은 다음의 글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우리나라 동서해안지방의 대표적인 민속무용으로 널리 알려진 ‘돈돌라리’와 ‘용강기나리’도 있다. 민속무용 ‘돈돌라리’는 지난 시기 함경남도 북청지방의 여성들 속에서 해마다 4월에 달래를 캐면서 추던 율무형식의 춤으로서 ‘동틀날이 오리라’라는 말이 줄어들면서 붙은 것이라고 한다. 특히 일제식민지통치의 그 암담한 속에서도 이 고장 사람들은 희망을 잃지 않고 기어오르고야말 조국해방의 ‘동틀 날’을 그리며 돈돌라리춤을 추어왔다....(1975년 12월) 원래 ‘돈돌라리’춤은 손동작을 맞추어 추는 특색이 있는 춤인데 원래의 곡은 다 없애고 현대화된 곡에다 손동작을 맞추어 놓으니 흥취가 나지 않는다고 일깨워주시었다. 그러시면서 ‘돈돌라리’를 하자면 민속무용대로 해야지 원래의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현대화하면 누구도 그것을 보고 ‘돈돌라리’라고 하지 않는다고 가르쳐주시었다. ...이끼에서는 먼저 그전에 만든 ‘돈돌라리’에서는 손을 들었다 내리며 어깨를 가지고 재간을 부리는 것이 있었는데 오늘 출연한 무용에는 그런 것이 없고 손을 머리위에서 놀리는 것이 너무 많다고 지적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음악을 지금대로 고착시키고 춤동작만 ‘돈돌라리’ 춤가락들을 살려 완성한데 대한 구체적인 방도까지 일일이 가르쳐주시었다. ...그후 시대적 요구와 지향에 맞게 민속무용의 본보기 작품으로 훌륭히 완성되어 주체예술의 화원 속에서 아름다운 꽃으로 다시 피어나게 되었다.⁴¹⁾

민요 ‘돈돌라리’는 원래 노래만으로도 불리웠지만 여럿이 ‘돈돌라리춤’을 추면서 군중적으로도 많이 불리웠다. 고유한 덩덕궁장단을 타고 흐르는 민요 ‘돈돌라리’의 선율은 순차적인 2도진행과 3도진행으로 일관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민요의 선율은 강약이 명료한 것으로 하여 절도가 있으면서도 흥겹고 활달하며 낙천적이다. 선율이 가지고 있는 이런 특성은 어깨춤을 자아내면서 사람들에게 독특한 율동감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부르기도 험하다. ...이러한 것들은 민요 돈돌라리가 무용곡으로서의 성격도 다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래만으로도 불리웠지만 민요 돈돌라리는 민속무용 ‘돈돌라리춤’과 함께 이 지방에서는 물론 신포, 신창, 광천, 흥원, 이원 일대와 양강도 풍산, 갑산 등 북부내륙지방의 일부 지역에까지 퍼져갔다. 그러나 지방적인 특색이 진한 것으로 하여 더 넓은 지역에 퍼지지는 못하였다. 민요 돈돌라리의 본래가사에는 ‘리라리라리’와 같이 별로 뜻이 없는 어구가 반복되는가 하면 ‘보배산천’과 같이 우리나라의 자연경치를 노래하는 뜻이 명백한 어구도 섞여 있다. 곡조는 누구나 쉽게 부를 수 있도록 유순하며 먹이는 소리와 받느리의 구분이 없다. 그리고 노래의 마지막을 조식의 5음으로 끝내고 있다. 이것은 노래가 춤과 함께 몇 번이고 반복하여 불리운 사정과 관련된 것이다. 북청지방에는 이 곡조와 춤에서 파생된 ‘홀라리’ ‘라리라렛뚜리’ ‘쏘쏘라이쏘’ 등 수많은 민요들이 애창되어왔다. 이민요들도 모두 무곡적 성격을 매우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오늘날 민요 돈돌라리는 민족음악유산을 적극 발굴하여 우리시대에 맞게 발전시키는 방침에 따라 발굴 정리되어 군중무용곡으로, 4인무 ‘돈돌라리’의 반주음악으로 편곡되어 무대에 옮겨졌다.⁴²⁾

‘돈돌라리’는 지난날 함경도 지방에서 많이 추던 민속무용 ‘돈돌라리’를 재형상한 현대적 미감에 맞으면

서도 지방적 색채가 매우 짙은 무대예술작품이다. 작품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부분은 잣은모리장단으로 경쾌하고 발랄하게 울리는 음악을 타고 4명의 여성무용수가 무대로 1렬 횡대를 지어 스쳐 달려 나와 손목돌리기를 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된다. 계속하여 무용수들은 손목밀기로 무대의 사선방향으로 서고 다시 손목흔들기로 무대 뒤쪽에 한줄로 섰다가 무대앞쪽으로 달려 나와 밀집대형으로 앉는다. 이때 오른손을 머리에 얹은 가짐으로 하여 여성들의 아릿다운 자세를 보여준다. 둘째부분은 돈돌라리춤의 원가락을 살려 느린 춤을 추는 장면이다. 가볍게 굴신하며 손목돌리기로 넓어지면서 자리를 잡은 무용수들은 한발깊이 굴신하며 걷기, 어깨 툭기며 손목돌리기, 두팔 겹사위로 돌리며 손목돌리기 등 돈돌라리 원가락을 살려 춤을 춘다. 셋째부분은 잣은모리장단에 맞추어 추는 빠른 춤장면이다. 독무와 안쌘불이 잘 배합되고 다양한 구도로 전개되는 이 부분 춤장면은 활달하고 경쾌한 돈돌라리 춤의 본색을 잘 드러내고 있다. 무용수들이 무대앞쪽에 1렬횡대로 서서 몸통돌리기와 손목돌리기로써 춤의 절정을 장식하다가 제자리에서 앉아 모양을 잡는 것으로 춤은 끝난다. 재형상한 민속무용 돈돌라리는 돈돌라리 음악에 맞추어 양푼에 얹어놓은 바가지를 두드리면서 추던 본래의 춤가락을 잘 살려낸 4인무의 무대예술작품으로서 지방적 색채가 짙고 율동기교도 매우 높다. 지난날 윤행무형식으로 많이 추어오던 돈돌라리는 오늘도 군중무용으로 재형상되어 명절날이나 기념일 때 널리 추어지고 있다.⁴³⁾

이상에서 엿볼 수 있듯이 바가지를 두드리면서 춤추던 윤행무형식의 ‘돈돌라리’는 현재의 북한에서는 많이 변화되었다. 또한 중국 조선족의 ‘돈돌라리’도 무대화로 연출되면서 그 내용이 바뀌었다. 1930년부터 40년대 사이에 중국 길림성 안도현 내두산으로 이주한 조선족 가정의 많은 남성들은 처자와 가정을 두고 항일전쟁에 참가하거나 외지에 나가 돈벌이를 했다. 부녀들은 어려운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농사도 짓고 물레를 잣거나 뜨개를 뜨거나 잡일을 했다. 남편을 그리면서 애절한 마음으로 춤을 추면서 마음속 고충을 달래던 춤이 바로 ‘돈돌라리’라고 한다. 이곳의 돈돌라리춤은 북청지방에 비하여 동작이 깨끗하고 매끈하다고 한다. 춤사위는 시종일관 다리를 절룩거리는 것이 특징인데 이는 결혼을 하였지만 곁에 남편이 없어 노상 생과부 생활을 하는 자신들의 불안한 생활을 뜻하는 것이라 말한다.⁴⁴⁾

40) 조하림, 「돈돌날이」 『속초문화』 15호, 속초문화원, 1999, 98~99쪽

41) 박승길, 『유구한 민속전통, 그 갈피마다에』 평양출판사, 2013, 235~237쪽

42) 엄하진, 『조선민요의 유래』 예술교육출판사, 1992, 41쪽

43) 이순신·이금산, 『조선의 민속전통6 -민속음악과 무용』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95, 355쪽

44) 김정훈, 『중국 조선족 민속춤과 민속놀이』 민족출판사, 2010, 101~106쪽

현재 속초지역에서는 문화원의 활동 가운데 함경도 신향민의 민속인 북청사자놀음과 돈돌라리의 전승의 돋보인다. 함경도 출신 뿐 아니라 속초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윤무형식의 원형에 입각한 돈돌라리 강습회를 여는 등, 민속놀이와 민요전승에 노력하고 있다. 이것은 1990년대 이후 북한의 돈돌라리 춤 노래가 4인무의 무대예술작품으로 재형상된 것과 달리 1950년 이전의 원형을 계승하려는 뜻이 담겨있다고 하겠다. 한국전쟁이후 속초에 정착한 함경도민들은 민요 돈돌라리는 애원성과 함께 속초에서 옛 전통방식으로 역사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북청사자놀음의 활발한 지역전승에 힘입어 차츰 그 전승의 폭을 넓히고 있다. 따라서 돈돌라리의 원형전승지역에서 속초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올바른 민속원형 전승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5. 맺음말

‘돈돌라리’는 노래와 춤이 합쳐진 함경남도 지역의 가무곡으로 1950년대 이후 속초의 이주민으로 자리를 잡았다. 속초지역 함경도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돈돌라리’는 ‘북청사자놀음’과 함께 분단의 문화유산이자 이식문화의 창조적 전통문화로 전승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지역에서는 군중무용으로 재형상되고 교시(敎示) 민속으로 개편되었다. 위에서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돈돌라리의 어원은 첫째로 ‘동틀날’ 즉 조국광복의 여명이 밝아온다는 뜻에서 “동틀날이 오리라”를 줄여서 ‘돈돌날이’ ‘돈돌라리’라고 불렀다. 둘째는 ‘돌고돌다’의 회전을 의미하는 ‘돌다’의 ‘돌’이 겹쳐 강조한 ‘돌돌’이 ‘돈돌’로 변하고 ‘라리’는 ‘미나리’ 민요로 볼 수 있다. 셋째는 ‘돈돈(豚豚)나리’ 즉 ‘돼지서방’이라는 이름으로 검은 정복을 입은 일본 순사를 야유하는 뜻에서 나온 것이다.

다음으로 돈돌라리의 음악무용적 특징을 보면, 옛 발해시대에 추었던 답추를 계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것은 노래를 부르며 춤추는 원무곡으로서 서로 팔을 이어서 끼고 수십 명이 서로 따르면서 땅을 발로 차면서 장단을 맞추는 답지위절(踏地爲節)과 같은 것이다. 답추는 땅을 발로 차면서 장단을 맞추는 ‘답지위절’로서 답지의 답(蹠)은 ‘밟다’는 뜻과 ‘차다’는 뜻을 다 가지고 있듯이 곧 추격지(鎚擊地)와 같은 것이며 전투무도의 형태로도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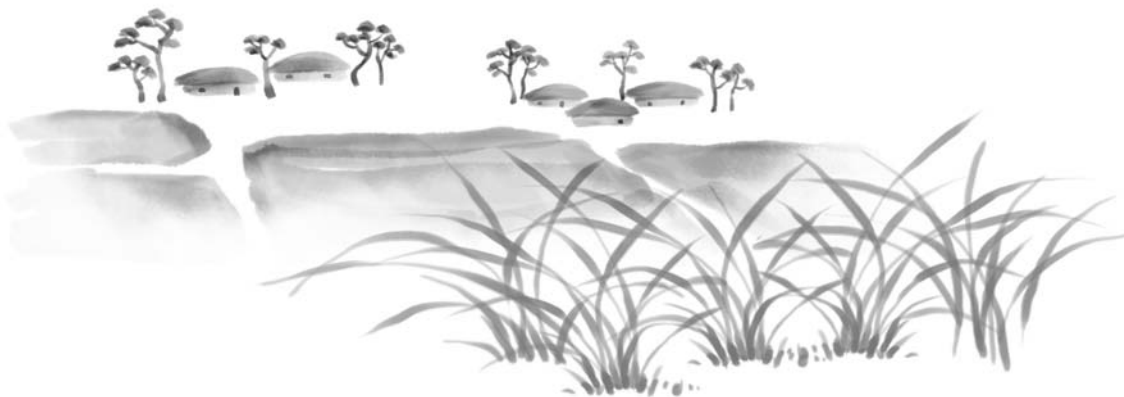
다음은 북청지방의 여성들이 매년 4월에 달래를 캐면서 추던 율무형식의 달래춤에서 유래된 것으로도 전한다. 무용적 특징은 활발하고 움직임이 잦으며, 절도가 명료한 낙천적, 경쾌한 성격을 지닌다. 팔을 옆으로 들고 움직이는 동작, 머리를 숙인 채 좌우로 살랑살랑 흔들면서 춤추는 동작, 손목을 돌리면서 잔가락을 쓰는 동작, 다리를 뒤로 살짝살짝 들면서 춤추는 동작은 돈돌라리춤에서만 볼 수 있다.

음악적으로 고유한 덩덕궁장단에 선율은 순차적인 2도진행과 3도진행으로 일관되어있다. 뿐만 아니라 선율은 강약이 명료하며, 절도가 있으면서도 흥겹고 활달하며 낙천적이다. 선율이 가지고 있는 이런 특성은 어깨춤을 자아내면서 사람들에게 독특한 울동감을 안겨주며 부르기도 쉽다. 곡조는 유순하고 맥이는 소리와 받는소리의 구분이 없으며 마지막을 조식의 5음으로 끝내는데 이것은 노래가 춤과 함께 반복하여 불리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속초에서 전승되는 ‘돈돌라리’는 함경도 출신의 고증에 따라서 1950년대 이전의 율무와 가락, 가사를 그대로 전수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원형이 보존된 곳이라 할 수 있다. 북한지역과 중국 조선족들에 의해 전승되는 춤의 형태는 4인무의 춤으로 무대화 되면서 개편되었고, 가사도 북한은 사상적인 것을 고취하고 있으며, 중국조선족은 현실적 생활상을 반영하였다. 따라서 돈돌라리는 북청사자놀음과 함께 속초에서 그 원형을 지키고 있으며, 문화예술사적 측면에서도 분단민속의 이주정착이라는 특수한 가치를 지닌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문하연, 조선의 민속놀이, 군중문화출판사, 1964, 28~32쪽
- 북청군지, 북청군지편찬위원회, 1970
- 문학예술사전, 사회과학원문학연구소, 1972
- 김태갑, 민요집성, 연변인민출판사, 1981
- 중국음악가협회 연변분회 편, 민요곡집, 연변인민출판사, 1982
- 연변문학예술연구소 편, 조선족민요곡집, 1982
- 서영화·최준 수집정리, 민요곡집, 료녕인민출판사, 1981
- 박병화, 천리마, 제10호, 1990
- 최창호, 금수강산 3호(누계 제20호) 1991
- 엄하진, 조선민요의 유래, 예술교육출판사, 1992
- 장정룡, 속초의 향토민속, 속초문화원, 1992
- 최창호, 민요따라 삼천리, 평양출판사, 1995
- 이순신·이금산, 조선의 민속전통 6 -민속음악과 무용,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95
- 최창호, 민속을 통해보는 시와 노래, 평양출판사, 1996
- 장정룡·김무림, 속초청호동의 민속과 언어, 속초문화원, 1998
- 김귀옥, 월남민의 생활경험과 정체성,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 장정룡 외, 속초지역 피난민정착사, 속초문화원, 2000
- 이우영, 북한문화의 수용실태조사, 통일연구원, 2001
- 이동원, 조선민요의 세계(하), 평양출판사, 2002
- 장정룡, 강원도 거주실향민생애사조사연구, 강원발전연구원, 2005
- 장정룡, 속초지역 실향민구술조사보고서, 속초시립박물관, 2007
- 장정룡 외, 강원지역 이북도민정착사, 속초시립박물관, 2009
- 김인호, 어원유래상식(2), 사회과학출판사, 2009
- 김정훈, 중국 조선족 민속춤과 민속놀이, 북경민족출판사, 2010
- 김범주, 우리말 어휘의 뜻과 유래, 금성청년출판사, 2010
- 박승길, 유구한 민속전통 그 갈피마다에, 평양출판사, 2013
- 장정룡 편, 국제아시아민속학 제4집, 국제아시아민속학회, 2013
- 강원도 민속예술의 현황과 진단, 2104강원국제민속예술축전민속학술대회, 강원도·국립민속박물관, 2014



속초 무형문화의 유형고찰

양 언 석(강원도립대)



I. 緒論

II. 속초민속예술의 현황

III. 민속예술 진단

1. 평야와 관련된 무형문화
 - 1) 도문 메나리 농요와 연희
 - 2) 도리원 농악
2. 호수와 관계된 무형문화
 - 1) 만천동 나룻배 싸움놀이
3. 바다와 관련된 무형문화
 - 1) 든대질 놀이
 - 2) 대포동 뱃소리
 - 3) 물치 용왕굿 용떡놀이
4. 실향민과 관계된 무형문화
 - 1) 속초북청사자놀이
5. 산악과 관련된 무형문화
 - 1) 신흥사 범패
 - 2) 설악산신맞이 놀이굿

IV. 結論

I. 緒論

선사시대부터 지금까지 오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속초는 천혜의 자연을 간직한 축복받은 땅이자, 다양한 민속놀이가 이어져 온 전통을 간직한 고을이다. 연암 박지원이 양양부사를 지내고 돌아가 경관 녹봉록을 이야기 할 정도로 아름다운 風光인 설악산과 동해바다, 그리고 호수가 함께 공존하여 어느 지역에서도 볼 수 없는 다양하고 개성적인 삶의 모습이 남아 있다.

고대사회부터 파종기와 수확기에 신에게 제사 지내는 연희의 행위도 흥미롭고, 바다를 통해 자연에 대한 경외심과 그로 인한 다양한 신앙과 놀이가 전해져 왔다. 그리고 자연의 풍요와 함께 거칠고 위협적인 체험을 통해 고유한 삶의 방식과 전통적인 문화를 형성하여 왔다. 이 같은 전통은 다양한 놀이를 파생시켰고 그 속에서 삶의 지혜가 면면히 이어져 왔다.

또한, 이증환의 『擇里誌』의하면 이 지역 주민들은 술과 고기를 가지고 자주 놀러 다니기를 좋아하였고 노인들은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기악과 술과 고기를 가지고 산이나 물가에서 마음껏 놀았다는 기록을 남길 정도로, 예술성과 문화적 삶이 일상생활 속에 남아 있었다.

속초시는 시민의 삶에 녹아 있는 전통의 모습을 수집하고 고증하여 오늘에 잇고자 노력하고 있다. 본고는 그 중 강원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한 작품을 중심으로 무형문화의 유형별 특징을 재조명하고 발전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속초민속예술의 현황

속초시의 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 및 전국대회출전 작품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1980년대

1983년	1회	고풀이	민속무용,	출연인원 30명
1984년	2회	만천동 나룻배싸움	민속놀이	출연인원 60명
1985년	3회	속초 산대놀이	민요	출연인원 50명 종합우수상
1986년	4회	속초 뱃소리	민요	출연인원 30명
1987년	5회	속초 든대질놀이	민속놀이	출연인원 37명
1988년	6회	속초 끝후릿소리	민요	출연인원 43명
1989년	7회	속초 배다리수살굿	민속놀이	출연인원 40명

1983년부터 1989년까지 강원민속예술축전에 참가한 속초시 작품을 살펴보면 어촌 고유의 해양 민속 문화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속초시의 지정학적 특징에 의한 문화현상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속초시 해안에 자리 잡고 있는 마을은 영랑동, 동명동, 청호동, 대포동 등이 해당한다. 또한 속초시가 과거 속초읍으로 승격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속초항의 건립 이후 해양 민속공동체 문화가 1980년대까지 속초문화의 중심에 놓여 있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특히, 한국전쟁 이후 청호동 아바이마을에 정착한 실항민들이 주로 어업에 종사하며 속초의 해양문화는 기존의 해양문화와 함경도 해양문화가 공존하는 형태로 공동체 속에서 유지되었다. 이러한 독특한 속초 고유의 무형문화가 민속예술 경연대회에서 표출되었다.



2) 1990년대

1991년	9회	외옹치 군웅장군굿놀이	민속놀이	출연인원 45명
1992년	10회	물치 용왕굿용떡놀이	민속놀이	출연인원 55명
1993년	11회	설악산신 맞이놀이굿	민속무용	출연인원 50명
1994년	12회	신흥사 범패	민속놀이	출연인원 40명
		지도 : 김홍선, 고증: 조오현		
1995년	13회	배다리 수살굿	민속놀이	출연인원 70명
		지도 : 빈순애, 고증: 김종록		
1996년	14회	만천동나룻배춤놀이	민속놀이	출연인원 70명
		지도 : 장규호, 고증: 최용문		
1997년	15회	속초시 대포동뱃소리	민요	출연인원 40명
		지도 : 주동진, 고증: 최용문		
1998년	16회	속초 도리원농악	농악	출연인원 45명
		지도 : 주동진, 고증: 장정룡		
1999년	17회	든대질놀이	민속놀이	출연인원 37명
		지도 : 주동진, 고증: 최용문		

1990년대 속초문화의 특징은 예술단체의 조직에 의한 전문성 강화와 마을공동체의 약화이다. 속초는 도시구조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어자원의 고갈로 인해 어업인구가 축소되고 소비성 강한 관광도시로 변모하면서 공동체의 정신적 자산과 삶의 문화가 조금씩 약화되기 시작한다. 한편, 속초예총이 공식 출범하면서 산발적이고 자생적인 문화 활동이 기틀을 잡기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특히, 동우전문대 학생이 주축이 된 ‘영북민속문화연구회 갯마당’의 활동은 지역 민속문화의 고증 및 민속적 가치가 자리 잡을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다.

전문성의 강화는 80년대의 어로민속 위주의 고증에서 벗어나 사라져 가는 민속을 알리고 보존하기 위한 활동을 표현되었다. 1990년대 총 9회에 걸쳐 출전한 민속예술축전의 작품이 산악(설악 산신맞이놀이굿, 신흥사 범패), 농경(도리원농악)이 첨가된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 유일의 향토문화 단체인 ‘속초문화원’과 새로운 문화단체 ‘갯마당’의 노력에 의한 결과로서 민속문화 전승과 노력이 문화행정 전문단체의 경영과 문화예술단체의 선구적 노력에 의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이다. 하지만 마을 단위의 공동체문화라는 측면에서 다소 아쉬움을 보여준다. 또한, 주민의 자발성에 의한 보존회 설립 등의 절차가 생략되어 지속 가능한 민속문화를 형성하지 못했다.

3) 2000년대~현재

2000년	18회	물치 용왕굿용떡놀이	민속놀이	출연인원 55명
		지도: 주동진, 고증: 최용문		
2001년	19회	도리원농악	농악	출연인원 50명
		지도: 엄상원, 고증: 양언석		
2003년	20회	도문 메나리농요	농요	출연인원 54명
		지도: 이한길, 고증 : 김남형 * 종합우수상, 문광부장관상		
2004년	21회	속초 도리원농악	농악	출연인원 50명
		지도: 주동진, 고증: 엄상원		
2007년	22회	속초 도리원농악	농악	출연인원 56명
		지도: 한정규, 고증: 엄상원		
2008년	23회	도리원 농악	농악	출연인원 51명
		지도: 한정규, 고증: 엄상원		
2011년	24회	속초 북청사자놀이	민속놀이	출연인원 57명
		지도: 김인섭, 고증: 김철섭		
2013년	25회	속초 북청사자놀이	민속놀이	출연인원 50명
		지도: 김인섭, 고증: 김철섭		

2000년대 속초 민속문화는 가장 큰 쾌거를 얻게 된다. 설악산 기슭에서 오랜 시간 마을공동체를 이룬 상도문 마을의 ‘도문메나리 농요’가 강원도 대회에서 종합우수상, 전국대회에서 문광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도문메나리 농요는 2007년 속초도문농요로 강원도무형문화재 20호로 지정받았다. 속초도문농요는 속초문화원의 문화행정과 상도문 마을공동체, 속초시립풍물단, 영북민속문화연구회 갯마당의 협업으로 현재까지 속초의 대표적인 무형문화로 전승되고 있다.

속초도문농요 이후 속초의 민속문화는 ‘속초도리원농악’(농경), ‘속초북청사자놀이’(실향민)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2000년대 이전까지 공동체 문화로 전승되어온 민속이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해양민속이 재창조되지 못함을 뜻한다. 속초도리원농악은 단순히 지역에 머무른 농악이 아니라 속초를 대표한다는 의미에서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다. 속초북청사자놀음은 속초의 관광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는 갯배와 아바이마을을 대표하는 실향민 문화의 산물로서 차별화된 지역문화를 대변한다는 뜻에서 전승되고 있다.

1) 이한길, <도문 메나리 농요의 전승과 특징>, <<속초의 민속예술의 계승과 발전>>(속초문화원, 2003),

속초는 2000년대 이후 문화콘텐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광과 결부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예술성도 인정받고 있다. 특히, 속초북청사자놀음은 그 희소성과 문화의 차별성을 바탕으로 지역의 대표 문화예술 공연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상의 민속예술경연대회 출연 작품의 문제점은 첫째 철저한 고증과 지역문화단체의 연구인력 부족으로 심도 있는 연출이 어렵고, 참가 인원의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비교적 많은 작품이 발굴되어 경연에 참가한 작품들이 전승되지 못하고 사라져 가는 현실에서 보존·전승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민속예술 진흥 조례 제정을 통해 민속경연대회 참가작품에 대한 보존전승학교의 지정이 필요하다. 전승보존을 통해 민속예술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고 시민의 전통문화인식 제고와 축제와 행사 시 활용하는 방안도 활용하여야 한다.



Ⅲ. 민속예술 진단

1. 평야와 관련된 무형문화

우리는 농경민족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된 마을과 평야는 중요한 생산수단이었고 삶의 터전이였다. 선조들의 농경생활을 하면서 지혜를 배우며 삶의 양식이 발전하였다. 농경민족의 특성은 인내심이다. 이 인내심은 농경생활에서 체득하였다. 서양의 유목민족들은 양떼를 몰고 집을 떠나야만 살 수 있었다. 그들은 집을 떠나는 이별을 해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별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지만 농경민족은 봄에 정성껏 씨를 뿌려 보살피면서 기다리다 가을에 거두어들이는 인내심이 강한 성격을 갖게 되면서 많은 신앙과 놀이 문화가 발달되었다.

봄에 파종하고 가을까지 기다리며 많은 자연재해를 접하면서 우리 선조들은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초자연적인 힘 앞에서 신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조상신을 숭배하기도 하고 천신이나 지신 등 다양한 신의 존재를 설정하여 숭배하며 자신들을 돌보아 줄 것이라는 신앙적인 상상을 하며 마을에 성황당을 짓고, 집집마다 수호신을 믿을 정도로 다양한 신이 존재했었고 그 존재의 일부가 연희와 함께 오늘날까지 전해져 오기도 한다.

그 중에 농경문화와 관계된 노동요는 풍부하고 다양하게 전해져 오고 있다. 노동요는 생산에 필요한 노동의 고됨과 지루함을 덜어주고 정신적 즐거움과 유대감을 주어,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불렀다.

1) 도문 메나리 농요와 연희

(1) 유래

도문의 메나리는 도문뜰에서 메나리 소리를 하면 양양 쪽에서도 그 소리를 받아 듣고 메나리 소리로 화답을 했다고 한다. 서로가 소리가 들릴 만큼 메나리 소리가 우렁찼었고, 당시 유행했었던 소리임을 알 수 있다.

모가 아직 어릴 때, 즉 아이짐(초벌 김)을 맬 때에는 메나리는 하지 않았다. 약한 벼가 무너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두 벌 김을 맬 때부터 메나리를 했다. 네 벌 김을 할 때도 있었지만 보통은 세 벌 김을 매니까 두 번 정도 김을 맬 때마다 메나리를 불렀다.

(2) 특색

메나리는 보통 여럿이 부르는데, 소리를 매기는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이 소리를 매기면 나머지 일꾼들은 따라서 메나리를 부른다. 도문메나리의 농요의 특성은 김을 맬 때 부르는 소리인데 다른 농요와 비교하면 정적이고 구성진 가락을 지니고 있다. 이 메나리 소리는 주로 오전에 부르는데 시조창법과도 유사하지만 그윽하면서도 우렁찬 맛은 인근 사찰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이한길 교수는 주장하고 있다.

도문 메나리 농요의 학술적 연구는 이한길 교수에 의해 체계화 되었다.¹⁾ 이한길 교수의 논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농요와 연희는 ①성황굿, ②논 삶는 소리, ③모심는 소리, ④김매는 소리, ⑤질 먹기, ⑥벼 베는 소리, ⑦황덕굿의 일곱 마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요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마당 : 성황굿

첫째 마당은 서낭굿으로 시작한다. 한해의 풍년을 빌기 위해서 정초가 되면 마을 사람들은 성황당에 모여 제사를 올린다. 이때 성황당에 모여 성황님께 ‘서낭서낭 서낭님 동네 밖의 서낭님...’이라는 서낭굿을 치는데, 이를 작품화 하여 신목과 서낭대를 농악대원들이 둥그렇게 원형을 그리며 감싼 후 절을 하는 것으로 표현하였다. 마을 주민들이 정성껏 인사를 드리면 성황님은 마을주민들의 정성을 가룩하게 받으시어 응감을 한다. 신목이 으스스 소리를 내며 떨리는 것으로 표현을 했다. 서낭굿이 끝나면 상쇠는 농악대를 이끌고 이동하여 다음 마당을 준비한다.

둘째 마당 : 논 삶는 소리

봄이 오면 농촌은 농사 준비로 분주해진다. 논도 삶아야하고 모도 준비해야 한다. 도문동은 농사철에 부른 농요가 풍부하게 전해진다. 이때부터 이 마을에서는 농사와 더불어 소리도 시작이 되었다.

논 삶는 소리는 흔히 소모는 소리로 알려져 있는데, 도문동에서는 주로 한스레로 농사를 지었다. 한스레는 소 두 마리가 끄는 스레인데, 보통은 일 잘 하는 소를 바른쪽에 세운다. 소 뒤에는 번지를 매달고 논을 간다. 혹 소 한 마리로, 즉 쪽스레로 논을 가는 경우도 있었다. 논을 갈 때 이때 다양한 소리가 전해진다. 대체로 유장한 가락에 느긋한 심성이 표현된 이 소리는 소를 다 몰고 끝이 날 때는 통칭 ‘~와’로 끝마무리를 한다. 논 삶는 소리는 가창자에 따라 또 소를 모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소리가 나올 수 있다.

소가 제 길을 잘 찾아 제 골로 가다가도 어떤 때는 소가 성이 났는지 제 골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갈 때도 있다. 이럴 때 소모는 이가 - 소모는 이를 이 지역에서는 성군이라고 한다. - 고삐를 조정하며 소를 달래기도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재미있는 상황을 상정하여 작품화하였다. 가령 한스레이므로 두 마리 소가 서로 몸을 비비며 장난을 하거나 또 잘 가던 소가 갑자기 가지를 잃고 성군을 골탕을 먹인다던가 등등 이런 여러 가지 경우를 작품 속에 담아내었다.

논을 갈고 삶으면서 한편으로는 모를 찢다. 이때 모를 찢 때도 또한 소리를 한다. 흔히 한춤소리라 알려진 것인데, 도문동의 모 찢는 소리는 다음과 같다.

이때 한춤이라는 것은 모를 묶어 놓은 것을 말한다. 한 사람이 ‘얼른 하더니 한 춤’이라고 소리를 하면서 모를 집어던지면 다른 사람이 받아서 또 소리를 하면서 모를 한 춤 집어던진다. 이때 흥겹고 신나게 부르는 소리가 바로 모 찢는 소리다.

당시 마을에는 좌상이 있어서 농사가 시작되면 모든 것을 감독했다. 질을 이 마을에서는 질레라고 하기도 한다. 짜면서 농사가 시작되면 혹 늦게 오거나 안 온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할 분량을 남겨 놓았다가 그 사람이 하게 하는데, 혹 늦게 오거나 안 온 사람을 괘씸하게 여겨 더 많은 분량을 남겨놓을 때도 있었다. 대체로 좌상은 나이 드신 분이 맡아서 하셨는데 일도 같이 하였다. 당시 농기를 든 패들은 남들보다 항상 먼저 다가 농토에다가 꽃아놓고 모를 찢다. 모를 다 찢고 들어올 때도 농기를 앞세우고 농악을 울리면서 들어왔다.

셋째 마당 : 모심는 소리

논을 다 삶으면 곧바로 모를 심는다. 이때 ‘심어주게~’로 시작되는 모심는 소리를 흥겨운 가락에 맞춰 부르는데, 이 소리 외에도 아리랑, 어랑타령 등 다양한 소리가 모심는 때 불려졌다. 대체로 모심는 소리는 강릉, 양양, 평창 등지에서 불려지는 소리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 가락도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신이 날 때에는 빠르게도 부르다가 또 오후 들어 힘이 들 때에는 천천히 부르기도 한다.

넷째 마당 : 김매는 소리

김매는 소리를 메나리라고 한다. 두벌김을 맬 때부터 날씨가 더워지면서 일이 힘에 부친다. 이때부터 메나리가 불려지는데, 소리를 잘하는 농부가 앞 소절을 선창을 하면 나머지 농부들이 뒷 소절을 화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 메나리는 삼척권과는 달리 영북지방의 특성을 잘 드러내는 소리로서 하루 중 시간의 흐름에 맞추어 가사가 변화하는 특징을 보인다.

다섯째 마당 : 질 먹기

농촌에서는 세벌 김을 매고 나면 마을주민들이 하루 낱자를 정하여 잔치를 연다. 이것을 이 마을에서는 질을 먹는다고 한다. 이 마당은 이를 표현한 것으로 주민들이 삼삼오오 앉아서 저마다 흥겹게 노는 마당이다. 여기저기 옹기종기 모여 앉아 저마다 장기 자랑도 하고 여인들은 함지를 이고 술상을 들고 분주히 오고가는 쾌활한 농촌의 하루 풍경을 그려내었다.

여섯째 마당 : 벼 베는 소리

한해 농사가 풍년이다. 농부들이 논에 나가 벼를 베면서 소리를 한다. 이 소리를 달리 ‘한단소리’라고도 하는데, 벼를 베어 넘기며 ‘~한단’이란 구절이 들어가는 데에서 그 이름이 유래한다.

벼를 베어 놓으면 한편에서는 벼단을 가지고 벼를 세운다. 이기서는 벼를 스무 단을 한 타래라고 하는데, 이때도 소리를 한다. 벼를 베고 한편에서는 벼단을 세운다. 이번에 출품한 작품은 여기까지 형상화했으나 이 하 과정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보여주지 않았다.

벼단을 세우면 농촌은 한 해를 마무리하기 시작한다. 벼를 털어 쌀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 과정을 마댕이 한다고 한다. 태돌(대상이라고도 한다)에 쳐서 떨어진 벼 낱알을 다시 도리깨로 치면서 탈곡을 한다. 태돌이란 널찍한 돌맹이를 구해 놓고 사용을 했다. 도리깨는 보통 기능에 따라 상도리깨와 하도리깨로 구분하는데, 이때 상도리깨는 세로로 서서 먼저 치는 도리깨이고, 상도리깨가 치면 가로로 서 있는 여러 명의 하도리깨가 뒤를 받아친다. 이때도 물론 소리를 했다.

탈곡을 하여 벼가리가 이만큼 모아 있으면 한 편에 짚으로 동그랗게 또바리를 만들어 놓고 부채질을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하면서 벼가래를 지운다. 이때도 소리를 하는데 선창을 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후렴을 받아들인다.

벼가리를 지운다는 것은 먼지를 날린다는 것이다. 온 종일 탈곡을 하여 모아 놓은 것을 다시 한번 더 까부면서 먼지를 털어 내는 작업이다. 가래를 들고 퍼 올리면 키를 가지고 털어 내는 작업이다. 가래를 든 이나 키를 든 이나 서로 사인이 잘 맞아야 한다. 이렇게 털어 낸 벼 낱알을 삼태기로 - 여기에서는 산대미라 한다.

온종일 탈곡을 하고 나면 벼 꺼풀이 여기저기 달라붙는다. 이를 꺼끄랭이라고 여기서는 부르는데, 이를 없애기 위해 황덕불을 해놓고 불에다가 옷을 벗어 흔든다. 그러면 불에 벼꺼랭이가 타버리면서 옷에서 잘 떨어진다.

일곱째 마당 : 황덕굿

풍년이다. 그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 우선 햇곡으로 조상에게 차례를 올리고 마을주민들이 모여 흥겹게 노는 마당을 표현했다. 이 마당의 특징은 아무런 형태 없이 자유롭게 논다는 것이다. 차례를 올릴 때 축문을 읽고 제관은 좌상이 담당한다.

이 메나리 속에는 농민들의 삶의 애환이 담겨있다. 노동의 힘듦과 지루함을 이겨내기 위한 그들만의 방법이 그 속에 녹아 있다. 일종의 노동요로 일이 더디면 소리를 빠르게 함으로써 일의 진행속도를 높이고 또 일이 지루하면 경쾌하게 소리를 함으로써 분위기를 밝게 전환하는 등 그들만의 기술을 갖고 있다.

2) 도리원농악

(1) 유래

도리원은 속초의 가장 많은 전답을 보유하고 있는 고을이다. 때문에 전형적인 농촌민속문화가 잘 보존되어 있다. 지금도 한해를 시작하는 정월 대보름을 기점으로 당시 이러한 가운데 농악은 주로 농사놀이 형태의 두레농악이 성행했으며, 걸립농악으로 발전해 나갔다.

또한 속초농악은 1936년 영동지방이 재해로 초토화된 농민들의 실의를 달래고 재기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이러한 연유로 속초 농업의 중심적인 노학동 도리원에 농악이 더욱 발전하여 지금도 연희



되어지고 있다.

도리원은 설악산 산자락 끝에 넓은 들을 끼고 형성된 마을이다. 이 마을은 예부터 농업(벼농사)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며 농악이 성행했었다.

주로 정월대보름을 기점으로 성황굿과 마을 집돌이를 하고 이로부터 두 달 여에 걸쳐 걸립을 다녔다고 한다. 일정시기에는 마을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걸립을 위한 전문걸립패를 조직할 정도로 농악놀이가 왕성했으며 마을 젊은이들을 상대로 한 농악 전수와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한다.

현재 도리원농악은 엄상원(도리원 거주)상쇠를 중심으로 전승되고 있으며 그는 도리원 출생으로 상벽구이던 아버지를 따라 무동으로 농악을 시작했으며 당시 상쇠였던 이서기와 최정수로부터 농악을 배우고 20세 때 상쇠가 되었다.

(2) 특 색

속초농악은 농사풀이 형태의 진행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복장이 타지방과 다른 특이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농사풀이는 소고수와 무동들의 연희적 과장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여자들의 농악판의 역할이 크게 자리매김 되어있고 사물(쇠, 징, 장구, 북)과 소고, 무동의 수가 각각 동수로 구성되어 있다. 복장은 상모와 무동의 복색에서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다. 상모는 짚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으며 쇠와 소고수는 일반적인 물체와 다르게 그 끝이 두 가닥의 종이로 이루어져 있으며 나머지 치배들은 고정된 방망이(떡)상모를 쓴다. 구성 및 놀이과장 가락의 진행은 경쾌하며 일체, 이체, 삼체, 굿거리(길굿가락), 칠채를 주로 친다. 선보일 순서는 다음과 같다.

인사굿
 명석말이,
 칠채, 十字걸이,
 가세치기,
 오방진,
 길굿(굿거리),
 농사풀이(가래질→논갈기→뽕씨뿌리기→모심기→탈곡),
 무동놀이,
 열두발상놀이,
 명석말이,
 인사굿 등으로 진행된다.]

일반적으로 인사굿, 골뱅이틀기, 십자진, 황덕굿, 농사풀이로 판굿진행은 비슷하지만 황덕굿 전에 “쇠꼭지”라는 개인놀음이 있어 한 명씩 재주를 펼쳐 보이는 독특한 구성이 있고 십자진풀이는 전개방법과 진풀이가 독특하다.

주로 걸립굿 중심의 농악으로 발달되어 오랫동안 밖으로 나와 있던 탓에 무동은 15~18세의 남자들로 구성했으며 해방 뒤에는 신파극놀이 등이 가미되어 잡색놀음도 연희되었다고 한다.

도리원은 노학동에 있는 마을로 주업이 농업이다. 주업이 농사인 관계로 농악이 발달하여 전승되고 있으며 지금도 농사가 끝난 후 마을행사로 농악놀이를 행하고 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정월대보름을 기점으로 농악놀이가 연희 되었으며, 동네의 많은 사람들이 농악놀이

에 참여하면서 동네의 축제로 발전시켰다.

1930년대와 40년대에는 대포 별신제 등에서 크게 연회되었으며, 50~60년대에는 새로운 속초도리원 농악이 빛을 발하여 남부지역(강원도 삼척)으로, 서부지역(경기도 수원 등지)까지 연회(걸립)를 하고 초청공연까지 다니면서 농악의 진수를 보였다.

이 때 당시 농사철이 끝난 후 연회(걸립)를 하는데 도리원 가장들은 집안을 장기적으로 비워야 하여 인근 고성지역의 연회자를 초청하여 농악대를 편성하고 또한 무동(아녀자 구성부문)을 15~18세 소년들로 편성, 여성으로 분장시켜 뒀을 담당하게 하였다.

이러한 연유로 속초 도리원 농악이 정착할 수 있었으나, 국가의 경제개발 정책에 의한 공업화 도시화에 따라 농업의 비중이 축소되면서 농업의 저 성장과 농촌의 저 발전으로 지역간 소득 불균형과 농촌노동력의 이농현상과 고령화를 초래한 결과로 농악에 대한 전승 및 발전이 점점 어려워졌고, 그에 따라 전수체계는 이루어지지 않아 속초 도리원 농악이란 이름만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하여 지역의 몇몇 어른에 의해 연회되는 것들을 재정리 하고 전승하여 전통문화민속 연구의 기틀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보존 및 전승하고자 심혈을 기울이게 된 것이다.

작품 내용(구성 및 놀이과장) - 고증자의 채록(採錄)을 바탕으로 하였다.

가락은 대체로 빠르고 경쾌하며 일채, 이채, 삼채, 굿거리를 주로 친다.

농악대의 편성

악기편성 - 쇠(4), 징(4), 장구(6), 북(6), 소고(8)

무 동 - 8명(15 ~ 18세의 남자로 구성)

잡 색 - 양반(1), 할미(1), 대포수(1)

깃 발 - 용기(1), 농기(1), 마을기(1)

2. 호수와 관계된 무형문화

이 지역의 아름다운 영랑호와 청초호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택리지』에 의하면 동해에는 이름난 호수와 이상스러운 바위가 많고 높이 올라가 보면 푸른 바다가 망망하고 동네에 들어가면 문과 돌이 그윽하여 경물이 실로 전국에서 첫째이다. 樓臺, 亭觀의 승지도 많아 흡곡의 侍中臺, 동천의 叢石亭, 고성의 三日浦, 간성의 淸澗亭, 양양의 靑草湖, 강릉의 鏡浦臺, 삼척의 竹西樓, 울진의 望洋亭 등을 세상에서 關東八景이라고 부른다는 기록에서 청초호의 아름다움을 알 수 있다. 이 호수와 관련된 많은 놀이가 전해져 오고 있다.

1) 만천동 나룻배 싸움놀이

(1) 유래

속초의 양대 호수인 청초호와 영랑호에는, 각각 수룡과 암룡이 살았다는 전설이 있다.

만천동은 옛 지명이다. 전설에 의하면 청초호에는 수룡이 살았고, 영랑호에는 암룡이 살았는데 서로

땅 속으로 통하는 물길을 따라 오가며 살았는데 어느 날, 한 어부의 실수로 큰 불이나 청초호 주변의 솔밭을 태우게 되어 그 연기와 불길로 인해 수룡이 죽고 말았다. 이 때, 영랑호에 살던 암룡이 크게 노하여 이 지역에 가뭄과 흉어로 별을 내렸다. 만천동과 청대리 사이의 소야천(청초천)을 왕래하던 나룻배도 자주 사고가 났다. 이로 인해 어민들은 용을 달라고 흉사를 없애기 위해 정월대보름이면 무당을 청하여 용신제를 지내 암룡을 달라고, 수룡의 죽음을 위로 하였다. 그리고 이 때 만천동과 청대리를 왕래하는 나룻배의 무사고를 기원하는 뜻으로 한 쌍의 나룻배로 힘을 겨루는 민속놀이가 거행되면서 놀이로 정착하였다. 만천동과 청대리 사이의 소야천(청초천)을 왕래하던 나룻배도 자주 사고가 났다. 용을 달래야 이런 흉사가 없어질 것이라 믿은 마을 사람들이 용제(龍祭)를 지내게 되었다.

용제 후에 두 마을 사람들이 나룻배 싸움을 하면서 힘을 겨루고, 풍년과 풍어를 기원하기 시작하면서, 놀이로 정착하였다.

(2) 특색

음력 정월보름이 지나 날씨가 풀리면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용제를 올릴 제일(祭日)을 택한다. 제주와 제관을 뽑고 마을에서 건장한 청년들을 뽑아 배에 태우고 용제를 올린다. 풍년과 풍어, 그리고 마을의 안녕을 비는 제사를 올린 다음 나룻배를 타고 상대마을로 찾아가서 전체 주민들에게 음복을 권하며 인사를 올린다. 제사와 상대 마을을 방문, 인사가 끝나면 나룻배를 몰고 자기 마을로 돌아온다. 마을로 돌아온 나룻배에 신주(神主)와 메를 싣고 다시 호수로 나가 음식을 뿌리며 나룻배의 무사고를 기원한다.

이런 의식이 끝나면 양쪽 마을에서는 자기 마을이 우세하다고 시위를 벌인다. 마을에서 만든 음식과 술로 흥을 돋운다.

마을의 부잣집에서는 술과 음식을 내온다. 흥을 돋우면서 마을끼리 힘을 겨루는 놀이가 시작된다. 양편 나룻배로 호수 한가운데로 나가 나룻배끼리 부딪쳐 밀고 나간다. 노를 젓던 중 선정된 도구로 나룻배를 밀어 붙여 각기 상대 마을로 밀고 나간다. 상대 힘에 밀려 나룻배가 자기 마을에 닿게 되면 지고, 밀고 간 편이 승리하게 된다. 나룻배 싸움놀이가 끝나면 두 마을이 흥을 돋우는 놀이마당을 벌여, 서로 내년에도 다시 힘을 겨루어 꼭 이길 것을 결의한다.

나룻배 싸움에 승리한 마을에서는 청년들에게 새경을 올려주고 도선료를 면제해주며 푸짐한 대우를 하게 된다. 나룻배싸움은 혼례 때 나룻배에서 만나도 행해지고, 특별히 물건을 운반할 때도 행해진다.

나우리 전래의 어촌 생활에서 가뭄과 흉어를 용제(龍祭)를 지내어 극복하는 삶의 부활에 상당한 뜻을 두었다. 나룻배에서 싸워 이긴 신부는 첫 아들을 낳는다는 민간신앙이 전해진다.

구성과 놀이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1마당 : 용제

두 마을의 제관과 마을 청년들이 수룡과 암룡을 위무하는 용제를 지낸다.

제2마당 : 음복

상대 마을을 찾아가 음복을 권하며 인사를 나눈다. 이후 각기 차기 마을로 되돌아온다.

제3마당 : 뱃놀이

장정을 뽑아 배에 태우고, 이들이 나룻터를 왕래하며 노래와 춤으로 나룻배의 무사고를 비는 의식을 행한

다. 나루터 행사가 끝나면 마을로 되돌아 와, 힘 거를 준비를 한다.

제4마당 : 뱃싸움

징이 울리면서 마을사람들의 환성이 울린다. 장정들은 나룻배를 서로 밀어붙이며 일진일퇴를 거듭한다.

제5마당 : 놀이마당

승패가 결정되면 이긴 쪽은 환호하고 패한 쪽은 한숨짓는다. 이어 흥을 돋우는 놀이마당을 벌인다.

3. 바다와 관련된 무형문화

바다는 인간에게 풍요를 제공하지만 바다만큼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도 없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의 선조들은 무사안녕과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 성황제와 용신제를 지내면서 다양한 문화가 전해오고 있다. 요의 존재는 바다를 접한 동양의 농경국가에서는 신성시하였다.

우리의 민속신앙에서 용이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어로생활에서의 두려움과 풍요를 기원하는 존재자로 용왕제를 지내면서 이 지역에서는 산 닭을 바치는 것도 용신을 즐겁게 하기 위한 신앙이다. 용은 우리 민속신앙에서 물의 지배자이고 절대자이며, 인간성과 신성성이 부여된 존재로 설정되어 있다.

해양문화에서 성황제 제사에 용왕을 모시는 것은 바다를 접하고, 바다에서 생활하는 이 지역 신앙의 특징이다. 동해 용왕신, 배성주신과 관련된 신앙과 문화가 전해오고 있다.

1) 대포동 뱃소리

(1) 유래

속초시는 해안선을 따라 발달한 어촌지역으로서 대포동은 자연부락 단위의 항구도시로 발달되었다. 이곳을 중심으로 하여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취락인 어촌이 형성되게 되었다. 어민들의 생활 터전이 바다이므로 자연히 바다에 대한 신앙과 조업에 대한 풍속들이 깊게 뿌리박고 있는 것이다.

출어할 때 그물을 당기며 고기를 산대에 담을 때, 그물에 걸린 고기를 베끼면서 어민들의 애환이 담긴 뱃소리가 입엿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으나, 점차 사라져 가고 있다.

(2) 특색

뱃소리에는 지어소리, 다리어소리, 베끼소리, 산대소리(가래소리 등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 지방마다 뱃소리는 서로 다르지만, 동해안에는 크게 강원도식과 함경도식으로 분류된다. 강원도식 뱃소리는 짜임새가 단순하면서도 소박한 것이 특징이고, 함경도식 뱃소리는 잡담(사설)이 풍부하고 강직한 것이 특징이다. 속초지방은 강원도 지역이면서도 함경도의 특색들이 교차되는 지역으로 나름대로의 뱃소리를 구성하고 있는 특이한 곳이다..

뱃소리의 구성은 몇 소절을 제외하고는 전형적인 뱃소리는 없고, 시대가 변함에 따라 시조, 고사(故

事), 판소리, 패설 등을 사실로 삽입된 것이며, 정형 없이 늘 부르던 사설을 그때그때 다르게 부르고 있는 것이 판소리나 기타 농요와 다른 특징이며 사설내용은 어부들의 희비애락을 노래한 것이 거의 전부다.

작품내용은 「산대소리」인 민요부문에 출연하므로 뱃소리에 중점을 두었다. 소리에 부적합한 행위는 무리가 없는 한 연희하지 않기로 했고, 소품은 정확한 고증에 의하여 약 100년 전의 출어모습과 소리를 재연하였다.

구성 및 놀이 과정은 다음과 같다.

제1과장 : 출어(출어고사는 생략)
노젓는 소리를 한다.

제2과장 : 조업
사공의 지시에 따라 쳐진 그물을 일제히 당기며 「다리어」소리를 함.

제3과장 : 산대질
사공의 선창에 맞춰 가래「산대」로 고기를 퍼 담으며 「산대소리」를 함.

제4과장 : 선상 작업
끌어올린 그물 안에 고기를 베껴내는 작업을 하는 「베껴소리」를 하며 만선임을 확인하고 만 선기를 올림.

제5과장 : 귀향
만선기를 달고 돌아오면서 흥겨운 「지어소리」를 하면서 돛을 내림.

2) 물치 용왕굿 용떡놀이

(1) 유래

물치는 행정구역상 속초시 대포동에 있는 마을로서 예전에는 속초의 중심지역이었다. 이 지역 사람들은 주로 어업을 주요 생업으로 삼았으며, 이곳 물치에서 행해지는 풍어제는 축제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풍어제는 3년에 한번씩 올려지며, 3일동안 12마당 굿을 펼치며 벌어진다. 용떡놀이는 용왕굿의 한 과정으로서 배를 소유하고 있는 선주들이 각기 젓상을 하나씩 용신에게 바친다. 이 제상 마다 풍어를 기원하는 용떡과 오방기가 필수적으로 쓰이게 되는데, 무녀들과 주민들은 이를 중심으로 한바탕 놀이를 펼치는 것에서 유래되었다.

(2) 특 색

속초의 어촌에서는 3년 또는 5년마다 용왕굿을 지내는데 매년 연례적으로 열리는 마을제와는 달리 별신제로서 풍어굿의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대포동 물치 용왕굿은 3년마다 어촌계와 어민들이 중심이 되어 준비하며, 음력 9월 9일 제사가 끝난 당일 오후부터 시작되는데 예전에는 사흘 밤낮 굿을 할 정도

로 규모가 컸다고 한다.

용왕굿은 부정굿, 성황굿 등 12거리가 행해지는데 마지막 거리인 뱃놀이 굿이 끝나면 축항에 나가 물굿(용왕굿)을 지내게 되는데, 이 때 선주들도 각자 작은 제사상을 준비하여 축항에 놓고 풍어와 안전을 기원하는 치성을 드리고, 용왕신에게 바쳐진 용떡을 머리에 이고 춤을 추며 놀던 축제로 이런 일련의 풍어제와 용왕굿 놀이는, 속초 지방 해안 부락들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민속놀이이며, 우리의 전통 신앙을 축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물치 용왕굿 용떡놀이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제례 : 제관과 선주들이 각자 준비한 작은 제사상에 주과포와 옹떡, 향과 초등을 간단하게 상을 차려놓고 풍어와 안전을 기원하는 치성을 드린다. 용왕굿 : 동 해안 별신굿 중의 하나인 용왕굿을 부녀들과 주민 모두 함께 펼친다.

액막이 : 무녀들이 각성받이 소원풀이를 하며, 마을의 안녕과 무사조업을 기원하며, 주민전체의 안녕을 빈다.

옹떡놀이 : 용왕신에게 바쳐진 옹떡시루를 머리에 이고 무녀들과 주민들이 춤을 추며 놀고, 신에 바쳐진 후 주민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다.

오방기놀이 : 만선을 기원하는 오방기를 중심으로 현란한 기놀이를 펼친다

뒫놀이 : 성황신과 용왕신을 달래며, 마을 주민 모두가 한바탕 흥겹게 논다.

3) 든대질 놀이

(1) 유래

속초지방에서는 유일하게 날바리(모래)땅인 사진리(장사동)에서는 든대질로 배를 진수하고 끌어 올린다. 날바리 땅에서는 폭풍이 친다든지 해일이 일어나면 초를 다투어 배를 끌어 올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거친 파도에 휩쓸려 파손되기 때문에 빠른 동작으로 든대질을 해야 한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여유 있게 허리도리(선도리꾼)의 유창한 소리에 맞춰 흥겹게 뒫소리를 하면서 든대질을 한다.

(2) 특색

든대질 소리는 속초의 뱃소리인 지어소리, 다리어소리, 베끼소리, 산대소리(가래소리)와 같이 몇 소절을 제외하고는 정형적인 내용은 없고 시대와 상황이 변함에 따라 사설이 여러 가지 삽입되고 있다.

배를 처음 만들어 물에 띄우는 진수(進水)시에 사람들은 “배 내린다”고 하고 무사고를 비는 기원제를 올린다. 기원제는 술가지를 끝에 꽂은 대나무에 5색 만선기(성주기)를 달고 뱃머리 즉 이물에 제물을 차린다. 제물로는 술, 과일, 포, 돼지머리나 소머리를 장만해서 진설하고 제사를 지낸다.

첫 출어를 하게 되면 선주가 풍어와 무사고를 비는 고사를 지내는데 동해안에서는 첫 출어를 '설망'이라고 한다. 설망날은 택일을 하여 좋은 날을 고르는데 고사를 지낸 후 배성주신을 모실 돈을 선주한테 받는다.

'배성주'는 배를 지킨다는 신령으로 그 표상은 흰 종이(한지)를 한쪽 변이 10cm쯤 되도록 모나게 여러 겹으로 접어서 완돈 한 푼과 청·홍실을 그 속에 넣어 어부들이 잡자는 '방장'이나 '큰대명'(고기를 잡은 것을 담아 두는 곳 중에서 가장 큰 곳)에 모신다. 배성주를 모실 때 제물로는 어물을 쓰기도 하고 육류를 쓰기도 하나 병용하지는 않는다.

선주가 제주(祭主)가 되며 도사공(선장)은 제관이 된다. 성주기를 꽂고 드리는 고사가 끝나면 모든 선원은 도사공의 선소리에 맞추어 든대질을 하여 배가 물에 닿으면 선원이 노를 저어 떠나게 되고 '따리(키)'를 잡는 도사공이 방향을 잡는다.

노를 저어 항, 포구를 떠나 바람을 만나면 돛을 올려 노 젓기를 중단하고 짚단에 불을 붙여 뱃전을 돌고 뒷 고물을 휘두른 뒤 바다에 던져 버린다. 이것은 액막이로 벽사의 뜻이 있는데 삼재(수재, 화재, 풍재)를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이렇게 한 후 목적지에 도착하면 본격적인 어로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이처럼 속초지방에서는 배를 바다로 옮기는 재래식 이동방식으로 든대질을 하는데, 든대는 참나무나 소나무로 만들어 배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지렛대와 같은 긴 막대기를 말한다. 든대는 '드는 대'라는 뜻으로 볼 수 있고 '절'은 행위를 뜻하는 '짓'과 같은 말이라고 하겠다. 든대를 받쳐주는 받침대를 '계'라 하는데 '고인대'는 뜻에서 나온 것이다.

속초 든대질 놀이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성주기(만선기) : 마을사람들이 만들어 주거나 직접 만드는데 깃대에는 소나무 가지를 묶으며 짚으로 만든 삼재막이를 달고 배성주를 모신다.

고사 : 제관은 선주가 되며 도사공과 선소리꾼인 허리도리도 같이 고사를 드린다. 이유는배가 오래가고 무사고를 비는 뜻이라고 한다. 제물은 술, 초, 향, 시루떡, 포 등으로 간단히 차린다.

액막이 : 액막이는 짚으로 만든 포막대에 불을 붙여 배의 앞뒤를 다니며 소금을 뿌리고 부정을 씻는 것을 말한다. 불을 나쁜 짓을 씻는 발양력을 지녔다고 보아 주술적 행위를 하는 것이다.

비나리 : 고사가 끝나면 무녀가 소복을 입고 징을 치며 기도를 드린다. 이때 쾌자는 입지 않는다.

든대질 : 기원과 액막이가 끝나면 허리도리는 젊은이들과 괴꾼, 든대꾼이 선소리와 뒷소리를 부르며 배를 내린다.

설망 : 배가 처음 물에 들어가면 성주기를 바닷물에 세 번 적신 후에 배에 달고 노를 저어나가며 돛을 올려 바다를 한바퀴 돈다. 마을사람들과 어부들은 선주가 장만한 음식 먹고 풍어와 무사고를 기원한다.

농악 : 농촌과 달리 농악대는 따로 없고 농기도 없다. 도가에 악리를 보관하며 놀이에만 사용한다. 배 건

조시에 무녀와 함께 풍악을 울리며 배의 만선과 무사조업을 빈다.

4. 실향민과 관계된 무형문화

속초는 실향민의 도시라고 불릴 정도로 실향민의 인구비율이 높은 편이다. 단순히 인구비율만 높은 것이 아니라 실향민이 북한에서 지니고 내려온 민속문화가 오늘까지 이어지며 새로운 전통을 창출하는 실질적인 민속문화의 원형을 보여주고 있다.

전통이 단지 과거의 생산물이나 고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대의 관점에서 과거를 해석하며 새롭게 변환시키는 현대의 생산물이라면 속초의 실향민 문화는 민속문화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 속초북청사자놀음은 실향의 애환을 문화예술로 승화시킨 무형문화이다.

1) 속초북청사자놀음

(1) 유래

현재 함경남도 출신들이 집거하고 있는 속초청호동 아바이마을은 분단이후 함경도지역 민속문화의 보고로 널리 알려지고 있는데 함흥냉면, 명태순대, 젓갈 등 함경도 음식문화와 함께 그들의 방언이 사용되고 어로요가 불리며, 그들의 사자탈놀음이 전승되고 있다. 그러므로 속초청호동은 이른바 남쪽의 함경도라고 불릴 만하고, 함경도 민속의 보고라 하겠다.

속초에는 함경도 피난민들이 정착함으로써 북청사자놀음이 자연적으로 재현될 수밖에 없었던 여건이 조성되었다. 1956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북청사자놀음이 참가하는데, 13세 때부터 사자춤을 추었고 19세에 애원성을 사람들 앞에서 잘 불렀던 죽평리의 김수석 옹이 속초에 살고 있었으므로 서울의 북청군민회에서는 김옹을 중심으로 출연단을 구성하였다. 이것을 계기로 북청사자놀음이 남쪽에서 재현되었으며, 속초에서도 북청사자놀음을 이곳에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생기게 되었다. 구체적인 작업을 위해 우선 북청도청이라는 집회소를 만드는 일에 착수했는데 친목계 36인이 당시의 사업에 참여하였다.

기금마련을 위해 1957년 정월대보름, 김수석 옹이 속초에 정착한 다음해 북청사자놀음이 속초에 모습을 나타냈다. 사자탈과 통소 복식 등을 새로 만들어서 사자춤을 추며 가가호호를 방문하였다. 당시 친목계원 중에서 김수석, 오동술, 김하륜, 이재섭 등이 중심이 되었는데 계원 중 재주가 있는 사람을 골라 다시 연습에 들어갔다. 북청사자놀음의 중심은 사자에 있으므로 앞채 사자에 김수석, 통소에는 김하륜이 중심이 되었으며 다른 배역들은 이들의 고향에서 추었거나 본 적이 있어서 재현에 성공하였다. 약10일 동안의 걸립에는 북청군민지역 독지가로 부터 거둔 기금으로 1958년 속초읍장 전성우 씨로 부터 금호동소재 읍 유지를 무상으로 불하받아 북청도청을 건립하였다.

이 도청이 건립되기까지는 계원 36명이 손수 산허리를 짊는 작업을 해서 세운 것으로서 북청군민회 지회 보다는 북청도청이라는 공동집회를 자발적인 노력으로 이룬 성과에 의해 걸립력이 강화되었다. 도청에서는 고향의 전통재현을 위해 북청사자놀음을 매년 정월보름에 망향제를 지내고 실시하였는데 북청현지와 다름없이 재현되었으며 북청인들뿐만 아니라 북청인들 뿐만 아니라 타지역 실향민과 속초의 주민들도 함께 공연을 감상하고 흥이 나면 시내를 돌아다니기도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2) 특색



북청사자는 현재 유일하게 전승되고 있는 사자탈이다. 북청사자놀음에 나오는 성원은 사자·꺼쇠·양반·중·점바치·의생·거사·무동 등이다. 꺼쇠는 험상궂은 탈을 쓰며 양반은 긴 수염이 달린 탈을 쓰고 머리에 관을 쓰며 도포를 입는다. 거사는 탈과 고깔을 쓰고, 사자는 두사람이 앞뒤에 서서 사자가면을 쓴다. 북청의 사자놀이는 정월 대보름을 전후하여 세시명절놀이로 많이 놀았다. 놀이의 처음은 도청(이 지방의 고유한 공동집회장소)에서 벌어지는 마당놀이이다. 마을마다 마당놀이를 놓고 난 다음에 아직 흥이 사라지지 않은 고조된 분위기 속에서 횃불을 앞세우고 여러 마을들로부터 사자행렬이 북청읍으로 모여 든다. 이러한 행렬이 끝난 후 읍내 큰 마당에서는 사자놀이 경연이 벌어진다.

‘사자널리리’의 신명나는 악곡이 울리는 가운데 사자춤이 계속된다. 마당에서의 경연이 끝나면 각기 호별 방문으로 들어간다. 집마당을 돈 후 사자는 굿거리장단에 맞추어 ‘넋두리춤’을 추며 격조 높은 북장단에 ‘검모루춤’을 춘다. 마지막으로 사자는 부엌으로 들어가 집안에 숨은 악귀를 몰아내는 시늉을 한다. 북청지방에서는 사자놀음 벌이는 것을 일러 ‘사자 놀린다’고 하는데, 집안에서 풍물을 치고 사자를 놀리면 잡귀가 물러나 액을 막고 복을 불러들인다고 한다. 이 마당놀음에서 탈춤과 우스꽝스런 재담으로 양반들의 탐욕과 악덕을 비판하는 극적 줄거리를 지닌다.

사자놀이의 특징은 쌍통소와 북으로 구성된 악대가 보여주는 북방 특유의 소리를 치며, 연희의 내용은 길놀이·마당놀이·애원성춤·사당춤·칼춤·무동춤·뽕새춤·사자춤·재담·넋두리춤 등으로 구성된다.

사자놀음은 전국적으로 널리 퍼져 있어 사자춤만 따로 놀기도 하고 탈놀이 속에 한 과장으로 어울려 놀기도 하는데, 그 중 북청사자놀음이 유명하다. 그 외 현존하는 민속극에서 사자춤이 연행되고 있는 것은 봉산탈춤·통영오광대·수영야류·하회별신굿탈놀이 등에서이다. 사자춤은 보통 2명이 사자의 앞뒤를 맡아 앉아서 좌우로 머리를 돌려 이를 잡기도 하고, 꼬리를 흔들면서 몸을 굽기도 하며 타령이나 굿거리장단에 맞춰 덩실덩실 춤을 추기도 한다. 그러다가 봉산탈춤에서는 채찍으로 때리는 사자몰이를, 통영이나 수영사자는 장단에 맞춰 담비와 싸우다가 담비를 앞다리 안으로 끌어들여 잡아먹는 시늉을 한다.

이처럼 북청사자놀음은 해마다 음력 정월 대보름날 큰 마을에서 벽사진경(辟邪進慶)을 목적으로 놀

있던 민속놀이로 나무·종이·대광주리·천 등으로 사자의 형상을 한 사자탈을 만들어 놀이꾼이 함께 어울려 마을의 집집을 돌아다니며 노는 탈놀음이다. 이는 각 가정과 마을에 대한 벽사의 뜻이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집주인으로부터 사례로 받은 돈과 곡식 등은 마을 공공사업과 사자놀음의 비용 등에 충당 되어 마을민의 공동체의식을 결속시키는 데 한몫을 한 세시풍속이었다.

(3) 구성

북청사자놀음은 마당놀이와 사자놀이 마당으로 구분되어져 연희된다.

마당놀이

제1과장 양반, 껍쇠

마당 한가운데 길잡이가 험상궂은 탈을 쓰고 마당을 정리정돈하면서 연희의 시작을 알린다. 남루한 복색을 입은 껍쇠(현재의 하인)가 옥색도포를 입고 부채와 장죽을 잡은 양반을 모시고 입장을 한다. 마당 한가운데에서 북청지방의 역사적 사실과 사자놀이에 대한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대사를 나눈다.

제2과장 애원성 춤

양반의 주문에 의하여 흰 한복 바지와 저고리를 입은 악사들이 통소를 중심으로 북, 장구, 징 순서로 입장하고 양반과 껍쇠가 춤을 한바탕 춘다.

이어서 화사한 옷차림을 한 애원성 춤이 입장한다. 느린 굿거리장단에 맞추어 춤을 추며 애원성을 창자(唱者)가 불러준다.

제3과장 거사, 사당춤

흰 한복 저고리를 입은 2명이 소고를 가지고 거사들이 춤을 춘다. 거사는 마을에서 식자층에 속하지만 무위도식하는 인물이다. 이어 화려한 복색과 한삼을 낀 사당들이 입장하여 함경도 고유의 춤인 넛두리 춤을 경쾌하고 사뭇한 춤을 춘다. 사당은 특정한 거처가 없으면서 노래와 춤을 판 창기(娼妓)의 일종이다.

제4과장 무동춤

건장한 남자와 부녀자가 아들과 손자를 어깨에 태우고 입장하여 아이가 귀엽고 아기자기한 춤사위를 연출한다. 이는 북청사자놀이가 연희자와 비연희자가 구분 없이 즉흥성이 강하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제5과장 곱추춤

흰 저고리에 빨간 치마를 입고 땡기머리를 한 처녀가 빠른 굿거리장단에 맞추어 다양한 춤사위를 연출하며 흥겹게 춤을 추면서 관객들에게 웃음의 도가니로 몰입시킨다.

제6과장 칼춤

황금색 의상으로 건장한 군인이 약간 느린 굿거리장단을 시작으로 빠른 굿거리장단에 맞추어 춤을 추면서 중앙에 있는 칼을 향해 춤을 춘다. 칼을 잡고 나서 용맹스런 춤사위를 연출한다.

제7과장 뉘두리춤

명절에 맞춰 제각기 예쁜 한복을 입은 춤꾼들이 등장하여 함경도 전통춤인 뉘두리 춤을 춘다. 이 춤사위의 특징은 손이 어깨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어깨와 손목을 사용하면서 경쾌하고 생동감이 넘치는 춤을 연출한다.

제8과장 사자춤 마당

사자춤은 초장, 중장, 말장으로 구분되어져 진행된다.

초장은 느린 굿거리장단에 맞춰 의인화된 사자춤을 보여준다. 사자가 굿실굿실대며 ‘ 모래기 ’를 춘다. 모래기 순서는 하상좌우(下上左右) 힘과 속도의 완급을 조절하며 춤사위를 보여준다.

중장은 백수의 제왕으로 용맹한 맹수의 모습을 연희한다. 이때 모래기는 역동적이고 활달한 춤사위를 연출한다. 한편에서는 승무가 입장하여 길게 늘어진 한삼을 사자를 중심으로 뿌린다. 사자가 후반에 가면 갈수록 체력을 소진하여 양반이 건네준 토끼를 먹고 쓰러진다. 양반의 제의대로 스님이 입장하여 염불을 외고, 꼭쇠가 자청하여 의원을 불러 들여 사자에게 춤을 놓고 감로수를 먹여 소생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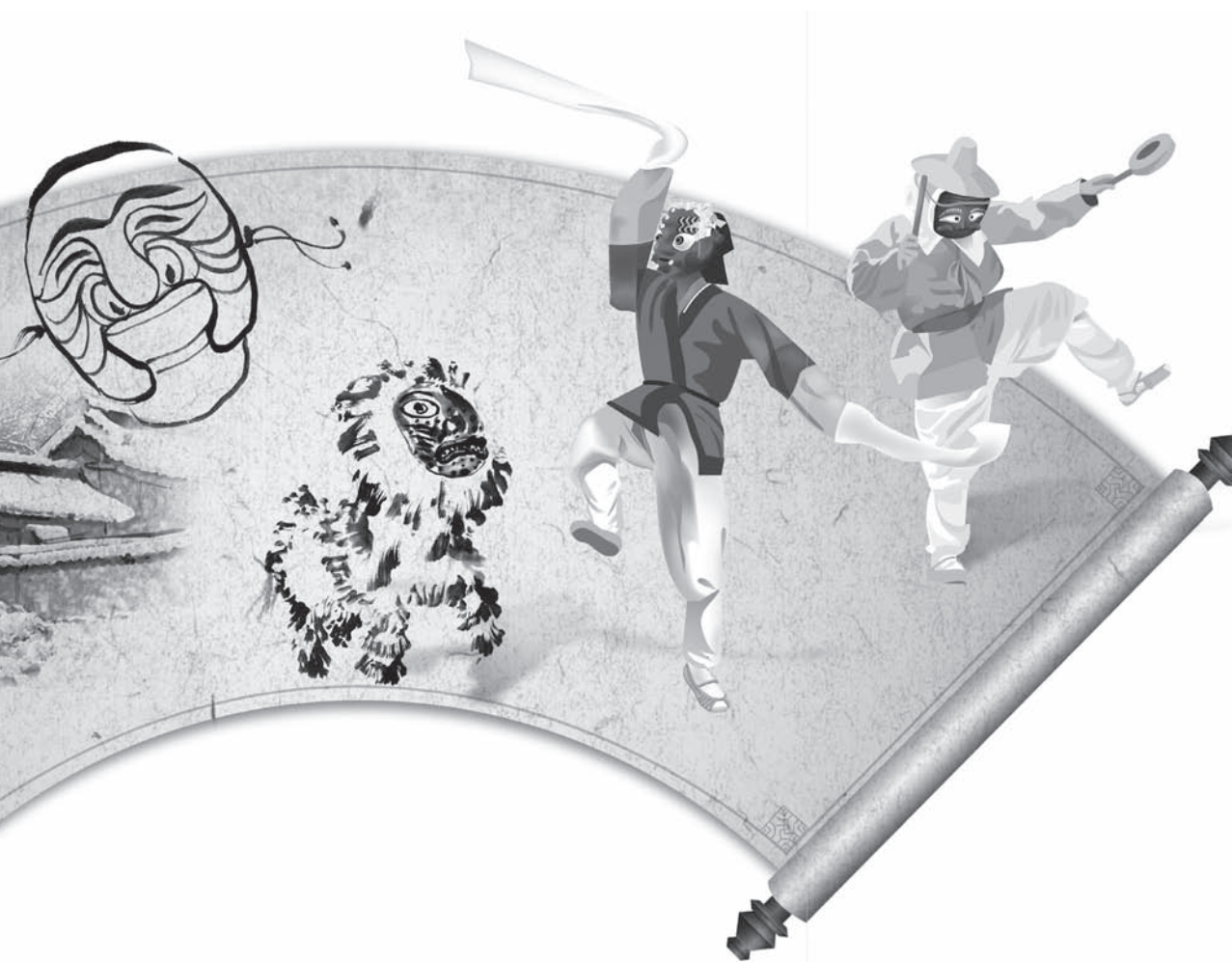
말장은 소생한 사자가 신명나게 놀면서 입을 맞추고, 입사자(立獅子)를 하는 등 기묘한 춤사위를 연출한다. 거사가 마당주위를 돌면 연기자와 관객들이 한바탕 신명나는 춤을 연출하고 한쪽에 위치한 집에서



영감과 노친이 나와서 재앙과 잡귀를 몰아내는 의식을 벌인 후 아이들 사자에 태우고 벽사진경과 안과태평을 기원한다. 영감과 노친은 꼭쇠에게 쌀과 엽전을 주고 신명나게 춤추기를 권유한다, 온 부락 사람이 나와서 한바탕 춤을 추고 마지막에 마을의 최고 어른인 존위에게 마당놀이 마지막을 보고하면서 대동놀이를 마무리한다.

5. 산악관 관련된 무형문화

- 1) 신흥사 범패
- 2) 설악산신맞이놀이굿



IV. 結論

선사시대부터 속초지역은 산과 바다, 호수와 평야 그리고 하천이 공존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삶 속에서 생활했던 선인들은 오랜 세월동안 거친 파도와 척박한 평야를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고유한 삶의 방식과 다양한 문화를 형성해 왔다.

호수와 관련된 만천동 나룻배싸움놀이는 청초호와 영랑호의 아름다운 호수에 대한 신성성과 농경문화의 소중함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평야와 관련된 도문 메나리와 도리원 농악은 힘겨움 속에서도 낙천적인 성격과 삶의 지혜와 주민들의 유대감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바다와 관련된 든대질 놀이와 용왕굿 놀이에서 삶의 지혜와 전통적인 신앙을 이해할 수 있고, 신비로울 정도로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다양한 놀이 문화와 무형의 문화를 통해 전통적이고 고유한 속초지역의 특색 있는 민속문화를 만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조사를 실시하며 느낀 속초 무형문화 발전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이 문제는 속초에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닐 것이다. 또한, 강원민속예술축전이라는 공연예술의 경연대회에 따른 보편적 문제점일 수도 있다.

문화는 자연적으로 생성, 소멸한다. 그러므로 민속은 ‘오래된 전통’이 아니라 ‘오래된 미래’일 때 의미가 있다. 단순히 과거에서 내려온 만들어진 전통이 아니라, 현재와 부단히 대화하며 생산되는 문화적 결과이자 진행형이라는 의미이다. 이러한 민속문화 중 예술성을 강화한 것이 민속예술이다. 특히, 이 글에서 다루는 민속예술은 연희적 성격이 강한 민속놀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연희란 관념적 가치의 세련된 형상화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생활 속에서 만들어진 ‘공동체 예술’을 뜻한다. 그럴 때 민속예술은 오늘날의 삶과 연결된 예술의 지위를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속초의 민속예술은 성과와 한계를 뚜렷하게 보여준다. 1980년대까지 민속예술은 과거의 고증과 재현에 최선을 다했으나 제대로 된 예술성을 확보하지는 못했다. 다만, 여전히 남아있는 생활민속으로 공동체 성격을 강화하여 우리 삶의 근저에서 만날 수 있는 생활예술의 형태였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 생활환경과 도시구조가 바뀌면서 공동체는 옹어지게 되었다. 그때, 속초문화원과 갯마당은 단체가 마을 중심의 민속문화를 대체하며 이끌어 나가게 된다. 이 때 안타까운 점은 출전팀 구성이 민속보존회 구성으로 연결되지 못했다. 1990년대까지 어업과 산악, 평야 등 다양한 형태의 민속예술이 재현되었으나 공동체 구성에 이르지 못하여 일회성 경연참가로 끝났다는 점은 두고두고 아쉬움으로 남는다. 마을 단위의 주민자치조직에 마을공동체 성격의 민속예술연희 보존회를 조직화하였다면 지금 속초의 문화는 더욱 다양하고 깊어졌을 것이다. 이러한 반성은 2000년대 들어 도문농요보존회와 속초북청사자놀이보존회 탄생의 계기가 되었다.

속초도리원농악은 보존회가 결성되어 있지 않지만 속초시의 지원 아래 속초문화원이 매년 전승활동을 하고 있다. 한계도 있다. 보존회 설립과 운영이 주민조직이 아니라 공무원, 지역출신 명망가, 향토사학자에 의해 이뤄지다 보니 일상적 전승활동이 미약하다. 보조금에 의존하는 전승활동은 마을단위 주민조직의 자발적 생활문화 전승활동을 따라갈 수 없다.

민속예술은 현재와 대화하고 미래의 전통문화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행정과 전문가에 의한 연출도 중요하지만 결국 마을공동체의 복원에 따른 생활문화전승의 기반 확립에 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건립된 속초도문농요전수관과 속초 북청사자놀이보존회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다. 속초도문농요전수관은 설악산의 관문이자 지역 고유의 문화정체성이 살아있는 상도문에 위치하여 무형문화의 콘텐츠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민속문화의 예술성을 높이고 전승기반

을 넓히며 마을공동체의 복원이 지역경제활성화와 연결될 수 있도록 세심한 프로그래밍이 필요하다.

속초 북청사자놀이보존회는 무형문화 전승기반의 확립을 위해 참여주체들이 스스로 조직한 단체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단순히 민속문화의 전승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원소스 멀티유즈’의 개념으로 마을축제와 콘텐츠 상품, 그림자극이나 인형극 등으로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한다.

위의 두 단체가 제대로 성공하게 된다면 속초의 민속예술은 진일보한 평가를 넘어 속초문화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다. 또한, 무형유산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문화가 지역의 중심이 되는 바로미터로 인정받게 된다. 이를 통해 80년대와 90년대에 민속예술로 재현하였으나 지금은 전승기반을 갖추지 못해 사라질 위기에 놓인 작품을 마을단위 공동체 문화로 재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민속이란 결국 지금까지 살아남은 생활문화의 절정이며, 민속예술은 주민의 삶에 내면화된 형태일 때 가장 빛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주민의 삶에서 벗어난 과거의 민속을 재현하는 것보다 현재 우리의 삶터에서 살아 숨쉬는 ‘미래의 민속’을 가지 있게 만들고 소중하게 전승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다. 그것은 축제로 표현되기도 하고, 다양한 콘텐츠로 만들어지기도 할 것이다. 민속의 현재성과 민속예술의 대중성에 대한 논의를 기대하며 마무리한다.

[참고문헌]

장정룡, 속초의 향토민속, 1992.

장정룡, 속초시의 어로민속지, 1997.

장정룡, 속초지역의 구전설화집, 1999.

속초문화원, 속초문화, 2003.

속초시지.

택리지.

2014 속초문화원 문화예술교육

기획

- * 꿈다락토요문화학교
- * 설악문화나눔 친구들
- * 어르신문화동아리_돈돌라리



꿈다락토요문화학교

꿈다락토요문화학교 전담인력 이희진

2014 속초문화원 꿈다락토요문화학교 '놀이 배우는 3색(色)문화학교'



영화 <허드서커 대리인>에서 ‘노빌’이라는 시골 청년은 홀라후프라는 세기의 발명품을 만들어낸다. 미친 듯이 원(Circle)에 집착하는 그의 열정이 낳은 획기적인 아이디어의 결과물이다. 킬더의 ‘모빌(Mobile)’, 마르셀 뒤샹의 ‘샘(Fountain)’, 피카소의 ‘울고 있는 여인(Crying Woman)’ 또한 혁신적인 발상과 가치의 전환이 가져온 일대 ‘사건’이다. 이들의 공통된 특징은 아무것도 없는 무(無)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낸 것이 아니라 이미 주변에 존재하고 있는 사물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창의적 발상은 반드시 특별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재능이 아니다. 평범한 사람도 얼마든지 멋진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 그렇다면 창의성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답은 교육이다. 더 엄밀히 말하면 기초 교육에 충실해야 다음 단계인 응용과 창의적 발상이 가능해진다. 글을 읽을 줄 알아야 다양한 분야의 문학을 읽을 줄 알고 그림의 기초인 스케치를 할 줄 알아야 그림을 그릴 줄 아는 것처럼, 기초교육은 창의성의 단단한 땅과 같다. 창의성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상상력’이다. 다양한 체험은 상상력을 기르기 위한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다른 사람의 상황에 처해보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상상력은 창의적인 생각을 낳게 한다.

2년차에 접어드는 꿈다락토요문화학교에서는 ‘놀며 배우는 3색(色)문화학교’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예술장르에 대한 문화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 진행했다.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랩, 인형극, 영화 등 3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향유자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 재미있게 놀며 표출된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했고, 중복수혜 또한 가능하게 하였다. 프로그램은 놀이+문화탐방+결과물 제작으로 진행되었고 기수 별 수료식과 함께 발표회를 진행해 프로그램의 과정을 가족, 지역사회와 공유하게 하였다.

1. 1기 프로그램 : 랩으로 놀자

1. 2 차시 : 연극놀이로 마음 열기

부모님과 함께 하는 시간으로 앞으로 진행될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했다. 또한 서먹한 관계를 친밀한 관계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연극놀이를 진행했다. 진행하는 선생님보다 아이들이 더 적극성을 띄었으며, 본인들이 주문을 바꾸는 등 창의성을 나타내기도 했다.

3차시 : 관외문화탐방

아이들과 부모님과 함께 창경궁을 탐방한 후 대학로에 가서 ‘삼봉이발소’를 관람했다. ‘삼봉이발소’는 네이버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한 ‘외모’에 관련된 연극. 내용이 또래 아이들의 호기심을 반영한 것이라 관람하는 내내 몰입을 할 수 있었고, 마지막엔 연기자들과 촬영하는 시간도 가졌다.

4차시 : 비트에 맞춰 자신만의 랩 만들기

힙합과 관련된 영상물을 통해 ‘힙합’이란 장르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고, 힙합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찾아보고, 한 요소인 비트를 가상악기를 통해 재현해 보기도 했다. 지금 느끼는 감정 그대로 쓴 글을 ‘나의 랩’으로 만들어 비트를 넣고 불러 보면서 힙합에 대한 흥미도를 높이는 시간으로 진행했다.



5~7차시 : 비트에 맞는 작사 방법을 익히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담은 모듬곡, 단체곡 만들기

다양한 가상 악기를 이용해 비트를 만든 후 그 소리들이 어떻게 어울리는지를 배웠다. 자신들의 이야기를 직접 쓴 후 비트와 혹은 섞어 모듬곡을 만들었다. 바다, 자유, 소풍 가는 날, 자전거 타고 가는 길 등 다양한 소재들이 나왔으며 그 중 '무지개'를 단체곡의 주제로 만들었다.



8~10차시: 연습, 총연습, 그리고 녹음

모듬별로 주제도 다르고, 진행 방법도 다른 랩들이 나왔다. 적극적인 친구들이 많은 2모듬은 연습뿐만 아니라 랩의 완성도 또한 뛰어났다. 1모듬은 쑥스러워하는 친구를 배려해 랩을 만드는 모습을 보였다. 3모듬은 제일 적은 인원으로 연습이 힘들었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습, 또 연습을 한 후 녹음실을 가서 녹음을 했다. 한 곡이 완성되기까지 얼마만큼의 노력이 필요한지를 녹음실에 들어 가서 느꼈다는 한 친구의 말에 모두가 공감하는 시간이었다.

2. 2기 프로그램 : 인형극을 만들며 놀자

1차시 : 엄마와 함께 오리엔테이션. 관계 맺기

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 소울시어터 선생님들과 연극놀이를 진행하였다. ‘거짓말을 한 적 있는 사람’ 등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의자뺨기게임을 진행하면서 또래, 부모님과과의 사이에서 공감도와 이해도를 높였다. 몸을 인형으로 표현하기 게임은 아이들의 계획과 부모님들의 계획을 표현하면서 서로가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졌다.

2차시 : 몸과 마음을 놀이로 풀기

엄마와 함께 하는 연극놀이를 관계 형성을 목표로 진행했다. 속도를 달리하여 움직여 보기, 자신과 닮은 자연물을 선택하여 발표하기, 몸으로 그림 만들어 보기 등 몸을 이용한 활동으로 진행하면서 적극성과 표현력을 높이려고 했다.

3차시 : 연극놀이를 표현력 향상

인형극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표현력, 발표력, 적극성, 집중력을 연습하기 위해 다양한 연극놀이를 진행했다.

4차시 : 관외문화탐방

서로간의 친밀도를 높이고, 타 지역의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 ‘국립중앙박물관’을 견학하고 뮤지컬 ‘마이맘’을 감상했다. 해설사 선생님의 문화재 이야기를 들으며 어느 때보다 역사에 관심을 가질 수 있었고, 스토리, 배경, 인물 등에 집중하며 ‘마이맘’을 감상했다.

5차시 : 인형극 감상

‘까치밥 이야기’와 ‘어린 양아 어딴니’ 인형극을 감상하면서 인형극에 필요한 요소들을 찾아보았고, 두 인형극을 비교하면서 다양한 표현방법도 배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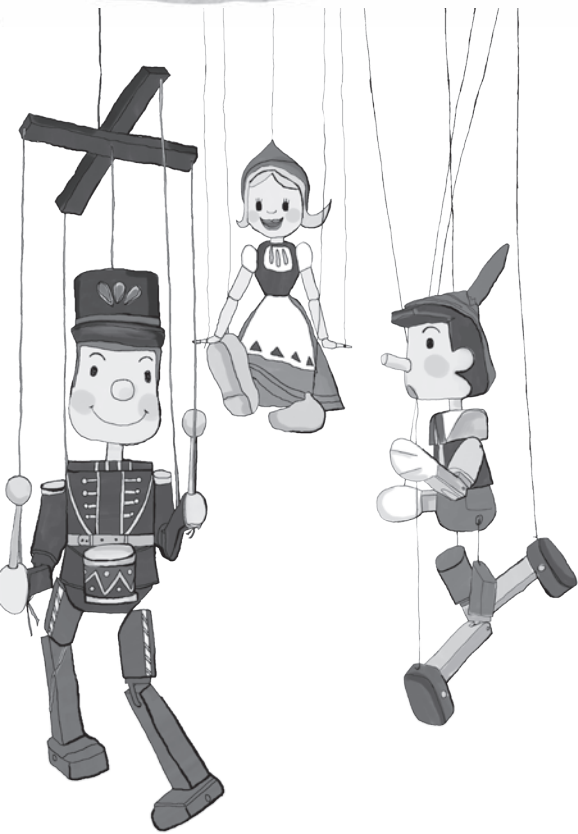
6차시 : 인형극 대본 쓰기

인형극의 주제를 정하고 대본을 썼다. 우정, 가족, 전쟁, 환경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였고, 3개의 모둠에서 3가지의 이야기를 만들기 위한 밑그림을 그렸다.

7차시 : 완성한 인형극 극본 배부 및 대사 연습, 인형 스케치하기

극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서로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으며, 대사나 배경 줄거리 등을 계속 고쳐나갔다. 인형극에 대한 재료를 알아보기 위해





인형극을 다시 감상했으며, 그 결과 3모듬에서 다양한 결과물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8차시 : 인형 만들기

배역을 정하고 인형을 만들기 시작했다. 종이로 만들고 천을 이용해 만들고, 배경 또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들기 시작했다.

9차시 : 인형 및 무대 배경 만들기 완성, 음향효과 선정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스스로 필요한 것을 적극적으로 찾기 시작했다. 음향을 찾아서 넣기도 하고, 배경을 자연스럽게 바꾸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계속하면서 최상의 것을 찾아냈다. 목이 움직이는 인형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면서 점점 완성도를 높여갔다.

10차시 : 인형극 총연습 및 발표

그 동안 만들고 연습해 왔던 것을 총 마무리한 시간. 배경음이 적절히 들어가 완성도를 높인 1모듬, 목이 움직이는 인형으로 공포이야기를 재미있게 만든 2모듬, 박스를 이용해 돌아가는 배경을 만든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돋보인 3모듬. 촬영까지 하면서 그 동안 진행했던 프로그램을 마무리했다.



3. 3기 프로그램: 영화를 만들며 놀자

1차시 : 교육 프로그램 이해 및 친밀감 형성

1, 2기와 마찬가지로 소울시어터 연극선생님과 앞으로 진행 될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 다양한 연극 놀이를 진행했다. 자신에게 붙여진 다양한 별칭들에 재미있어 했고, 수건 돌리면서 단어 맞추기 게임은 어머니들도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2차시 : 관외문화탐방

연극 ‘안나라수마나라’를 관람했다. 웹툰이 원작인 ‘안나라수마나라’에서 나오는 ‘마술사가 있다고 믿습니까?’는 중독성이 강해 아이들이 따라하는 모습을 보였고, 삼봉이발소보다 더 다양하게 변화를 주는 무대장치 효과는 연극에 대한 매력에 푹 빠지게 했다.

3차시 : 엄마와 함께 하는 연극놀이를 관계 형성

영화 촬영에 필요한 내용이나 영화와 친해지기 위한 다양한 게임을 진행했다. 자신의 이름에 담긴 의미를 설명하고, 손가락을 이용해 자신을 설명하는 게임은 자신감을 갖도록 했고, 과일 샐러드 게임은 영화의 요소인 ‘대사’를 연습하는 시간이었다. 만화캐릭터와 영화 제목 말하기 게임은 영화에 흥미를 갖도록 유도하면서 진행했다.

4, 5차시 : 작품 창작과정에 대한 이해도 높이기

먼저 5편의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선정한 후 장면이나 제목을 몸으로 설명하면서 상대방이 맞추도록 했다. 맞추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얼마만큼 설명을 잘 하느냐에 포인트를 두었다. 두 번째엔 짧은 시간동안 시나리오를 만들고 5컷짜리 영화를 만들었다.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5장면에 휴대폰 영상으로 찍은 다음 연결해서 영화를 만드는 작업이었다.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흥미도를 높이고, 완성도가 높은 영화를 만들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배우게끔 진행되었다.

6~8차시 : 시나리오 만들기, 배역 및 스텝 촬영장소 정하기

겨울왕국의 엘사와 안나의 대사와 행동을 보며 주인공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했는지를 찾아가며 자연스럽게 시나리오 작업을 경험하게 했다. 그 후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며, 그것을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며,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제일 큰 요소들은 무엇인가를 찾으며 시나리오를 자연스럽게 써 나갔다. 영화의 요소를 찾아보며 스스로 역할을 찾게 했고, 시나리오를 다듬으며 촬영하기 위한 준비를 점검하는 과정을 되풀이하며 진행했다.

9, 10차시 : 영화 촬영하기

영화 촬영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본 후 각자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을 이용해 영화촬영을 시작했다. 촬영장소도 문화원 외를 이용해 현장성을 주었고, 실감나는 연기를 위해 분장도 마다하지 않았다. 어색한 부분들이 없게 소울시어터 선생님들이 각 모듬을 맡아 연기를 지도, 촬영했으며, 미진한 부분은 다시 추가 촬영을 해 완성도를 높였다.

교육은 사회 속에서 사람들에게 배움의 경험을 주고 성적과 상관없이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기반과 힘을 줘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 대한 정체성. 자기정체성에 빠질 수 없는 부분이 자신이 나서 자라고, 생활하고, 느끼고, 성장한 지역 또는 고향이다. 자신의 지역에 대한 사랑이나 지역 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개인은 물론 공동체의 자기정체성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 지역이란 결국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자기 자신을 규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준거 틀로 작용한다. 지역에서의 문화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결정하고 자존감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의미의 연장에서 보면 속초문화원 꿈다락토요문화학교는 자라나는 어린 학생에게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지역사회를 ‘문화’라는 이름 속에서 알게 하고, 생각하게 하며, 만들어갈 수 있게 하는 장을 열어주고 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목, 시도하면서 어린 학생들이 문화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고 익힌 것들을 통해 본인의 꿈을 꾸고,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면서 자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이런 장에서 맘껏 뛰노는 어린 학생들이 어떤 모습으로 자랄지, 또 어떤 모습으로 이 지역의 문화를 만들어갈지 궁금하다.



설악문화나눔 “친구들”

설악문화나눔친구들 회장 양인옥

설악 문화 나눔 ‘친구들’은 2012년 4월 속초문화원의 3개년 사업인 어르신문화학교 ‘풀뭉음문화나눔봉사단 육성’과 더불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구연동화와 손유희를 배우며 21세기 동심들과 만나기 위해 약 5개월간에 걸쳐 기초교육과정을 마쳤으며, 더 나아가 ‘봉사활동을 왜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하는지, 문화 봉사 활동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심화과정을 거쳐, 2012년 겨울, 아동센터에 첫발을 내딛으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수료를 하기 위한 의무적으로 조를 짜서 크고 작은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묵혀 놓고 있었던 동화와 이야기들을 꺼내고, ‘아이들보다 굶뜨면 어떡하나?’ 같은 걱정들을 가지고 두려움 반, 설렘과 기대 반을 섞은 마음으로 아기자기한 종이접기나 동화구연과 손유희를 어색하게 시작했

습니다. 그러나 어색하고 서투른 활동도 하고나면 행복했고 뿌듯했기에 자발적인 봉사활동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어린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동자와 천진난만한 장난기들이 우리들의 가슴을 녹이며 차츰 자신감도 생겨났습니다. 이런 저런 시행착오를 거치며 다양한 수업준비를 연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3년에는 노인복지센터, 어린이집, 아동센터, 방과후 돌봄교실 등



대상을 가리지 않고, 1년 동안 100여회에 걸쳐 전통문화(사물놀이공연 및 체험, 민요, 고전무용), 동화 구연, 종이접기, 북아트, 노래와 율동, 민속놀이 등의 콘텐츠로 문화 봉사 활동을 하였으며, 지역아들과 어르신들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 하였습니다. 처음 노인복지센터에 나갈 때는 어르신들이 또 다른 어르신들에게 뭘 할 수 있을지 걱정하면서 커다란 기대를 갖진 않았지만, 수족을 쓰지 못하고 휠체어에 앉아계신, 예전에는 다 내 자신 같았던 또 다른 친구들을 보면서 절망감이나 패배감보다는 그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감대를 찾기 위해 더욱 노력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고나서는 자체 워크숍을 통해 그날 활동의 장·단점과 좋았던 점, 고쳐야할 점, 보완할 점 등을 찾았으며, 신·구세대 간에 부딪혔던 정서상의 문제도 어루만져가며 아이들의 입장에서 아이들을 보는 눈을 길렀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잠자고 있었던 어린 시절의 추억을 꺼내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기도 하고, 잠재되어 있던 자신만의 재능도 발굴해 나갔으며, 그렇게 발굴된 재능을 다시 나눔으로써 속초의 문화발전에 한 몫을 당당히 굳혀갔습니다.

우리들의 이런 노력으로 인하여 올 2014년에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확대되어, 그동안 봉사활동으로 나갔던 초등학교 돌봄교실, 아동센터,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여 지역사회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깊은 산 속 맑은 샘물처럼 새로운 열정들이 샘솟는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배울 것이며 또한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 신·구세대 간의 전통 문화 전수와 정서의 교감을 나누는 21세기 맞춤형 봉사 활동의 선구자가 될 것입니다.



재능을 나누는 일이 이렇게 기쁜 줄 몰랐어요

INTERVIEW

설악문화나눔친구들 인터뷰

2014년은 어르신문화학교의 '문화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자리를 잡은 해로 기록된다. 기초반과 고급반 구성, 속초시니어클럽과의 협약에 의한 노인일자리사업으로의 확대에 이어 '설악문화나눔 친구들'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면서 조직의 면모를 갖추었기 때문이다. 아직 길은 멀지만 함께 할 동지는 여럿이어서 즐겁다는 어르신문화자원봉사단. 이날도 워크숍 때문에 문화사랑방에 모이신 분들 중 이성원, 백금자, 함민자 어머니를 속초문화원 원장실에서 인터뷰 하였다.



김인섭 : 안녕하세요.

일 동 : 안녕하세요.

김인섭 : 오늘도 어김없이 문화사랑방에 어르신들이 모이셨는데요, 몇분 정도 오세요?

이성원 : 기초반, 고급반 합쳐서 29분이세요. 다들 바쁘시고 개인적인 사정이 있기 때문에 평균 20명 남짓이 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인섭 : 오늘 워크숍의 주제는 뭐죠?

백금자 : 그동안 동화구연이나 레크레이션 방법 등을 배웠는데, 요즘은 아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민속놀이를 배우고 있어요.

김인섭 : 그렇게 다양하게 배우시면 헛갈리지 않나요? 한 가지만 해도 조금 벅찰텐데

백금자 : 저희가 아주 높은 수준의 내용으로 만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다가갈 수 있는게 더 좋아요.

김인섭 : 이번에 모임 이름도 바꾸셨다면서요. 예전에는 속초의 한글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 풀뭉음문화봉사단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바꾸셨죠?

이성원 : 우리 활동지역이 속초에 머물지 않아요. 양양이나 고성에도 다니다 보니까 영북지역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이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설악문화나눔이라고 바꾸었고,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가고 싶어서 문화봉사단이라는 이름보다 친구들이라고 붙여보았어요. 설악문화나눔 친구들이라고 말이죠.

김인섭 : 조금 긴데요? 줄인 말로 문화친구들 어떠세요?

일 동 : 좋네요. 앞으로 문화친구들이라고 줄여서 부르면 될 것 같아요.

김인섭 : 이제 공통 질문 하나 들어갈게요. 다들 손주 손녀 보시고(?) 개인 용무도 바빠실텐데 어떻게 문화자원봉사자 교육에 참여하시게 되었나요? 앉으신 순서대로 말씀해주세요.

이성원 : 저는 오랫동안 교직에 몸담으면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았어요. 퇴직하고 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지역사회와 나누고 싶은 일을 찾다가 우연히 속초문화원의 어르신문화학교에 참가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뜻을 같은 하는 '친구들'과 함께 수혜처를 찾아다니고, 기획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있어요.

백금자 : 전 동화구연이 특기라면 특기라고 할 수 있는데, 아이들 5명 키우다보니 자연스럽게 익힌 재능이라고 할 수 있죠. 원래 다른 봉사활동을 했는데, 속초문화원 봉사 활동하면서 더욱 보람을 찾고 있어요.

함민자 : 초등학교 교사 퇴직하고 새로운 보람을 찾고 싶어서 지난해부터 어르신문화학교에 들어왔어요. 전 동화구연뿐만 아니라 전통놀이 등을 배우면서 즐거움을 찾고 있는데, 현직에 있을 때 바빠서 챙기지 못했던 걸 지금한다 생각하니 그 보람이야 말할 수 없네요.

김인섭 : 다들 직장 혹은 생활 속에서 익혔던 재능에다 뭔가 하고 싶다는 열정이 만나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막상 현장에서 활동하다 보면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또 어떻게 극복하는지 궁금하네요.

함민자 : 어떤 일을 하든 현장의 어려움은 존재하죠.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역시 개인마다 다양하고요.

백금자 : 제가 할 줄 아는 재능이 있다는 것과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일은 참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전 그래서 올해 자원봉사센터가 운영하는 자원봉사대학 11기 과정을 수료했어요. 마침 레크리에이션을 배웠는데 그런 배움이 일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더라고요.

이성원 : 노인복지센터 어르신들의 경우 일반적인 프로그램보다 색종이 활동이나 이렇게 더 좋은 효과를 보여줄 때가 있어요. 어느 일이트 우리가 만나는 분들이 자존감이 올라가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해요.

김인섭 : 마지막으로 우리 문화원에 바라는 점 하나씩 말씀해 주세요. 물론 다 들어드리진 못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향후 일을 준비하는데 있어 도움이 될 듯 싶네요.

이성원 : 재교육의 기회가 계속 주어져야 합니다. 워크숍이 좋은 형태인데 한달에 두 번 정도 회원들이 참여하는 자기주도형 워크숍이 있으면 좋겠네요. 또, 다른 지역의 사례든가 회원의 단합을 위한 문화탐방도 일년에 한두차례 개최되면 더욱 자부심을 느낄 수 있어요.

백금자 : 현재 기초반, 고급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앞으로 우리 지역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제대로 만드는 일이 선행되어야 해요. 조직으로 기반을 다지고 개인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면 문화나눔 친구들은 아주 오래가는 단체가 될 수 있겠죠.

함민자 :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누고 물건을 뇌둘 수 있는 전용공간이 생기면 참 좋겠네요. 연습도 그곳에서 하고요.

김인섭 :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요구하신 내용 모두 향후 진행되어야 할 것 같네요. 일의 순서를 정해서 문화친구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
나눔



속초문화원 어르신문화동아리 '돈돌라리아'

속초문화원 사업과장 이정무

속초문화원은 연극, 가야금, 사진, 문화나눔봉사단 등 어르신문화학교를 2007년부터 진행하여 지역어르신문화 활성화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호평을 받았다. 2014년도 풀뭍음문화봉사단 season3라는 어르신문화학교를 진행하기로 협의가 완료된 시점에서 다른 어르신문화자원 개발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2013년 강원민속예술축제에 참가하며 알게 된 '돈돌라리'와 실향민문화를 콘텐츠로 어르신문화동아리사업을 올해처음 시작하게 되었다.

돈돌라리는 함경남도의 부녀자들이 바닷가나 강변 또는 산에 모여서 춤을 추고 놀면서 부르던 춤과 노래로, 현재 함경남도 지방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되어 있다. 북청군에서는 한식 다음날 각 마을의 부녀자들이 남대천 강가나 속후의 모래산에 모여 달래를 캐며 지내다가, 오후가 되면 춤을 추며 노는 풍습이 있었다. 이 놀이 중 가장 많이 불려온 민요가 돈돌라리이다. 돈돌라리는 1920년대 일제강점기 중에 불려온 노래로 돈돌은 돌고 돈다는 뜻이라고 한다. 돌고 돈다는 것은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의미로서 일제가 물러가고, 식민지가 된 조국도 해방되어 원래의 상태로 돌아온다는 뜻을 내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지역에서는 청호동 아바이마을 실향민들을 중심으로 많이 불리어졌다가, 실향민 1세대들이 돌아가시며 점점 소리의 명맥이 사라져가고 있다.

이러한 고장에서 타 지역에서 듣도 보도 못한 함경도민요 교육, 사라져가는 지역문화의 복원과 홍보 등을 목표로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을 만들면 좋을 것이라는 판단 후 신천무용단 김민희 대표와 교육프로그램을 함께하기로 하였다. 사업시작 전부터 2013 강원민속예술축제에 참가

한 지역어르신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며 여러 신문보도와 라디오·TV방송 출연, SNS 등 다양한 홍보로 초반에 많은 공연문제가 와서 즐거운 합성을 질렀다. 하지만 세월호 사건으로 문화행사가 줄줄이 취소되며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선보일 자리가 없었지만, 어르신들은 즐겁게 민요와 무용을 배웠다.

고진감래라고, 열심히 씨앗을 뿌리고 텃밭을 가꾸던 중 하나하나 꽃이 피어나기 시작하였다. 속초북청사자놀이보존회와 함께 속초시립박물관 행사초청공연을 시작으로 공연의 퀄리티가 점점 좋아지기 시작. 홍천에서 열린 강원도권역별어르신문화축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진행한 2014어르신문화축제에 참가하여 “이러한 민요는 처음이다.,” “이 민요는 어디서 배울 수 있나?,” “정말 재미있다.” 등 관객들과 친인들의 호평을 받으며 어르신들의 자부심과 성취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그 결과 제 49회 설악문화제 문화동아리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우수상을 수상, 등대축제 참가 등 총 8회 공연을 진행하며 보람찬 1년을 보냈다.

이제 어르신들은 지역문화 전파단이라는 자부심 때문에 문화동아리 구성원이 아닌 문화활동가라고 스스로를 칭하신다. 그리고 공연만이 아닌 체험, 교육 등의 콘텐츠를 활용하여 지역문화를 다양하게 알릴 방법을 모색 중이다. 처음엔 어렸을 때 희미하게 흥얼거렸던 민요를 다시 배우기 위해 모이신 어르신들이 지금은 지역문화 알림이로 탈바꿈되어가는 과정을 보며 내년이 더욱 기대가 된다는 것은 나만의 생각만은 아닐 것이다.



소감문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공연하다.

2014년 9월 24일 “나이 없는 날 어르신문화대축제”

-돈들라리 공연단 이재남

옛것, 우리 문화 전통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항상 있던 나는 올 3월에 이 춤을 접하게 되어 관심과 흥미가 컸다. 함경도민들이 즐기던 놀이이며 춤인 돈들라리가 속초의 실향민 1세대는 거의 안 가서 사라지고 잊혀져가는 문화가 안타까워 문화원과 김민희 선생님께서 어르신들을 찾아 동분서주 하시는 열의에 힘입어 우리 동료들도 함께 마음을 모아 열심히 춤을 배웠다.

이 춤을 추다보면 옛 함경도민들의 삶과 애환, 그리고 회한에 빠져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한다. 서울 중앙박물관에서 공연요청이 왔었다는 것도 기뻐는데, 우리 속초팀은 공연 전에 기자들을 위해 공연을 미리 한번하고 본 공연을 한다고 해서 설렘과 긴장감으로 잠을 설쳤다.

공연 날, 서울 큰 무대 전국에서 뽑혀온 팀들, 수많은 휘황찬란한 조명 아래에서 우리는 두 번 공연을 했다. 우리의 전통 문화를 계승 재현한다는 것에 대한 감동과 자부심 긍지를 가져 보람과 기쁨이 더욱 컸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호응이 좋았고 작품성도 인정받았다. 기자분들, 사진작가님들의 인터뷰와 사진요청도 많았다.

우리민족의 얼과 정서는 누구나 공감아 되나보다. 우리 조상들의 투박한 듯 소박한 의상에서 소품까지, 한복 함지박 바가지 등 시골의정취가 묻어나는 멋스러운 이 매력에 나는 빠져들고 있다. 이 춤을 추면서 전통문화에 관심과 애정이 더 생기고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니 일석이조다. 나의 돈들라리에 대한 사랑은 꽃다발을 들고 축하하러 온 딸과 손녀들을 사랑하는 것에 못지않은 것 같다.



문화현장

- * 속초시장 후보 초청 문화 정책 간담회
- * 전문가 초청 포럼
- * 고행렬 신간



6.4 지방선거 속초문화예술분야 정책발표회와 5개 공약 채택

속초시장 후보 초청 문화정책 간담회

2014년 속초문화계의 가장 큰 결실은 지방선거에 속초 문화예술계의 염원을 담았다는 점이다. 설악신문사와 속초문화원, 속초예총, 속초민예총은 지난 5월 13일 오후 2시 문화회관 소강당에서 ‘6.4 지방선거 속초문화예술분야 정책발표회’를 개최했다.

장재환 설악신문 편집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정책발표회는 정책발표회 취지 설명, 문화예술 정책 발표,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되었다. 첫 제안자로 나선 김인섭 속초문화원 사무국장은 ‘지역문화진흥법 발효에 따른 문화예술계 대응’이라는 주제로 지역문화진흥법의 의미를 분석하고 향후 속초 문화예술계가 지향해야 할 발전전략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제안으로는 생활문화진흥을 위한 조례제정 및 공간지원, 문화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 반영, 문화예술기금 확충을 위한 메세나 제도의 적극 추진, 문화재단의 설립과 문화단체 업무분장이다. 두 번째로 나선 이수영 속초예총 사무국장은 ‘문화예술시설 현주소와 복합문화예술센터 조성’을 통해 지역 예술계의 오랜 숙원인 문화공간을 중점적으로 제안했다. 이 제안의 중점은 단순히 문화공간의 건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속초시 관광과 함께 할 수 있는 관광문화예술지대로 조성하여 예술과 지역발전 두 축의 관점에서 제안한 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비어있는 건물을 예술인이 입주하여 도심을 활성화하는 사업도 함께 제안하였다. 이어서 최동훈 속초민예총 문학협회장이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지역발전의 상관성 및 문화예술정책의 효율성’을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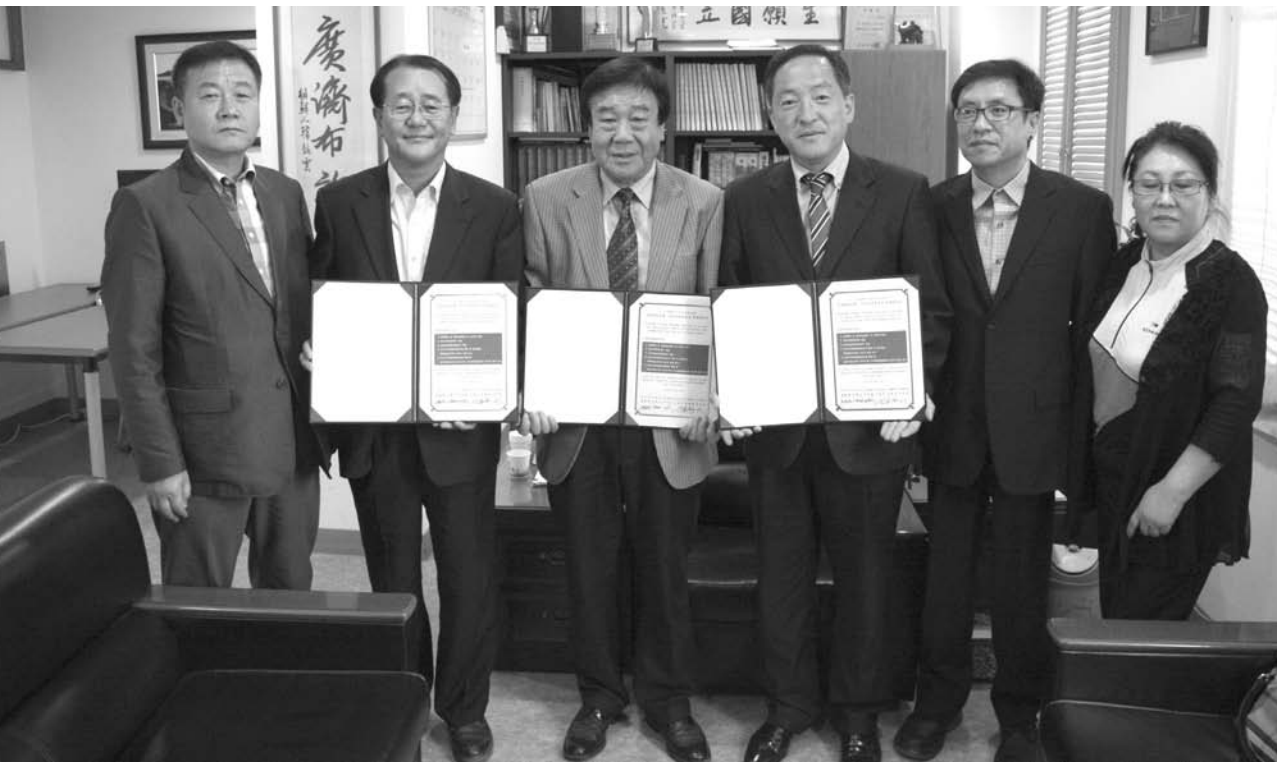
제로 다양한 측면의 문화예술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중요 제안내용을 보면 지역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전주의 시민놀이터나 성남의 문화사랑방 같은 사업, 부산의 감천마을같은 지역문화 브랜드 개발을 위한 단계적 실천방안을 수립하고, 장소 마케팅에 의한 문화예술 테마공간의 조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축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여 마을 단위 공동체 소규모 축제기획단을 구성하여 지역 고유의 축제문화를 만들 것을 모색해 보았다. 이밖에 기초 문화예술진흥 재정을 1.5%로 확대하고, 속초시 관광진흥협회를 속초시 문화관광진흥협의회로 개선하여 문화와 관광의 동반 성장을 제안했고, 3천만원 이상의 문화사업의 경우 사후 평가제를 실시하는 것은 물론 시 행정의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제안했다.

3개 문화단체는 발표 이후 실무자 협의를 거쳐 5가지 중요공약을 채택하여 16일 속초문화원 원장실에서 지방선거 시장 후보자와 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문화예술단체와 시장후보들이 협약한 정책은

- ※전체예산 중 문화예술예산 2% 의무적 편성
- ※속초지역문화재단 설립
- ※속초복합문화예술센터 건립
- ※속초시지역문화진흥조례 제정 후 공유재산 문화예술단체에 우선적 임대 실시
- ※속초시지역문화진흥조례 제정 후 설악로데오거리 공가를
속초문화예술인에 우선적 임대 실시 등 5가지다.

문화예술단체들은 시장후보들과 협약을 맺은 뒤, “문화현장을 보면 ‘문화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의 기초’라는 말이 나온다”며 “속초의 기초를 더욱 튼튼하게 다지기 위해 문화예술이 진흥되어야 한다. 후보자들이 당선 후에도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올해의 관광도시 신청을 위한 전문가 포럼 개최

전문가 초청 포럼

아바이마을, 갯배, 대포항, 영금정, 오징어순대, 닭강정, 설악산, 동해 바다, 영랑호, 청초호, 척산온천. 주말마다 관광객으로 들끓는 속초의 인기 관광자원이다. 인근의 도시는 속초의 자연환경과 관광객 유입을 부러워한다. 대규모 축제나 매력적인 하드웨어 구축으로도 속초의 주말을 따라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불안하다. 속초의 미래를 상상하고, 현실을 살아가는 지역민에게 속초관광의 현재가 불안하다. 마치 완성되지 못한 밑그림에 누군가 채색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정교한 계획이 수립되고 그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라 1박 2일 같은 미디어, 주5일제라는 외부환경, 설악산과 동해바다 등 전통의 자연환경이 어우러진 결과이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정부에서 시행하는 '올해의 관광도시' 공모사업은 불안감을 현실적으로 보여준다. 시대적 변화에 따른 새로운 관광의 흐름이 형성되고 많은 지자체가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이다. 속초문화원이 주관한 전문가 초청 강의 '관광을 보는 시각 변화와 속초관광의 미래를 위한 준비'가 개최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전 세계적인 관광 흐름의 변화를 살펴보고, 올해의 관광도시라는 제도가 마련된 이유와 선정되기 위한 조건을 모색해 보는 시간이 필요했다. 속초문화원은 문화예술이 지역의 삶과 유리되지 않기 위해서는 관광을 견인하여 차별화된 콘텐츠를 만들기를 바란다. 그 첫 번째 모색의 시간으로 이 행사를 마련했다.

추미경 강사(문화다움 상임이사)는 한국 관광의 전개과정을 살펴보면서 관광을 보는 시각의 변화를 주문했다. 기존의 획일적 프로그램, 유명 관광지의 일회성 방문, 하드웨어 중심의 관광에서 고유한 자연과 문화, 지역민의 삶이 관광의 콘텐츠로 확장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관광에 대한 국제적인 흐름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 흐름의 정점은

창조관광이다. 관광객의 욕구를 단순충족 시키는 대중관광이나 차별화된 콘텐츠로 승부하는 문화관광에서 최근에는 도시의 이미지나 정체성, 라이프스타일 등 무형적 관광자원을 구매하는 창조관광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부가 올해부터 시행하는 ‘올해의 관광도시’ 공모는 이러한 흐름을 반영한다. 관광의 잠재성이 큰 중소도시를 선정하여 콘텐츠·상품개발·컨설팅 등 체계적 지원을 통해 매력적인 관광 목적으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지역주민과 외부전문가, 지자체의 네트워크가 중요

2014 올해의 관광도시에 선정된 도시는 제천, 통영, 무주이다. 제천은 힐링, 통영은 문화예술, 무주는 레저스포츠를 통합적 관광 이미지로 기획하였다. 선정 도시는 올해부터 2016년까지 콘텐츠와 상품개발, 환경개선과 홍보마케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 등 새로운 패러다임의 관광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추미경 강사는 문화와 관광의 융합을 통한 장기적 관점의 ‘기획’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지역 고유의 자원, 삶과 문화에 대한 재인식과 가치화가 지역의 통합적 비전과 연계되어야 한다. 생활공동체로서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가 활용되어야 하며, 하드웨어 건설이 아니라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체계의 확립, 최소 10년 후를 내다볼 수 있는 기획과 준비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속초의 모델은 무엇일까? 그는 이웃사례의 모방보다 지역 고유의 사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통영이 문화적으로 급부상한 이유는 고유의 문화자원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지자체의 활발한 네트워크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자원의 통합적 이야기구조 속에서 문화, 관광, 산업, 마을, 예술 등의 다양한 영역을 연결하고, 지역 내부/외부와 원활한 소통구조를 구축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그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주문했다. 추미경 강사는 속초의 관광 자원은 각각이 훌륭하지만 그 전체를 아우르는 컨셉이나 일관된 기획, 인적 네트워크의 부재를 위험요인으로 보았다. 집을 짓기 위한 각각의 재료는 좋으나 디자인이나 컨셉이 없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관광 도시가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의 자원을 재점검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일이 필요하다. 지역에 대한 인문학적 가치를 부여하고, 예술로 디자인하며, 문화로 통합적 가치를 만드는 일. 그 시작은 주민들이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을 발굴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와 함께 외부 전문가의 기획이 합쳐질 때 속초관광의 밑그림이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대안도 참석자에 의해 제기되었다. 속초시립박물관이 기획하는 ‘문화기획인 학교’나 관광과의 ‘관광아카데미’같은 주민 교육에 의해 관광자원과 네트워크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지는 속초 고유의 관광기획에 대한 논의는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한다.

(설악신문 시민기자 원고 재수록_2014_11_18)

사진리를 호출한 시인의 추억

시인 고형렬 문학앨범 [등대와 뿔]

고형렬 신간

시인은 퍼즐이라고 했다. 비역사적인 기록이라 했고 후일담을 넘어 하나의 작품을 남기고 싶다고 했다. 속초 사진리 태생의 시인 고형렬이 최근 발간한 <등대와 뿔> 서문을 통해 이 책의 의미를 되짚을 수 있다. 유년기 속초 시절부터 현재의 삶과 문학을 관통하는 자전적 에세이는 시인의 망각 속 심연에서 건져 올린 조각모음이다. 하지만 우리는 책을 다 읽고 난 후 설악을 닦고 싶었던 사내의 고백과 아직 끝나지 않은 마지막 퍼즐 하나를 완성하고 싶은 그 열망을 감지할 수 있다.

<등대와 뿔>은 모두 8개의 장으로 구성된 연대기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1장에서 4장까지는 출생과 가족사적 배경, 유소년 시절의 속초 바다와 설악산에 대한 추억, 여동생과 아버지의 죽음, 문학 소년으로서의 독서와 꿈과 방향과 가출 등으로 이어지는 성장과정을 추억해보고 있다. 5장은 속초에서 먼서기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시인으로 등단을 하고 결혼을 하는 과정이, 6장에서는 먼서기를 그만 두고 속초에서 설악을 넘어 서울에 정착한 후의 본격적인 창작과 문단 활동, 청장년 시대의 과정 등을 되돌아본다. 7장에서는 지은이가 창작활동 외의 문학 활동으로써 특별히 시 전문 계간지 <시평>을 창간하여 이를 바탕으로 아시아를 무대 삼아 문학적 교류를 해왔던 성과와 의미를 짚어본다. 그리고 마지막 8장에서는 그간 자신의 창작성과를 반성적으로 되짚어보며 미래를 예감해 보고 있다.

이 책은 단순히 자전적 에세이에 그치지 않는다. 유년기의 추억에서

현재를 보고자 하는 시인의 열망은 속초의 옛사진 300여점이 수록되어 입체적인 재미를 준다. 특히, 속초라는 공간에 대한 시인의 성찰은 지역의 문화사적 의미에서 축복이나 다름없다. 모래기와 째복국, 사진리 앞바다에서 첫 살생을 했던 추억, 그 앞의 형제섬, 바람을 연주하는 보망장이, 비만 오면 들려오던 사진리 여자들의 장구소리, 모래기라는 지구별에서 모랫볼 잠자리를 하며 놀았던 유년의 묘사는 속초 주민의 생활사를 생생하게 건져 올린 첫 그물질이라고 해도 손색없다. 그러니 이 책을 읽는 내내 아버지나 형, 친구와 동생과의 개인 기억이 겹쳐지며 읽는 속도를 더디게 한다 해도 그 느낌과 결눈질을 즐길 수밖에 없다. 속초라는 공간의 공유는 시간을 뛰어넘는 추억의 동반자로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3장 ‘작은 우주 속의 사진리에서’이다. 그 중 마지막 휘파람 고래 이야기는 쓸쓸하고 슬프면서도 설레게 만드는 에피소드다. 어느 날 아버지가 밤늦게 들어와 들려주었다는 휘파람 고래. 푸우, 푸우 소리를 내며 수면 위에서 갑자기 사라졌다는 그 고래의 흔적을 찾으려 달빛에 봄히 내다보이는 영금정 바다쪽을 향해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오던 시인과 아버지의 모습이 주는 시청각적 상상력이 묘한 흥분을 안겨준다. 신비의 음곡을 간직한 영금정이기에 더욱 그런지 모르겠다.

이밖에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많다. 특히, 날카로운 저항정신을 담은 시를 통해 한국문단에 뚜렷한 자취를 남긴 시인 김남주가 옥중에서 은박지로 쓴 시 ‘단식’과 우리 지역의 대표시인 이성선의 이야기 등 문학 이야기를 읽는 재미도 쏠쏠하다.

이 책의 사진에는 시인 자신의 사진 외에도 속초문화원 발간 사진집 자료와 전태극 사진작가 등 지역 작가의 사진이 많다. 시인의 곁 고운 언어와 생생한 추억담, 흑백사진의 추억은 개인의 문학앨범을 지역의 문화자산으로 보게끔 만드는 배경이 된다.





‘2014 속초문화예술 해적이’는 설악신문의 문화면을 요약하여 지난 1년간 속초지역의 문화예술활동을 정리했습니다. ‘속초문화 365’와 함께 지역문화예술계의 모습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은희 민예총 사무국장 해수부장관 표창

정은희(40) (사)민예총 속초지부 사무국장이 속초등대 전당대 문화행사 활성화와 공로로 해양수산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동해지방해양항만청은 1월 2일 청내 강당에서 ‘2014 시무식 및 업무 공로자 수상식’을 열고, 2013년 속초등대축제를 기획 및 추진해 등대전당대 홍보와 방문 활성화에 기여한 정은희 민예총 사무국장에게 해수부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유명 오페라 ‘비운의 세 여주인공과 만남’

설악문화센터는 1월 10일 오후 7시30분 2층 카페소리에 이야기기가 있는 음악회 ‘비운의 세 여인과의 만남’을 연다. 포천오페라단이 선보이는 이번 공연은 대중에게 잘 알려진 오페라 속 비운의 여주인공들이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고, 그녀를 떠나보내야 했던 남자로부터 그 이유를 듣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포천오페라단 창립 후 첫 기획 공연이다.

*청소년들이 취재하고 쓴 도문동이야기

속초지역 청소년들이 도문동 마을의 이야기를 한데 묶어 책으로 펴낸다.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학생들은 지난해 4월부터 연말까지 속초문화원의 ‘속초 청소년 마을 보물 발굴단’ 사업에 참여,

직접 도문동을 찾아 주민과 마을 역사를 취재한 결과물을 스토리 북으로 엮는 작업을 최근 끝마쳤다. 문화원은 최종 교정작업을 마치고 설 전후로 책을 발간할 예정이다.

*속초제니스합창단 신년음악회

지난해 3월 창단한 속초제니스합창단(단장 채성남)이 1월 13일 속초문화회관 대강당에서 ‘2014년 신년 음악회’를 열었다. 이날 음악회에는 합창단원들 이외에도 하유스님, 통기타가수 최백건, 불교가수 차현호, 전자바이올리니스트 제니유 등이 무대에 올라 다양한 공연을 선보였다.

*예총 ‘속초예술 13호’ 발간

한국예총 속초지회(회장 이반)의 2013년 활동을 되돌아보는 ‘속초예술’ 13호가 발간됐다.

*“도리원서 전해오는 ‘속초아리랑’ 아시나요”

김부영 민예총 속초지부장과 설악소리연구회, 도리원마을 주민들은 1월 4일 가칭 속초아리랑보존회를 결성하고, 노학동 도리원마을 일대에서 전해 내려오는 아리랑을 전승 보존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보존회는 올해부터 매주 화요일마다 도리원경로당에 모여, 속초아리랑 전수교육을 갖고 있다.



* 혼성아카펠라그룹 '제니스' 설악문화센터 공연

설악문화센터는 2월 7일 오후 7시30분, 2층 카페소리에서 '제니스 콘서트'를 연다.

* 향토문화학교 수강생 선착순 모집

속초문화원(원장 박무웅)은 2월 11일부터 향토문화학교 22기 수강생을 선착순 모집한다. 올해 문화학교는 고전무용(15명), 노래교실(50명), 민요교실(20명), 서예교실(25명), 장구교실(15명), 사물중급(장구 1년 수료생 20명), 한지공예(20명) 등 7개 강좌가 마련됐으며,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과정으로 운영된다.

* 속초문화원 '속초문화' 29호 발간

속초문화원의 한 해 소식을 담은 '속초문화 29호'가 발간됐다.

* 속초시립박물관 10월말까지 유물 구입

속초시립박물관이 개인 소장가와 문화재 매매업자 및 법인 등을 대상으로 전시, 연구 및 교육 자료로 활용할 유물을 오는 10월 30일까지 구입한다.

* 매네스음대 출신 앙상블 '오름' 공연

미국 매네스 음대 동문들로 구성돼 지난해 창단 연주회를 가진 앙상블 '오름'이 밸런타인데이인 2월 14일 오후 7시 30분 설악문화센터 2층 카페소리에서 공연을 갖는다. 이날 공연은 영화 트와일라잇과 오션스일레븐 등 OST로도 자주 등장한 피아노연주곡 드뷔시의 '달빛'을 비롯해 헨델과 할보르센의 '비올라&바이올린' 연주곡, 브람스의 '첼로 2중주', 폴 주은 '피아노 4중주 3악장', 모차르트 '피아노 4중주 1번' 등이 연주된다.

* 속초항 사진전 연 박경심 씨 속초수협 감사패

속초 주변의 해안선과 속초항을 사진에 담아 온 박경심(사진) 씨가 지난 12일 속초수협 정기총회에서 감사패를

받았다. 속초수협은 박씨가 지난해 10월 30~11월 4일 '속초항, 사진으로 말하다'는 사진전을 열어 속초부드가를 알린 공로로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 '오골계와 터래기' 작은음악회 열어

카페 '소풍'과 '오골계와 터래기'가 2월 7일 오후 '소풍'에서 속초지역 음악동호인을 초청, 작은 음악회를 열었다. '오골계와 터래기'는 "음악을 업으로 하는 전업음악인들보다 더 많은 열정을 갖고 활동하고 있는 순수음악인들이 모여 지역에 낭만을 심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번 음악회를 마련했다"며 "향후에는 고성, 양양지역에서도 음악회를 열 계획"이라고 했다.

* '한 권으로 읽는 속초의 역사와 문화' 발간

속초문화원(원장 박무웅)이 향토사안내서 <한 권으로 읽는 속초의 역사와 문화>를 발간했다. <한 권으로 읽는 속초의 역사와 문화>는 속초시 승격 50주년을 기념, 속초의 과거와 현재 모습을 비교할 수 있는 사진, 글과 함께 속초의 문화를 흥미 있게 담아낸 스토리텔링도 수록됐다.

* 한국화동호회 '먹노리' 창립전

한국화 동호회 '먹노리'가 2월 17일부터 3월 2일까지 설악문화센터 2층 갤러리에서 창립 전시회를 열고 은은한 묵향을 전한다. '먹노리'(회장 조정승)는 2010년부터 속초교육문화관에서 조정승 화백의 지도 아래 한국화를 그려온 김태완, 서미숙, 노금희, 조외순, 지영희, 김인숙, 최월순 등 8명으로 구성돼 이번에 창립전을 갖게 됐다.

* 속초예총 회장에 정봉재 미협강연지회 감사 선출

속초예총 10대 회장에 정봉재(53) (사)한국미술협회 강연지회 감사가 선출됐다. 정 감사는 2월 27일 문화사랑방에서 열린 제25차 속초예총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에 당선됐다. 임기는 내년 정기총회 전까지 1년간이다.

* '김근수 가옥' 주인이 쓰던 농경유물 기증

속초의 대표적인 전통가옥으로 강원도문화재자료 제64호인 '속초 김근수 가옥'의 주인이었던 고 김근수 씨가 실제 사용했던 농경유물이 속초시립박물관에 전시된다.



*속초지역 문화활동가 발대식

속초지역 '문화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속초문화원은 3월 11일 오전 11시 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속초문화해설사, 실버문화해설사, 풀묶음문화나눔봉사단, 주부풍물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활동가 발대식'을 갖고 올해 활동계획을 발표한다. 이날 제22기 향토문화학교 입학식도 함께 진행한다.

*성악가들이 들려주는 영화음악

양혜정 중앙대 성악과 교수가 이끄는 '청울아트컴퍼니'가 속초를 찾아 영화 속 명곡을 들려준다. 설악문화센터는 3월 7일 오후 7시30분 2층 카페소리에서 '청울아트컴퍼니의 영화음악'을 개최한다.

*예총 수석부회장에 김종현 문인협회 지부장

속초예총 첫 수석부회장에 김종현(59, 시인) 문인협회 지부장이 선임됐다. 임기는 내년 총회 전까지다.

*기타 엄계록·색소폰 최경복 연주회

설악문화센터가 3월 21일 오후 7시30분 2층 카페소리에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타 연주자 엄계록 씨와 색소폰 연주자 최경복 씨를 초청, '기타&색소폰 연주회'를 연다.

*북청군 대표 민요 '돈돌라리'

실향민문화콘텐츠로 육성

함경남도 북청군의 대표 민요로 알려진 '돈돌라리'가 속초의 실향민문화콘텐츠로 육성된다. 속초문화원에 따르면 '돈돌라리'는 북청지역 실향민들이 속초에 정착하면서 한때 지역에서 불렸으나, 실향민 1세대들이 고령으로 세상을 등지면서 잊혀졌다. 이에 문화원은 '돈돌라리'의 원형을 복원해 북청사자놀이와 함께 대표적인 실향민문화콘텐츠로 육성할 계획이다.

*사진작가협회 속초지부 사진 중급반 첫 개설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속초지부가 무료 사진 중급반을 개설해 운영한다. 사진작가협회는 사진동호인 확대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제1회 사진 중급 강좌'를 개설, 이달부터 연말까지 사진 심화교육을 진행한다. 이에 첫 수업이 진행되는 3월 27일 이전까지 교육생을 모집한다.

*한국화가 호정조정승 화백 작품전

속초에서 활동 중인 한국화가 조정승 화백이 3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두 달 간 설악문화센터 2층 전시실에서 '호정 조정승 작품 세계와 그 경향전'을 연다. 전시회는 31일부터 4월 30일까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된다. 1차 전시는 산골 풍경을 담은 '강원의 자연', 2차 전시는 대작(100호 이상) 작품전 '수목 그 울림의 현상'이 펼쳐진다.

*어르신 풀묶음문화나눔봉사단 모집

속초문화원(원장 박무웅)이 어르신문화학교 풀묶음문화나눔봉사단 3기 교육생을 모집한다. 어르신문화학교는 60세 이상 노인들이 동화 구연 등 다양한 문화예술체험 분야 교육을 받아, 아동센터, 어린이집 등에서 문화 나눔 활동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3월 24일부터 15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교육비는 무료다. 참가자들은 9월까지 교육을 이수한 뒤, 10월부터 심화반 수업을 듣거나 현장에서 문화 나눔 활동가로 활동하게 된다.



*중앙로 108번길서 '사진을 찾아라'

J108 아트 로드 프로젝트 두 번째 미션 '사진을 찾아라'가 4월 5~6일 이틀간 속초시 중앙로 108번길 일대에서 진행된다. 행사 당일 오전에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되는 박관영 사진작가의 사진을 보고, 촬영장소를 찾아 인증샷을 찍어 오면 작가의 사진이 담긴 예쁜 액자를 선물로 준다.

*제31회 강원연극제 속초3개 극단 참가

4월12일부터 22일까지 춘천문화예술회관과 축제극장 '몸짓'에서 열리는 제31회 강원연극제에 속초에서는 극단 청봉(대표 최은희)과 파·람·불(대표 석경환), 소울씨어터(대표 남호섭) 등 3개 극단이 참가한다. 젊은 극단 소울씨어터는 이번이 첫 출전이다. 이번 연극제에는 속초와 춘천, 원주, 강릉 등 4개 지역에서 8개 극단이 참가하며, 대상 수상 극단은 6월 전북 군산에서 열리는 전국연극제 무대에 선다. 속초지역 극단은 4월16일 소울씨어터가 '가보세'(축제극장 몸짓)를 공연하고, 19일 청봉 '불타는 소파'(춘천문화예술회관), 22일 파·람·불 '가족오락관'(축제극장 몸짓)이 무대에 오른다.

*설악문화센터 가곡·피아노로 봄맞이

바리톤 박경태와 피아니스트 김경진의 가곡&피아노 공연이 4월 4일 오후 7시30분 설악문화센터 카페소리에서 열린다. 이들은 이날 우리나라와 슈베르트 가곡, 모차르트와 쇼팽의 피아노 연주곡을 각각 들려줄 예정이다.

*서울예술가곡연구회 속초서 '독일가곡의 밤'

서울예술가곡연구회(회장 강은규)가 4월 11일 오후 7시 30분, 속초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초청공연 '독일가곡의 밤'을 연다. 서울예술가곡연구회의 속초 초청공연은 속초 시립합창단 지휘자를 역임한 강은규 회장 등이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지난 2012년부터 문화나눔(무료 공연)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날 무대에는 소프라노 전수미·국은선·최윤정·이정아·지혜련을 비롯해 테너 김정권·계봉원, 바리톤 김건화·조병욱(지휘) 등이 오르며, 이미은·김윤경 씨가 반주를 맡는다.

*속초문화원·시니어클럽 노인 문화강사 양성 추진

속초문화원(원장 박무웅)과 속초시니어클럽(관장 홍흥기)이 4월 21일 문화원에서 노인일자리사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속초문화원과 시니어클럽은 이번 협약에 따라 새로운 노인일자리 사업 창출 및 참여자 확대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속초문화원이 노인들을 문화강사로 양성해 지역아동센터 및 초등학교 돌봄교실 등에 배치하는 '풀무원강사파견사업'을 중심으로 노인일자리 협력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설악벚꽃축제, 체험행사·먹거리 '풍성'

4월 12~13일 속초시 대포동 상도문1리마을 출발유원지

에서 벚꽃축제가 열린다. 상도문마을 주민들이 주관하는 제6회 설악벚꽃축제는 다양한 먹거리와 체험행사로 진행된다.

*미묘화랑 조각가 겸 서양화가 최종림 개인전

미묘화랑(대표 김주용)이 조각가 겸 서양화가로 활동 중인 최종림(사진) 작가의 개인전을 4월 2일 개막, 오는 26일까지 연다. 전시회에는 수채화 느낌이 짙게 묻어나는 유화 작품 '울산바위'와 '양양에서 본 대청봉', '대관령이 보이는 안목향' 등 영동지역 명소들의 모습이 담긴 유화 4점과 수채화 10점, 조각 2점이 전시됐다.

*최명길 시인 제5회 '만해' '님' 시인상 수상

최명길(74) 시인이 '만해학술원'에서 주관한 제5회 '만해' '님' 시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4월 17일 오후 5시30분 충남 천안시 목천시마을문학관에서 열린다.

*센시티브 액티비티 킨텍 설악문화센터 공연

재즈플루티스트 이규재가 이끄는 센시티브 액티비티(Sensitive Activity) 킨텍이 오는 18일 오후7시30분 설악문화센터 카페소리를 찾아온다. 센시티브 액티비티는 정통 스윙재즈부터 현대 재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타일의 연주를 선보이는 재즈 킨텍(5중주)으로, 재즈에서는 다소 생소한 플루트를 중심으로 기타, 피아노, 베이스, 드럼 등 5개 악기 연주자들로 구성됐다.

*부영이 퀘트작가 정희옥 씨 속초서 개인전

부영이 퀘트작품을 제작해온 정희옥 작가가 4월 18일부터 27일까지 속초문화회관 1전시실에서 개인전 '나는 부영이 작가-속초비행'을 연다. 이번 전시회에는 '1111마리 부영이', '행복을 나르는 부영이', '달을 타는 부영이', '천사부영이' 등 기존 작품과 함께, 속초에서 제작한 '울산바위 위를 날다', '설악부영이', '부영이와 설악단풍', '설악산 숲의 부영이마을' 등 200여 점을 선보인다.

*속초문화원, 사진으로 지역문화 기록

문화원은 4월 19일 오후 1시 문화사랑방에서 '사진아가 이빙 구축을 위한 사진가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은 △속초지역 문화기록을 위한 조건 탐구(신지형학적 풍경, 사회학적 풍경) △타 지역 사례 및 작가의 작품 분석 △지역 아카이브 작업을 위한 사진가의 역할과 조건 등을 주제로, 사진작가 전태극 전 속초민예총 회장의 강의

와 참석자들의 자유토론으로 진행된다.

*셰익스피어 탄생 450주년 기념 강연회

세계적 문호이자 극작가인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탄생 450주년을 기념하는 강연회가 속초에서 열린다. 극단 서울시어터(대표 남호섭)는 4월 23일 오후 6시 카페 다랑에서 김한 동국대 영어영문학과 교수를 초청, 강연회 '리어왕과 그의 딸들'을 개최한다. 김한 교수는 이날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마지막 작품인 <리어왕>을 재조명하는 강연을 하고, 서울시어터는 강연회 도중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독백' 부분을 현장에서 직접 시연한다.

*속초민예총 '2014 예술축전' 24일 개막

속초민예총(회장 김부영)이 4월 24일부터 5월 2일까지 '2014 예술축전'을 연다. '2014 예술축전'은 대축전 기간에 열리는 △음악이 흐르는 황소광장(25일 오후 8시, 황소광장) △이발소문학관 심터(25~26일, 이발소갤러리) △J108아트로드 골목길 사진전(24~27일, 갯배 다리 및 골목길) △J108아트로드 예술장터(26일, 갯배 다리 및 청초호유원지)와 5월 2일 열리는 △찾아가는 문화공연(반야노인요양원) 등 모두 5개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그림책 작가 이담·김근희 부부 독서강연

그림책 작가로 활동 중인 이담·김근희 부부가 '그림책의 바른 이해와 독서지도, 왁스페인팅이란?' 독서 강연회를 가졌다. 속초교육문화관이 도서관주간을 맞아 마련한 이날 강연회는 4월 18일 문화관 3층 다목적실에서 학부모, 유치원 교사, 학교도서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SNS 친구들 마당서 '국수'로 소통

4월 12일 오후 1시, 속초 영랑동 '그리운 보리밥'(대표 이진여) 뒷마당에 자리를 깔고 사람들이 한데 어울려 국수를 먹었다. '그리운 보리밥'이 마련한 SNS 친구 초청 '국수가 먹고 싶다' 행사가 열린 것. 이날 행사는 국수를 나눠먹으며 풍물패 갯마당의 공연과 이상국 시인의 '국수가 먹고 싶다' 시낭송, 마임이스트 이정훈 움직임 극단 판토마임 팩토리 대표의 국수를 소재로 한 마임공연도 곁들였다.

*제31회 강원연극제 '소울씨어터' 금상

4월 12일부터 22일까지 춘천문화예술회관과 축제극장

몸짓에서 열린 제31회 강원연극제에 속초지역에서 3개 극단이 참가한 가운데 처음 출전한 극단 서울씨어터(대표 남호섭)가 금상을 차지했다. 극단 청봉의 '불타는 소파'와 극단 파·람·불의 '가족오락관'이 동상을 받았으며, 파·람·불 김강석 씨는 최우수연기상을 수상했다.



*도립극단 창단 작품 '허난설헌' 속초 공연

(재)강원도립극단이 창단 첫 작품으로 강원도(강릉)가 낳은 조선시대 천재 여류 시인 허난설헌의 삶을 조명하는 연극 '허난설헌'(선옥현 작, 권호성 연출)을 도내 6개 시·군을 순회하며 선보인다. 속초에서는 춘천(24~25일)에 이어 두 번째로 5월 11일 오후 4시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공연한다. 이어 오는 6월 24일까지 평창, 원주, 태백, 강릉에서 공연을 펼친다.

*조용필 바운스 작곡 참여 '알렉산더 홀름그렌'설악문화센터서 공연·작곡가 캠프 운영

설악문화센터는 5월 16일 오후 7시30분 2층 카페소리에서 알렉산더 홀름그렌 초청 콘서트를 연다. 알렉산더 홀름그렌은 앞서 12일부터 16일까지 설악문화센터에서 K팝 작곡가 캠프를 가지며, 15일 오후 7~9시까지 작곡과 정 견학생 12명을 모집한다.

*6·4 지방선거 속초문화예술분야 정책발표회

설악신문사와 속초문화원, 속초예총, 속초민예총이 5월 13일 오후 2시 문화회관 소강당에서 '6.4 지방선거 속초문화예술분야 정책발표회'를 개최한다. 장재한 설악신문 편집국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정책발표회는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묵념에 이어 고영진 설악신문 대표 이사의 인사말, 정책발표회 취지 설명, 문화예술 정책 발표,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된다.

*'JG&KRAZY-The Voice' 콘서트

JG엔터테인먼트와 크레이지사운드스는 5월 18일 오후

3시와 7시 속초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첫 합동 콘서트 'JG&KRAZY-The Voice'로 주민들을 찾아온다. 이날 무대에는 발라드 퀸 속희, 위대한 탄생3 오병길, K-POP스타 성수진, 힙합듀오 리퀴드와 최근 '그런 여자'로 화제를 모은 벨로체까지 무대에 오른다.

*제2기 꿈다락토요문화학교 수강생 모집

속초문화원(원장 박무웅)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토요일 문화예술체험프로그램 '꿈다락토요문화학교' 2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2기는 '우리 동네의 모습을 인형극으로 표현'이란 주제로, 연극, 문학, 공예 등 다양한 문화예술 장르를 배우고 현장 탐방 등의 체험활동도 갖는다. 속초문화원 문화사랑방에서 6월 14일부터 8월 30일까지 10주간 운영된다.

*속초교육문화관 '길 위의 인문학' 진행

속초교육문화관(관장 김동순)이 청소년의 달을 맞아 '바다, 사람, 들과 산이 하나 되어 만나는 속초역사문화'를 주제로 '길 위의 인문학'을 열고 있다. 대학생과 일반인 등 4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길 위의 인문학'은 5월 23일과 24일, 31일 등 3차례로 나눠 교수와 역사학자들의 강연 및 현장 탐방으로 진행되고 있다.

*고주리 미협 속초지부장 춘천서 전시회

고주리 (사)한국미술협회 속초지부장이 5월 23일부터 29일까지 춘천미술관에서 '강원도 미술상 수상 기념 작품전'을 연다. 고 지부장은 사이잘 실만을 재료로 사용하는 섬유공예가로, 꽃과 나무 등 자연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작품을 주로 제작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28회 강원미술상 시상식'에서 창작상을 수상했다.

*속초시 찾아가는 문화활동 6개 단체 선정

속초시가 문화예술단체들이 문화소외지역을 찾아 다양한 공연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14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사업'에 RUN갯마당 등 6개 문화예술단체가 선정됐다. 시에 따르면 올해 찾아가는 문화활동에는 전국 21개 단체가 응모, 이중 △RUN갯마당 △민예총 속초지부 △극단 소울씨어터 △극단 프리랜서 △한국예총 속초지회 △CM컴퍼니 등 6개 단체를 선정했다.

*설악문화제 총감독에 고성 출신 이규왕 씨

10월 열리는 제49회 설악문화제의 각종 무대공연을 비롯해 거리퍼레이드를 총괄 지휘할 총감독에 고성 출신 이규왕(50) 씨가 선임됐다.



*수플룻 동호회 설악문화센터 무대에 선다

양양지역의 청소년들로 구성된 '수(秀) 플룻 동호회'가 6월 1일 오후 7시30분 설악문화센터 카페소리에서 플룻과 피아노가 어우러진 앙상블을 선보인다. 동호회는 이날 앙상블에서 '사운드 오브 뮤직' 등 영화음악을 비롯해 클래식, 동요, 민요, 트로트 등 다양한 장르의 곡을 들려준다.

*속초문화연통소 교육생 상시 모집

속초문화원이 이달부터 북청사자놀음의 주요 악기인 통소를 배울 참가자를 상시 모집한다. 교육은 속초시립풍물단 김태희 씨가 맡으며, 일정은 수강 희망자들과 조율 후 정할 예정이다.

*제25회 속초종합예술제 13일 개막

(사)한국예총 속초지회(회장 정봉재)가 주최하고, 산하 8개 협회(문인·미술·연극·음악·국악·사진작가·무용·연예예술)가 주관하는 종합예술제는 '속초예술, 비상하다'를 부제로 전시, 공연, 경연 등 14개의 문화예술행사로 꾸며진다. 행사별로 문화회관 대강당과 전시실, 두드림 소극장, 청초호유원지 상징탐광장 등지에서 개최된다.

*'속초아리랑' 가치 조명 학술세미나

속초민예총(회장 김부영)은 6월 14일 오후 1시30분 속초시근로자복지회관 문화공간에서 '속초민요의 활성화와 속초아리랑의 가치 조명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장정룡 강릉원주대 교수(도문화재위원장)가 '속초아리랑 전승가사 현황과 내용 분석'을, 이한길 한중대 교수가 '속초농요의 특징'을 각각 주제 발표한다. 이어 오순석 속초도문농요보존회장, 임수철 한국음악평론가협회 이사, 김인섭 속초문화원 사무국장이 종합토론을 벌인다.

*설악산 대청봉 일원 옛 사진 공모전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가 대청봉 일원의 모습이 담긴 옛 사진 공모전을 연다. 공모분야는 대청봉 정상과 옛 벙커 주변, 눈잣나무 자생지 등의 1990년대 이전 모습이 담긴 사진으로, 6월 20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출품 수 및 규격은 제한이 없으며, 사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달아야 한다.

*속초관광아카데미 운영

속초시관광진흥협회가 '2014 속초관광 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한다. '2014 속초관광 아카데미'는 일반시민에게 속초시 주요 관광자원을 알리고, 관광안내 자원봉사자를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7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8주(8회, 화요일 오후 2~4시) 과정으로 운영된다. 이에 6월 30일까지 참가 희망자 70명을 모집한다.

*원영백기타학원 작은 음악회

원영백기타학원(원장 원경화)이 6월 14일 오후 5시 속초문화회관 소강당에서 '2014 작은 음악회'를 연다. 이날 무대에는 원경화 원장을 비롯해 수강생 16명이 무대에 올라, 기타연주곡, 외국민요, 포크가요, 트로트 등을 연주할 예정이다.

*설악문화센터 13일 클래식 콘서트

설악문화센터가 6월 13일 오후 7시30분 2층 카페소리에서 '클래식 콘서트'를 연다. 이날 콘서트에는 '이루마(피아니스트) 10주년 기념 음반' 등 수많은 아티스트들의 음반작업에 참여한 첼리스트 김영민, 미국 줄리어드음대 출신 피아니스트 지석영, 독일 카셀 국립 오페라 극장단원으로 활동했던 소프라노 김현정 씨가 출연, 격조 높은 하모니를 선사한다.

*홍의연 도예교실 정기작품전

'홍의연 도예교실'(Terra Space) 일곱 번째 정기 작품전이 6월 8일 속초문화회관 제1전시실에서 개막, 13일까지 이어진다. 도예가 홍의연씨 문하생 12명이 출품하는 이번 도자전에는 우리나라 전통의 향이 짙게 묻어나는 찻그릇과 사발을 비롯해 접시, 화분, 조명등 등 600여 점이 전시된다.

*임호선 춘천교대 교수 피아노 독주회

임호선 춘천교대 교수가 6월 23일 오후 7시 속초문화회관 대강당에서 피아노 독주회를 연다. 이번 독주회에서

는 모차르트, 베토벤, 쇼팽, 리스트, 장성순, 파야 등의 대 표곡 및 초연곡들을 차례로 선보일 예정이다.

*가수 박상민 디너콘서트

허스키한 보이스의 감성발라드, 선글라스와 콧수염의 대 명사 가수 박상민이 6월 21일과 22일 설악컨벤션스타호 텔에서 디너콘서트를 갖는다. 박상민은 '멀어져간 사람 아', '해바라기' 등 많은 히트곡을 보유한 가수로, 노래 는 물론 재치 있는 언변으로 이야기도 들려줄 예정이다.

*소울씨어터·쇼크24 연극 '6월26일' 공연

극단 소울씨어터(대표 남호섭)와 창작집단 쇼크24(대표 장태준)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전쟁을 소재로 한 연극 '6월26일'(장태준 작·연출)을 6월 17일부터 29일까지 두 드림소극장에서 공연한다.

*개신교·불교·천주교 한데 어울려 합창제

설악권 지역문화예술법인 노리소리 강원두레(대표 엄기 종)는 6월 16일 오후 7시 속초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제 1회 종교합창제'를 개최했다. 종교합창제는 정서적 고립 감 등 힘든 일상을 겪고 있는 뇌병변장애인들의 사회적 관심 제고와 삶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아프리카 타악 연주단 '쿰바야' 초청 공연

아프리카 타악기를 연주하는 '쿰바야'가 6월 29일 오후 7시30분 설악문화센터 카페소리에서 공연을 갖는다. 속 초공연에서는 쟼베, 둔둔, 쉐커리, 강코퀴 등 아프리카 전 통악기와 우리나라와 세계 다양한 악기와 음악을 접목한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서울팝스오케스트라 '행복충전 팝스콘서트'

하이원리조트가 주최하고 (사)서울팝스오케스트라가 연 주하는 '행복충전 팝스콘서트'가 6월 24일 오후 7시30 분 속초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이번 속초 콘서 트에서는 오스트리아 작곡가 프란츠 폰 주페의 희가곡 '경기병 서곡'을 시작으로, 비틀즈의 히트곡 '헤이 Jude (Hey Jude)', 영화 <산체스의 아이들>의 O.S.T '칠드 런 오브 산체스(Children of Sanchez)' 등 대중적인 곡 들을 들려준다.

*RUN갯마당 11월까지 매달 문화회관 공연

RUN갯마당이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매달 속초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공연을 연다. 속초시(문화회관)가 주최하고, 강원문화재단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하는 '2014년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에 선정된데 따른 것이다. RUN 갯마당은 레퍼토리 공연 4회와 창작공연 2회 등 6회에 걸쳐 신명나는 국악공연을 주민들에게 선보인다. 관람 후 감동의 크기에 따라 자발적으로 관람료를 지불하는 '감동후불제'가 운영된다.

*“속초시립박물관, 한국전쟁 피난살이 체험하세요”

속초시립박물관이 6.25한국전쟁 64주기를 맞아 '피난살이 체험행사'를 마련한다.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박물관 및 실향민문화촌에서 진행된다.

*속초종합예술제 미리보기-3개 극단 공연

속초예총의 종합예술제 기간 동안 강원연극제에 출전했던 지역 극단의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극단 청봉은 6월 20일 오태영 작, 김일태 연출의 '불타는 소파'를, 파·람·불은 7월 2일 이오진 작, 장태준 연출의 '가족오락관'을, 소울씨어터는 7월 10일 조용만 작, 유림 각색, 남호섭 연출의 '가보세'를 각각 공연한다. 공연은 모두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오후 7시30분 공연된다.

*속초종합예술제 미리보기-미협 작품전·국제 아동미술교류전

(사)한국미술협회 속초지부(지부장 고주리)는 5월 20일부터 26일까지 문화회관 1전시실에서 '39회 정기 회원 작품전-설악의 사계'를, 2전시실에서 '제19회 국제아동 미술교류전'을 동시에 개최한다. '설악의 사계'는 한국화, 서양화, 조각, 공예, 서예 등 5개 장르에서 활동 중인 회원 30명이 한 해 동안 제작한 작품 64점을 선보인다.

*속초문화원 여름방학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속초문화원(원장 박무웅)이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고등학생 대상 캠프 '뮤지컬로 더위 사냥'과 초등학생 저학년 대상 '영화야 놀자', 고학년 대상 '생활예절과 오감 체험' 등 3개 프로그램으로, 오는 1일부터 참가자 접수를 받는다.

*속초예총 후원의 밤 열려

속초예총(회장 정봉재) 후원의 밤 행사가 6월 23일 아남프라자 19층 연회장에서 예총 산하 8개 협회 임원, 예술단체 회원, 기관 및 단체장,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속초시립합창단 세월호 희생자 추모음악회

속초시립합창단이 세월호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슬픔에 빠진 유가족과 속초시민을 위로하는 '추모음악회'를 열었다. 6월 28일 오후 설악로데오거리 KT건물 앞에서 열린 이날 음악회에서 시립합창단은 '작은 위로 더 큰 희망'을 부제로,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 '내 영혼 바람되어' 등을 불렀다.



*설악문화센터 음악치료여행

설악문화센터가 7월 6일 오후 4시 2층 카페소리에서 '온 가족이 함께 떠나는 음악치료여행'을 연다. 음악치료사 박혜경 씨가 진행하는 이날 음악치료여행은 관객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악기를 체험하고, 가사를 지어보는 등 관객 참여 콘서트로 진행된다. 행사 도중 박 씨의 피아노 연주도 들을 수 있다.

*속초종합예술제 미리보기-국악협회 정기공연

속초예총(회장 정봉재)의 제25회 종합예술제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사)한국국악협회 속초지부(지부장 정연석)가 오는 7월 5일 오후 7시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한 번째 정기연주회를 갖는다.

*미군 기증 1960년대 속초사진 설명 채록

속초시립박물관이 1960년대 속초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기증한 미국인 바이런 디킨슨(71) 씨를 초청, 사진에 담긴 당시 속초시의 실정을 채록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속초종합예술제 미리보기-설악 청소년 가요 및 댄스경연대회

속초예술의 종합예술제가 7월 12일 '제25회 설악 청소년 가요 및 댄스경연대회'를 끝으로 한 달간의 축제를 마무리한다. 이날 오후 3시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청소년 가요 및 댄스경연대회는 지난달 21일 예심을 통과한 16팀이 무대에 올라 자웅을 가리게 된다. 예심에는 속초와 고성, 양양지역 중·고생 50여 팀이 참가했다.

*속초여고 연극 '나의 푸른 일기장' 공연

속초여자고등학교 연극부 '누에고치'가 강원도청소년연극제에 출품했던 '나의 푸른 일기장'을 재학생과 주민들에게 선보이는 자리를 마련한다. 누에고치는 속초시문화회관 대강당에서 7월 16일 오후 2시 재학생을 대상으로, 5시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연을 갖는다. 이번 공연은 누에고치의 도청소년연극제 은상 수상 기념 앙코르 공연으로 마련됐다.

*백진주 교수 설악문화센터 연주회

더 클래스 안단테(The class Andante) 대표로 활동 중인 바이올리니스트 백진주 교수가 7월 13일 오후 5시 설악문화센터 카페소리에서 연주회를 갖는다. 백 교수는 이날 연주회에서 바이올린 독주를 비롯해 피아니스트 이지현, 초대가수 유경진, 나혜리 등과 함께 아름다운 멜로디를 선사한다.

*해풍목연초대작가회 전시회 개최

해풍목연초대작가회(회장 최홍영)가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속초문화회관 제1전시실에서 '해풍목연 우리 글씨전'을 개최한다. 지난 2010년 설립된 해풍목연초대작가회는 김광희 해풍서법연구소장의 중진 문하생 20여 명으로 구성됐으며, 강원서예대전을 비롯해 전국 및 도 단위 서예대전의 초대작가와 심사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해풍목연초대작가회는 지난 2012년부터 작품전시회를 통해 해풍 가(家)를 알려오고 있다.

*피서철 맞아 속초 곳곳서 공연·이벤트

속초시는 6월 21일부터 속초관광수산시장 일대에서 주말마다 RUN갯마당의 풍물공연을 비롯해 함경도사투리대회, 지역가수 공연, 각종 이벤트 등이 펼쳐지는 '관광객 맞이 거리공연'을 열고 있다. 또 7월 19일부터는 주말 등을 이용해 척산죽육공원에서 플레이백 시어터 공연, 클래

식기타 연주, 기타&색소폰 공연 등으로 꾸며진 '척산죽육공원 콘서트'를 연다. 속초시립박물관은 19일부터 8월 16일까지 밤 9시까지 야간개장에 들어가, 속초북청사자보존회와 속초시립풍물단의 전통문화공연을 갖는다. 이와 함께 오는 8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청초호유원지 특설무대에서 열리는 '2014 대한민국 음악대향연'에 앞서 사전 붐 조성 차원에서 우크라이나 국립프로코피에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초청공연과 DJ클럽데이 행사 등을 개최한다. 26일부터 8월 2일까지 '장사항오징어맨손잡기축제'가 열리고, 속초여름해변에서는 많은 피서인파가 찾는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밴드공연, 음악회, 수상 씨름대회 등이 개최돼 피서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속초교육문화관 여름독서교실 운영

속초교육문화관(관장 김동순)이 여름방학을 맞아 초등학교 4~5학년을 대상으로 여름독서교실을 운영한다. 올해 여름독서교실은 '내 꿈을 잡(Job)아라!'를 주제로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4일간, 적성 및 흥미 찾기, 미래 유망직종 탐구, 20년 뒤 꿈을 이룬 자신의 명함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영동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미국 공연

영동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이 7월 26일부터 8월 6일까지 11박12일간의 일정으로 미국 사투, 스파턴버그, 워싱턴DC, 필라델피아, 시카고 등 5개 지역에서 순회공연을 갖는다.

*설악문화센터 20일 현악앙상블

설악문화센터가 7월 20일 오후 2시 2층 카페소리공연장에서 '영 뮤지션의 일요일 오후 현악앙상블'을 개최한다. 이날 앙상블은 신세대 연주자로 주목받고 있는 첼로 김건오, 피아노 하동완, 바이올린 김은하, 류정화 등 4명의 뮤지션이 출연, 비발디의 '사계-여름'과 '콘체르토 그로소', 차이코프스키 '야상곡'과 '페조 카프리스모소', 사라사테 '지고이르바이젠' 등의 곡을 들려줄 예정이다.

*우크라이나 국립 오케스트라 속초 공연

'우크라이나 국립 프로코피에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특별공연이 7월 19일 오후 7시30분 경동대 설악2캠퍼스(구 동우대) 아트홀에서 개최된다. 이번 공연은 8월 8일부터 11일까지 청초호유원지 일대에서 열리는 '2014 대한민국음악대향연'의 사전 붐 조성 차원으로, 한국국제

예술교류협회의 주관으로 진행된다. 공연 당일 선착순으로 입장한다.

*‘풀니움’ 열네 번째 시 낭송회

시 낭송회 ‘풀니움’(회장 박혜성)이 7월 20일 오후 7시 설악문화센터 카페소리에서 열네 번째 정기 시 낭송회를 갖는다. 풀니움은 이번 시 낭송회 주제를 ‘사랑’으로 정하고, 연인간의 사랑, 가족간의 사랑, 친구와의 사랑 등을 소재로 담은 시 10편을 낭송한다. 작품은 정영애(풀니움 회원) 시인의 ‘4월’을 비롯해 기형도 ‘빈집’, 박목월 ‘어머니의 향기’, 김남조 ‘후조’, 이상국 ‘해화역 4번 출구’ 등이다.

*대관령국제음악제 저명연주가 시리즈

대관령국제음악제(예술감독 정명화·정경화) ‘저명연주가 시리즈’가 7월 18일 오후 7시30분 속초문화회관 대강당을 찾아온다. 속초 공연에는 독일, 이탈리아 등지에서 수많은 오페라에 출연하며, 빈심포니오케스트라, ORF 오케스트라, ORF합창단, 빈소년합창단 등과 오라토리오를 연주하고 음반을 녹음한 바리톤 박흥우를 비롯해 ‘러시아의 음악 계보를 이어갈 차세대 주자’라는 평을 받은 바이올리니스트 권혁주, 강원대 음대 학장과 서울대 음대 최초 여성학장을 지낸 피아니스트 신수정, 독일에서 태어나 최연소로 만하임 음악대학에 입학해 각종 피아노 및 바이올린 대회를 휩쓴 피아니스트 강유미 등이 출연한다. 이들은 이날 베토벤 ‘아델라이데’, 슈베르트 ‘송어’, 모차르트 ‘바이올린 소나타 21번 E단조’, 생상스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 A단조’ 등을 들려준다.

*“임수철 기타연주곡 감상하러 오세요”

속초에서 활동하는 작곡가 임수철의 음악세계를 만날 수 있는 음악감상회가 열린다. 속초경실련 영화동아리 ‘보거나말거나’가 7월 16일 문화공간 ‘다랑’에서 여는 이번 감상회는 지난해 발매한 임수철 작곡가의 창작기타연주곡집 ‘당신을 위해서라면’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감상회에서는 기타창작곡집에 수록된 연주곡 감상을 중심으로 임수철 작곡가의 음악세계와 기타음악에 대한 이해를 돕는 강의가 진행된다.

*속초예총, 중국 훈춘 방문 문화교류

한국예총 속초지회(회장 정봉재)는 7월 4일부터 9일까지 중국 훈춘시를 찾아 ‘제13회 훈춘시국제가오제 개최’, ‘소학교 방문’, ‘문화예술 교류를 위한 간담회’ 등을 가졌다.

*양속희무용단 강원무용제 최우수상

속초 양속희무용단이 2002년 이후 12년 만에 출전한 강원무용제에서 최우수상과 안무상을 수상했다. 양속희무용단은 7월 5일 춘천문화예술회관에 열린 ‘제18회 강원무용제 및 제23회 전국무용제 강원도예선대회’에서 ‘낙화-다시 필 꽃들에게’를 공연, 2위인 최우수상을 받았다.

*속초의 과거·현재·미래 국악으로 본다

(유)RUN갯마당이 7월 26일 오후 7시 속초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속초역사 100년을 위한 국악 판타지-속초의 꿈’을 공연한다. “‘속초의 꿈’은 6.25한국전쟁 이후 고향을 잃은 실향민들과 3도 사람들이 속초에 정착하는 과정에서부터 통일에 대비해 북방으로 진출하는 속초의 발전과 미래에 대한 염원을 음악으로 표현한 작품”이라며 “출연자들과 관객들이 하나 되는 신명나는 공연을 펼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척산 족육공연에서 무더위 식혀요”

속초시는 척산 족육공원에서 시민과 관광객들을 위해 문화예술 공연행사를 열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공연은 7월 19일~10월 18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진행된다.

*부모와 자녀 함께 북청사자놀음 체험

(유)RUN갯마당이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퍼블릭 프로그램 ‘놀자! 사자랑 국악이랑’ 교육을 진행한다.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RUN갯마당 연습실(속초시립테니스코트 뒤편)에서 진행되는 ‘놀자! 사자랑 국악이랑’은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참여해 중무무형문화재 제15호 북청사자놀음을 몸으로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감성과 기술 융합된 소통시집 출간

설악산 관광자원을 소재로 감성과 기술을 융합해 시인과 독자가 소통하도록 한 이색 시집이 발간됐다. 지난 정부 청와대 관광진흥비서관을 지낸 안경모(사진) 경희대 관광대학원 교수가 <설악산 아리랑, 그 생명의 빛>이라는 시집을 냈다.

*속초시립박물관 여름 이벤트 ‘풍성’

속초시립박물관이 피서철을 맞아 8월 중순까지 다채로운 이벤트를 마련한다. 시립박물관은 7월 19일부터 8월

16일까지 금요일과 토요일 밤 9시까지 야간개장에 들어가, 속초시립풍물단, 속초북청사자놀이보존회, RUN갯마당 등 지역 풍물패가 신명나는 공연을 펼치는 ‘고향의 밤 콘서트’를 연다. 7월 22일부터는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은 위한 특별전으로 ‘우리들의 작은 친구, 곤충’ 전시회를 1층 기획전시실에서 열고 있다.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지역 초등학교 3~6학년들을 위한 ‘박물관 어린이 문화학교’도 운영한다. 문화학교는 △미션 퀴즈 알아맞히기 △실향민 복식체험 △인형에 복식 만들어 입히기 △피난민 관련 영화 및 동영상 관람 △아바이 마을 주민 돼보기(사진 찍기) △피난민 음식 만들기 △전통문화예술 공연 관람 △옛날 가옥 알아보기 등으로 운영된다.



*도청소년연극제 금상 수상작 공연

설악고등학교 연극부가 올해 강원도청소년연극제에 출전해 금상을 받은 작품을 재학생과 주민들에게 선보이는 자리를 마련한다. 설악고는 8월 13일 오후 3시 속초문화회관 대강당에서 학교 내 집단 따돌림을 소재로 한 연극 ‘널 모를 리가 있겠나’를 무대에 올린다.

*설악문화센터 8월 10일

설악문화센터가 8월 10일 오후 5시 2층 카페소리에서 노래 콘서트 ‘영(Young) 뮤지션이 전하는 8월의 러브 레터’를 연다. 이날 콘서트에는 김미지, 김아현, 박서인, 안서현, 이예슬, 조윤민 등 실용음악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무대에 올라, 팝과 가요 등을 들려줄 예정이다.

*2014 대한민국 음악대향연 속초 한여름밤 뜨겁게 달군다

대한민국 대표 음악축제인 ‘2014 대한민국 음악대향연’이 8월 8일~11일까지 청초호유원지를 뜨겁게 달군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인바인드 여행사와 함께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나서 중국, 일본, 동남아 등지에서 많은 케

이 팝(K-POP) 팬들이 행사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돼 케이팝 열기가 행사장을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속초민예총 올해 첫 등대축제 23일 개최

속초민예총(회장 김부영)은 8월 23일 오후 3시 속초등대해양문화공간에서 올해 첫 등대축제를 개최한다. 지역 가수 공연, 풀니음 시낭송회 시낭송 및 콩트 공연, 마술공연, RUN갯마당과 사운드박스의 폐막공연이 열린다. 앞서 2시부터는 ‘나만의 머그 컵 만들기’ 체험도 마련되며, 추첨 등을 통해 무료 시식권(이가왕돈가스, 동강정장한우, 동일칼국수)도 제공된다.

*속초축제위원회 ‘오감만족 대표’ 공연

(사)속초축제위원회가 8월 15~16일 대표항 입구 문화공간에서 ‘오감만족 대표’로 관광객과 주민들을 만난다. ‘오감만족 대표’는 이날 오후 8시부터 100분간 진행되며 16일에는 RUN갯마당(국악이랑 놀자), 어필(트로트 및 7080가요), 투맨 밴드(기타&색소폰), 마리아치 라틴(중남미 라틴밴드) 등이 무대에 오른다. 17일에는 설악드림 팝스(색소폰), MC수(힙합), 아마빌레(기타), 김현미(트로트 및 7080가요), 사운드박스(인디밴드) 등이 출연, 신명나는 공연을 선보인다.

*속초문인협회 문예창작교실 수강생 모집

(사)한국문인협회 속초지부(지부장 김종헌)가 9월부터 시민들을 대상으로 글쓰기를 지도하는 ‘2014 문예창작교실’을 운영하는 가운데 8월 말까지 수강생을 모집한다. 문인협회 회원들의 재능기부로 진행되는 문예창작교실은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문우당서림 2층 세미나실에서 진행된다.

*공무원미술대전 속초지역 2명 입선

안전행정부가 주관한 ‘제24회 공무원미술대전’에서 교동초 지역희 교사가 한국화에서, 임흥빈 속초시의회 사무과장이 사진에서 각각 입선했다.

*속초이야기 담아 순회 ‘시화전’

설악문우회와 속초문인협회 회원들이 청호동 이야기와 설악산, 바다 자연경관, 속초사람들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시로 표현한 순회 시화전 ‘속초이야기 詩로 피어나다’를 열고 있다. ‘속초이야기 詩로 피어나다’는 속초를 주제로 한 시 31편을 아크릴 패널로 제작, 지난 6월 13일 속초종합예술제 개막식을 시작으로, 7월 21일부터는 방학을 맞

아 속초시립박물관 '속초 옛 사진 전시실'에서 전시 중이다. 이어 8월 22일부터 24일까지는 전국생활체육대축전 행사장에서, 25일부터 9월 10일까지는 설악문화센터에서 전시회를 열 예정이다. 이후에는 속초시청 구관과 신관을 잇는 통로 로비를 비롯해 속초지역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에서 1년 간 전시를 이어갈 계획이다.

*국악으로 보는 고 유정충 선장 일대기

(유)RUN갯마당이 속초의 의인 고 유정충 선장의 일대기를 모티브로 제작한 창작공연을 선보인다. RUN갯마당은 8월 27일 저녁 7시 속초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국악으로 그린-선장'을 무대에 올린다.

*박기범 작가 그림책 '그 꿈들' 원화 전시

속초에 사는 김종숙 화가가 이라크 전쟁의 실상을 담은 그림책 <그 꿈들>에 실은 유화그림으로 서울에서 전시회를 열고 있다.

*복싱선수 남편과 동화작가 아내 무대에

극단 파.람.불이 8월 24일부터 두드림소극장에서 연극 '행복'(이선희 작, 연출)으로 슬프지만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준다. '행복'은 펀치 드렁크 증후군으로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복싱선수 남편과 심하게 웃거나 울면 기도가 막혀 죽는 희귀병 '코벨리아 디 란지 증후군'에 걸린 동화작가 아내의 이야기로, 행복해지고 싶지만 행복할 수 없는 부부의 사연을 그리고 있다.

*클래식기타로 '꿈이 있는 가족 연주회'

속초시 교동에서 파스칼수학학원을 운영하는 민복기(44) 씨 가족은 '기타 가족'이다. 이들 가족이 8월 31일 오후 5시 속초문화회관 소강당에서 '꿈이 있는 가족 연주회'를 연다. 지난 2012년에 이은 두 번째 연주회다. 이날 남편 민 씨도 클래식기타를 들고 무대에 오른다.

*속초문화원 꿈다락토요문화학교 3기 모집

속초문화원(원장 박무웅)이 초등학생 대상으로 운영하는 '꿈다락토요문화학교' 3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3기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생각과 경험을 영화로 제작하게 되며, 연기, 촬영, 시나리오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관외 문화탐방도 실시될 예정이다. 문화학교는 9월 20일부터 12월 13일까지 10주간 진행된다. 참가 대상은 속초 지역 초등 3~6학년 20명으로, 8월 27일부터 선착순으로

속초문화원에서 방문 접수를 받는다.

*속초민예총 문학협회 이야기마당 개최

속초민예총 문학협회는 8월 24일 오후 카페 다량에서 '속초 문화와 관동 문학의 특징'을 주제로 이야기마당을 열었다. 2개의 강의로 나눠 진행된 이야기마당에서 양언석 강원도립대 교수가 속초문화의 특징을 문헌기록에서 찾아보는 '속초, 그리고 우리문화'에 대해, 이상국 시인(전 강원민예총 회장)이 속초를 포함한 관동 문학의 역사와 특징을 다룬 '관동 문학의 세계'에 대해 강의했다.



*팝피아니스트 임학성 콘서트

설악문화센터가 9월 14일 오후 5시 2층 카페소리에서 팝피아니스트 임학성 콘서트를 연다. '팝피아니스트의 선구자, 임학성을 만나는 시간'이란 이름으로 진행되는 콘서트에서 임학성은 '가을 편지', '님은 먼 곳에', '낙엽', '그대 그리고 나', 'Yesterday', '닥터 지바고', '영광의 탈출' 등을 들려줄 예정이다.

*속초지역 추석맞이 문화행사 포집

민족 명절 추석을 맞아 귀성객과 주민들을 위한 전통체험행사와 문화공연이 다채롭게 열린다. 속초시립박물관은 추석 당일인 9월 8일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민속문화 체험행사'로 방문객을 맞는다. 속초예총도 추석 전인 6일 속초관광수산시장의 '관광객 맞이 거리공연'과 '속초축육공원 공연'으로 추석을 앞두고 흥을 돋운다.

*속초도문농요전수관 내달 개관

속초도문농요전수관이 10월 개관한다.

*국내 최정상 펌크밴드 '한상원 밴드' 온다

재즈기타리스트 한상원이 이끄는 '한상원 밴드'가 9월 19일 오후 7시30분 설악문화센터 2층 카페소리에서 공연을 연다.

*박동국 전 미협 속초지부장

박동국 전 (사)한국미술협회 속초지부장이 홍천미술관 개관 후 첫 전시회 주인공으로 초대됐다. 박 전 지부장은 9월 3일부터 30일까지 홍천미술관에서 홍천군 내연의 풍경을 캔버스에 담은 '내린천'을 비롯해 양양 낙산사의 비경을 절정으로 끌어내는 소나무를 그린 '노송' 등 강원도의 수려한 풍경을 담은 수채화 50여 점을 선보였다. 홍천은 박 전 지부장의 고향으로, 이번 전시회는 홍천미술관 개관 기획초대전으로 마련됐다.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속초 공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9월 23일 오후 7시30분 속초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의 '오케스트라 페스티벌'을 연다. 이번 공연은 '2014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으로, 문화소외지역 5곳을 대상으로 열리고 있다.

*거리공연 하는 속초 5인조 직장인밴드 '크리스'

지역에서는 다소 생소한 버스킹(거리공연)을 하는 밴드가 있다. 속초지역 20~30대 남성들로 구성된 5인조 직장인밴드 '크리스'(CRIS, Chemistry Rock In Sokcho)가 그들. '크리스'는 올 여름 청초호유원지를 찾은 시민과 관광객들을 위해 공연을 열었고, 최근에는 청초호유원지에서 열린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최 기념 축하공연에 초청돼 신명나는 공연을 선보여 관객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피아니스트 지석영 독주회

미국 줄리아드 음대 출신 피아니스트 지석영이 9월 26일 저녁 8시 설악문화센터에서 독주회를 연다.

*트로트가수 최평심 씨 네 번째 앨범 발표

속초 출신 트로트가수 최평심 씨가 네 번째 앨범 '당신은 짱이야'를 발표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최 씨는 KBS '도전 주부가요스타' 출신으로, 올해 데뷔 17년째를 맞고 있으며, 속초연탄은행 홍보대사를 비롯해 각종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노래봉사 활동을 펼쳐왔다.

*해정서예연구원 문하생들 전시회

속초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문서예가 이덕우 해정서예연구원장의 문하생들이 첫 합동 전시회를 연다. '해정서예연구원 문하생 모임'(회장 김병택)은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속초문화회관 1전시실에서 '해정서예 동행

전'을 개최한다.

*속초시립풍물단 4년만에 정기연주회

속초시립풍물단이 9월 26일 오후 7시30분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다시 부는 바람-風杖(풍장)'을 주제로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 2010년 이후 4년 만에 열리는 올해 정기연주회는 강원도립국악관현악단과의 협연으로 한층 풍성하게 꾸며질 예정이다.

*대포초 국악관현악단 전국초등음악경연 대상

대포초등학교(교장 이덕수) 국악관현악단이 9월 24~27일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제51회 전국초등학생음악경연대회'에서 국악합주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오유미 교사는 지도교사상을 받았다.

*제6회 속초시사회복지대축제 개최

속초시지역사회복지협의회와 속초시사회복지협의회는 9월 27일 청초호유원지에서 '제6회 속초시사회복지대축제'를 열고,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김영범&송미애가 들려주는 가을이야기

설악문화센터가 10월 10일 오후 7시30분 2층 카페소리 공연장에서 가을 분위기가 물씬 풍겨나는 콘서트를 마련한다. '김영범&송미애의 가을이야기'로 꾸며지는 이날 콘서트는 김성호의 '당신은 천사와 커피를 마셔본 적이 있습니까?'를 비롯해 '회상', '바람이 불어오는 곳', '인생이라는 게 무엇인지', '가을이 오면', 'L.O.V.E.', '슬픈 이야기' 등의 노래와 고은희·이문세의 듀엣 곡 '이별이야기' 등의 곡을 들려줄 예정이다.

*임흥빈 씨 국립공원 사진공모전 입선

임흥빈 속초시의회 사무과장이 제13회 국립공원 사진공모전에서 작품 '하얀 옷으로 갈아입은 공룡능선'으로 입선했다.

*교육연극연구회 '연어' 여덟 번째 정기공연

속초·고성·양양지역 초등교사 교육연극연구회 '연극으로 어울리는 사람들'(회장 원영근, 이하 연어)이 여덟 번째 정기공연을 연다. '연어'는 10월 1일과 2일 저녁 7시 속초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제작한 '무명저고리와 엄마'(권정생 작, 오명한 연출, 연어 공동 각색)와 '제7회 어린이 연극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이 선보이는 '개미와 베짚이'를 무대에 올린다.

*양속희 무용단 일곱 번째 정기공연

양속희 무용단은 10월 18일 오후 7시 속초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일곱 번째 정기공연 '춤-가인(佳人)'을 연다. 올해 공연은 한국무용과 팝-핀이 조화를 이루는 기획 공연 '가인의 사랑'을 비롯해 전국무용제 예선(강원무용제)에서 최우수상과 안무상을 수상한 작품 '다시 필 꽃들에게' 등으로 꾸며진다.

*박동국 속초미술협 명예회장 개인전

박동국 (사)한국미술협회 속초지부 명예회장이 10월 1일부터 연말까지 강원도교육청 모두갤러리에서 15번째 개인전을 연다. 전시회는 '발길 따라 잉태한 풍경2'란 이름으로 도내 수려한 자연경관이 담긴 수채화 30여 점이 전시된다.

*속초시립박물관 '명산, 설악산' 특별전

속초시립박물관이 10월 7일부터 연말까지 '명산, 설악산'을 주제로 특별전시회를 연다. 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열리는 이번 특별전은 박물관이 그동안 구입과 기증 등을 통해 수집한 도서, 사진, 엽서 등 설악산 관련 기록물과 배지, 펜던트, 상표 등 관광기념품, 입장권, 카드 등이 전시된다.

*RUN갯마당 춘천서 '속초의 꿈' 공연

RUN갯마당이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춘천에서 개최되는 '강원예술 움 페스타' 무대에서 공연을 펼친다. '강원예술 움 페스타(나눔·배움·도움)'는 강원문화재단이 주최하고, '강원도 공연장 상주단체 페스티벌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행사로, 춘천 봄내극장과 축제극장 몸짓에서 개최된다. 2회째를 맞는 올해 축제에는 RUN갯마당 등 6개 도내 공연장 상주단체가 출연한다.

*취원압화 회원전 '꽃 마니들의 풀꽃 이야기'

취원압화 회원들이 10월 11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속초문화회관 1전시실에서 회원전 '꽃 마니들의 풀꽃 이야기'를 연다. 한국공예인예술연합회(회장 방순희)가 주관하는 이번 전시회에는 전국에서 활동하는 취원압화 회원 16명이 30여 점의 작품을 선보였다. 취원압화는 속초에서 활동 중인 방순희 한국공예인예술연합회장의 문학생들로 구성됐다.

*윤혜정 부리푸리무용단 대표 고향서 공연

속초 출신 한국무용가 윤혜정(사진) 씨가 이끄는 부리푸리무용단이 10월 19일 오후 6시 속초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역사 속 여자 이야기'로 주민들을 찾아온다. 부리푸리무용단은 이날 역사의 주인공이 못 되고 아픔과 고통으로 살다간 여인들의 이야기를 무대에 올린다.

*바리톤 김동섭 씨 속초등대서 공연

바리톤 김동섭이 속초등대 무대에 오른다. 속초민예총은 10월 18일 오후 3시 속초등대해양문화공간에서 10월 등대축제 '행복의 퍼즐-등대는 행복이다'를 연다. 이날 등대축제는 바리톤 김동섭 독창 공연 외 함경도민요 '돈돌라리' 공연, 갯배뮤직캠프가 선보이는 '게릴라 콘서트'가 함께 펼쳐지며, '관객과 함께 하는 윗집', '즉석노래자랑' 등의 이벤트도 열린다.

*특별하게 꾸미는 제151회 물소리 시 낭송회

제151회 물소리 시 낭송회가 10월 18일 오후 4시 카페 '다랑'에서 열린다. 특히, 이번 시 낭송회는 지난 5월 타계한 최명길 시인의 유고시집 <산시 백두대간>과 방순미 시인의 첫 시집 <매화꽃 피야 오것다> 출판 기념회도 함께 진행된다.

*'명산 설악산 기행문학과 민속 문화' 발간

속초시립박물관이 설악산 관광 활성화를 위해 설악산을 찾은 탐방객들의 각종 기행문과 설악산의 민속문화,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설악산과 연관된 각종 기록들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속초시학원연합회 음악분과 정기연주회

속초시학원연합회가 10월 25일 오후 4시 속초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제5회 정기연주회-소리나누기'를 연다. 학원연합회 음악분과회(회장 황길선) 주최로 열리는 정기연주회는 회원 학원에서 음악을 배우는 수강생들이 한 해

동안 쌓은 기량을 선보이는 자리로, 올해는 '영 아티스트 31인과 함께 하는 가을음악회'(부제)로 열린다.

*설악문화센터 '로맨틱 프로젝트 ONE'

재즈피아니스트 이윤선과 재즈플루티스트 이규재가 꾸미는 '로맨틱 프로젝트 ONE'이 10월 24일 오후 7시30분 설악문화센터 카페소리에서 열린다.

*설악수채화 일곱 번째 정기 작품전

속초·고성·양양지역 수채화 동호회 설악수채화(회장 박귀례)가 10월 23~27일 속초문화회관 제1전시실에서 일곱 번째 정기 작품전을 연다. 설악수채화는 조양동주민자치센터 수채화교실 수강생들을 중심으로 지난 2005년 결성, 현재 고성과 양양지역 동호인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 속초교육문화관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매년 가을에 정기작품전을 열고 있다.

*관광객 맞이 거리공연 대표항서 진행

속초예총(회장 정봉재)이 지난 6월 21일부터 주말마다 속초관광수산시장에서 개최한 '관광객 맞이 거리공연'을 대표항으로 옮겨 진행한다. '관광객 맞이 거리공연'은 10월 18일부터 11월 15일까지 대표항 일원에서 펼쳐진다.

*속초교사리코더앙상블 정기연주회

속초교사리코더앙상블(회장 정윤숙, 이하 속리앙)이 10월 29일 오후 7시 속초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여섯 번째 정기 연주회를 연다. 1997년 창단한 속리앙은 현재 13명의 초등학교 교사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올해는 교동초, 간성초, 청봉초 리코더합주단과 함께 무대에 오른다.

*고형렬 시인 토크콘서트...유진규 마임공연

속초민예총(회장 김부영)의 '통일문화제'가 10월 22일 저녁 7시 두드림소극장에서 열린다. 올해 통일문화제는 통일을 주제로 한 토크콘서트와 문화공연 등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노일일자리 참여자 위한 문화공연

속초시니어클럽(속초시노일일자리 전담기관)은 10월 31일 오후 3시 속초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시니어클럽 및 타 기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580여 명을 초청, 마당극 '밥'을 공연한다. 극단 소울씨어터(대표 남호섭)가 이날 선보이는 마당극 '밥'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만연한 현대사회에서 한 마을 사람들이 한데 모여 밥을 짓고 나

눠 먹던 우리 고유의 풍습을 재현한 작품이다.

*서양화가 이동수 씨 인사동서 개인전

속초에서 활동 중인 서양화가 이동수 씨가 10월 29일부터 11월 3일까지 서울 인사동 가나인사아트센터에서 개인전 'Metaphor of things'를 연다.



*제14회 속초관광사진 전국 공모

제14회 속초관광 전국 사진공모전 작품을 접수받는다. 속초시가 주최하고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속초지부와 (사)한국사진작가협회가 각각 주관·후원하는 이번 공모전은 속초지역을 소재로 △자연경관 △전통문화 △생활상 △레저·스포츠·축제 등 4개 부문서 작품을 받는다. 접수 기간은 11월 1일부터 21일까지로,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시립합창단 반주자 출신 피아니스트 연주회

속초시립합창단 반주자를 지낸 두 피아니스트가 연주회를 연다. 김지은·정영철 씨는 11월 6일 오후 7시30분 속초문화회관 대강당에서 '피아노 앙상블 연주회'를 연다.

*김태영 연극협회 속초지부장 도지사 표창

김태영(55) (사)한국연극협회 속초지부장이 '2014 문화의 날'을 맞아 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한 공로로 강원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문화예술 기반 속초관광 활성화 모색

속초문화원(원장 박무웅)이 지역 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문화원은 11월 10일 오후 4시 문화사랑방에서 '문화관광 도시로써의 속초관광 활성화 워크숍'을 개최한다.

*서울팝소오페스트라 속초서 '푸른음악회'

서울팝소오페스트라가 속초를 찾아 아름다운 하모니를 들려준다. NH농협은행 속초시지부(지부장 정순모)는 11월 5일 오후 7시30분 속초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속초시

민과 함께 하는 푸른 음악회'를 연다. 농협 푸른 음악회는 평소 클래식 음악을 접하기 어려운 소도시 지역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문화공헌사업으로, 이날 공연에는 1998년 창단 이후 3000회 이상 연주 이력을 자랑하는 서울팍스 오케스트라가 출연한다.

*제1회 설악 어린이 노래잔치

전교조 속초·고성·양양 초등지회(지회장 윤관혁)는 속초양양교육지원청과 고성교육지원청의 후원으로 11월 7일 오후 6시 속초근로자복지회관 강당에서 '설악 어린이 노래잔치'를 연다.

*설악바다 일요화가회 정기 전시회

속초지역 유희동호회 '설악바다 일요화가회'가 11월 7~11일 속초문화회관 1전시실에서 여덟 번째 정기 전시회를 연다. '설악바다 일요화가회'는 2007년 속초교육도서관 유희강좌 이동수 지도강사와 수강생들을 주축으로 구성, 매년 정기 작품전을 열고 있다.

*속초서우회 열아홉 번째 정기 회원전

속초서우회(회장 박학성)가 11월 14일부터 17일까지 속초 문화회관 제2전시실에서 열아홉 번째 정기 회원전을 연다. 박학성 전 속초시의회 의장 등 23명의 지역 원로들로 구성된 속초서우회는 회원 대대수가 10년 이상 경력을 갖춘 서예가들이다. 일부 회원들은 서예 강사로 활동하기도 했으며, 설악문화제 등 지역 축제에서 무료 가훈 써주기 등의 봉사활동도 펼쳐오고 있다.

*RUN갯마당 '고물상 음악회' 공연

RUN갯마당이 11월 15일 오후 7시 속초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 마지막 공연인 '고물상 음악회'를 연다. '고물상 음악회'는 RUN갯마당이 제작한 창작 작품으로, 전통국악과 퓨전 타악 퍼포먼스를 결합한 한 편의 음악극 형태로 전개된다. 여러 마당으로 나눠 진행했던 기존 공연과 차별화했다.

*속초민예총 사진협회 회원 작품전

속초민예총 사진협회(회장 박민호)가 11월 13일부터 18일까지 문화회관 1전시실에서 회원 작품전을 연다. '마음의 렌즈로 보는 세상 II'란 타이틀로 진행되는 이번 작품전에는 박민호 회장을 비롯해 이영숙, 문은자, 이순재, 임치근, 양양수, 전태극 등 7명의 회원이 6점 씩 총 42점을 선보인다.

*연극배우협회 도지회 연극 2편 동시 공연

(사)한국연극배우협회 강원도지회(지회장 정경숙)는 11월 22일 오후 4시 속초 두드림소극장에서 '응큼한 그녀들의 성(性)스러운 수다'(오재호 작, 용선중 연출)와 '운수 좋은 날'(현진건 작, 이시우 각색, 정경숙 연출) 2편의 연극을 무대에 올린다. 이번 공연은 한국연극배우협회 강원도지회의 2014년 정기공연으로, 21일 춘천 봄내극장에서, 22일에는 속초에서 열린다.

*관현악 음악봉사동아리 '늬' 가을콘서트 개최

초·중생들로 구성된 관현악 동아리 '늬'가 11월 9일 설악문화센터 2층 카페소리에서 '늬'와 함께 하는 가을 콘서트(노래하는 다문화)를 열었다. '늬'는 2011년 5월 '음악을 즐기고 음악을 통해 봉사하자'를 취지로 결성된 음악봉사동아리로, 현재 10명의 청소년들이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등을 연주하고 있다. 이날 연주회에서 '늬'는 인순이의 '거위의 꿈', 아버지의 'I have a dream', 노영심의 '학교 가는 길' 등을 들려줬다. 이날 공연은 강원도 교육청, 설악문화센터 후원으로 마련됐다.

*설악윈드오케스트라 네 번째 정기연주회

설악윈드오케스트라(악장 함상균, 지휘 임정호)가 11월 29일 오후 7시 속초문화회관 대강당에서 네 번째 정기 연주회를 연다. 올해 정기연주회는 제임스 스웨링겐의 'Aventura'(모험)으로 막이 올라, 베르디의 오페라 아이다 중 '개선행진곡', 마틴&필터의 '꼭두각시인형', 로저스의 '사운드 오브 뮤직', 야콥 데 한의 'La Stroia'(History)와 '퍼시픽 드림', 토시오 마시마 '댄싱 아마데우스', 돈 캠펠 '타임 투 세이 굿바이' 등의 곡을 들려줄 예정이다.

*고3수험생 위한 문화공연 마련

속초문화원(원장 박무웅)이 수능을 마친 고3수험생들을 위한 문화공연을 마련한다. 문화원은 11월 21일 오전 11시 30분 속초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청소년문화전수교육 '꿈꾸는 청춘, 너희들이 미래야'를 연다. 이날 공연에서는 도무형문화재인 속초도문농요 시연을 시작으로 극단 소울 씨어터와 키라의 세미뮤지컬과 댄스 공연, RUN갯마당의 사물놀이 등이 펼쳐진다.

*신일섭 씨 '클라리넷과 마술의 만남'

마술사 겸 클라리넷이스트로 활동 중인 신일섭 씨가 11월 29일 오후 5시 설악문화센터 카페소리에서 '클라리넷과

마술의 만남'을 연다. 이날 공연에서 신 씨는 연기, 마임, 대화, 코미디, 마술 등 여러 형태의 공연을 클래식과 조합해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은 1부 '인형의 꿈', 2부 '타임머신'으로 꾸며진다.



*속초민예총 제1회 갯배문화제 연다

속초민예총(회장 김부영)은 11월 20일부터 23일까지 갯배선착장 일원에서 '제1회 갯배문화제'를 개최한다. 올해 처음 열리는 갯배문화제는 금강대교 다리 밑에서 속초의 일상을 만날 수 있는 '빨래줄 전시회'를 비롯해 전자음을 배제한 '갯배 언플러그드 음악회', 갯배의 옛 모습을 사진과 시로 만나는 '움직이는 갯배 전시회', 실향민문화를 소재로 열리는 '갯배 아트마켓' 등으로 꾸며진다. 이와 함께 장경석 전 속초민예총 회장은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실향민의 삶과 청호동의 옛 모습을 벽화로 되살리는 '갯배 공미술 프로젝트'를 선보인다.

*속초미협 '사랑 나눔 자선미술전'

(사)한국미술협회 속초지부(지부장 고주리)가 11월 30일부터 12월 23일까지 두 차례로 나눠 '2014 사랑 나눔 자선미술전'을 개최한다. 미술전은 미협 회원들이 전시작품 판매 수익금 일부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하게 된다. 판매 작품은 10점이며 1점당 30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

*설악문우회 '갈피 44집' 발간

설악문우회(회장 권정남)의 동인지 <갈피> 제44호가 발간됐다. 이번 호에는 회원들의 한 해 동안 작품활동을 되돌아보는 코너를 비롯해 오랜 시간 설악문우회에서 활동하다 올해 타계한 고 윤홍렬 고문과 고 최명길 시인을 추모하는 글들이 특집으로 실렸다.

*청봉사진회 31번째 정기 작품전

청봉사진회가 11월 22일부터 12월 7일까지 설악문화센터 2층 갤러리에서 '2014 청봉사진전'을 연다. 올해 전시회에는 윤영미 회장을 비롯해 전태극, 양양수, 장창근 등 14명의 회원 작품 28여 점이 전시된다. 전시작은 다큐멘터리를 비롯해 인물, 풍경 사진 등 다양하다.

*강원신진예술가 '5인5색' 색 다르네

'2014 강원신진예술가 어울림 한마당-5인5색'이 12월 1일부터 7일까지 속초문화회관에서 열린다. '강원신진예술가 어울림 한마당'은 도내 역량 있는 젊은 예술가들의 창작의욕 고취 및 독창적 예술작품 발굴을 위해 강원문화재단이 지원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다. 이번 행사에는 지난해 선정된 2기 신진예술가 최규창(연극), 이혜정(전통), 전하나(음악), 안선민(음악), 목선혜(시각) 등 5명이 참가한다.

*설악문화센터 '피아졸라 탱고의 밤'

피아노 트리오 소원(SoOne)이 들려주는 '피아졸라 탱고의 밤'이 12월 7일 오후 5시 설악문화센터 2층 카페소리에서 열린다. 이번공연에서는 '리베르탱고',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사계', '오블리비온-망각', '혁명' 등의 곡을 들려줄 예정이다.

*"명치끝서 침얼거리던 언어들 떠나보내"

설악문우회 회장으로 활동 중인 권정남(60, 사진) 시인이 네 번째 시집 <연초록, 물음표>(글나무)를 펴냈다. 2008년 <물푸레나무 사랑법>에 이어 6년 만에 발간된 이번 시집에는 1부 '세한도', 2부 '배꽃', 3부 '속초엔 속초역이 없다', 4부 '두만강변에서' 등 69편이 실렸다. 3부 '속초엔 속초역이 없다'에는 '한계령은 염색중이다', '영랑호 노을' 등 필자의 터전인 설악권을 소재로 쓴 작품들로 채워졌다.

*속초시립합창단 정기공연 '한 밤의 음악여행'

속초시립합창단(지휘 송은희)은 12월 6일 오후 7시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여덟 번째 정기공연 '콘서트 가이드와 함께 하는 한 밤의 음악여행'을 연다. 이날 공연은 시립합창단이 선보이는 5개 파트 공연과 콘서트가이드, 카운터테너 등이 선보이는 초청공연, RUN갯마당의 기악연주 등으로 꾸며진다.

***대포초 국악관현악단 17일 정기공연**

대포초등학교 국악관현악단이 12월 17일 저녁 7시 속초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정기공연 '꿈꾸樂 우리, 꿈지樂 국악'을 연다. 이날 대포초교 국악관현악단은 지난 10월 열린 '제51회 전국초등학생음악경연대회'에서 국악합주부문 대상을 수상했던 작품 '타(打)'를 비롯해 '아름다운 나라', '멋으로 사는 세상' 등 10곡을 들려준다. 이중 '신모듬' 공연은 RUN갯마당과의 협연으로 진행된다.

***라인아트컴퍼니 '12월의 따뜻한 음악회'**

라인아트컴퍼니는 12월 12일 오후 7시30분 설악문화센터 카페소리에서 '12월의 따뜻한 음악회'를 연다. 이날 음악회에서는 국내·외 유명 가곡을 비롯해 오페라 아리아, 크리스마스 캐럴 등으로 구성된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보일 계획이다.

제26회 속초시문화상 수상자 선정 결과

문화예술 부문



속초여자고등학교 교사 **박동국**

※심사위원 최종 심사결과

300여 회의 국내외 단체·초대전 및 14회의 개인전과 3인전에 작품 및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남다른 창작열을 가지고 작품활동을 해 왔으며, 2006년부터 현재까지 (사)한국미술협회 속초지부를 선도해 오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에 힘써 왔으며 지역의 미술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등 설악권 향토미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매우 큼.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 부문



궁중해장국본가 대표 **이대길**

※심사위원 최종 심사결과

후보자는 파산직전의 속초신용협동조합을 구조조정을 통하여 회생시켜 지역개발에 이바지한 공로는 상당히 크지만 사회봉사에 대한 공적은 미흡하다고 사료됨. 그러나 후보자가 차후 지역 사회봉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 속초시 사회봉사에 상당한 이바지를 하리라 사료됨.

체육 부문



속초시육상경기연맹 회장 **김재기**

※심사위원 최종 심사결과

- 모든 체육의 근간이자 기본인 육상종목에 많은 헌신과 노력을 하신 부분이 존경을 받는 이유일 것임.
- 취임 후 육상에 많은 지원을 하였으며, 전국에 속초육상을 널리 알려 하계·동계에 많은 선수들이 훈련장소로 속초에 방문함으로써 지역경제에도 많은 기여를 하였음.
- 더구나 육상종목은 회장을 서로 안 맡는 기피종목인데 흔쾌히 비인기종목을 맡아 기여를 한 부분은 체육인들의 존경을 받고 있음.

2014년 속초문화원 임원 명단

순번	직위	성명	주소	비고
1	원장	박무웅	속초시 도문동 200	돌감자 장학회장
2	부원장	최현식	양양군 서면 고인돌길 200-49 양양고인돌오토캠핑장	강원도문화재전문위원
3	부원장	김계남	속초시 금호동 이편한아파트 104-604	아시아항공여행사 대표
4	이사	고재양	속초시 교동 780-60 15/3-	전) 교사
5	이사	곽철신	속초시 교동 럭키2차APT 103-1205	영북지구 충청향우회 대표
6	이사	구영모	속초시 대포동 934-5 대포농공단지내 파이프랜드	(주)파이프랜드 대표
7	이사	권영석	고성군 토성면 교암리 15-7 파로와민박	순오텐트 대표
8	이사	김계양	속초시 대포동 470-3	속초대표하우스 대표
9	이사	김상복	속초시 조양동 삼성쉐르빌 104동 901호	속초연탄은행 대표
10	이사	김순옥	속초시 장사동 577-38 남북Hits	남북Hits 대표
11	이사	김태성	속초시 교동 767-257 프레지던트인텔빌라트 102호	전) 청초동장
12	이사	문광철	속초시 조양동 1292-1 동명아파트 나동 205호	속초시초등학교 총동창회연합회장
13	이사	박정기	속초시 조양동 230 연회동	연회동 대표
14	이사	박정은	속초시 금호동 484-7 동제약국	동제약국
15	이사	양재호	속초시 교동 627-32	전)교육행정공무원
16	이사	어재석	속초시 중앙동 468-67	전) 속초시의회 과장
17	이사	윤광훈	속초시 교동 1021-4 디자인미디어	이정종합광고 대표
18	이사	윤숙자	속초시 교동 627-42 설악유치원	전) 설악유치원 원장
19	이사	윤장원	속초시 교동 794-2(미시령로 3275)	장원주유소 대표
20	이사	이영순	속초시 금호동 484-25 속초나이키대리점	나이키 속초점 대표
21	이사	이춘실	속초시 노학동 설악럭키차APT 2-606	전) 속초시 기획감사실장
22	이사	이태자	속초시 교동 830-2 남부새마을금고	남부새마을금고 전무
23	이사	임동환	속초시 대포동932-8 대포농공단지내 두산유리시스템창호	두산유리시스템창호 대표
24	이사	장용근	속초시 대포동 947-14	금강기획에이피주 대표이사
25	이사	정봉재	속초시 교동 동부아파트 102-803	전) 속초예총 부회장

순번	직위	성명	주소	비고
26	이사	조동대	속초시 조양동 1034-49 청초프라자 117호 설악산단풍빵	단풍빵 대표
27	이사	최용석	속초시 조양동 성호아파트 202-105	보베이에스씨 대표이사
28	이사	탁동식	속초시 교동 하우스토리 104-801	설악여자중학교 교장
29	이사	한기학	속초시 중앙동 8통 5반	전) 예총회장
30	이사	함봉식	속초시 교동 럭키설악타운 1-1108	주)세림 대표
31	감사	한남호	속초시 영랑동 대양연립 나-103	설악고등학교 총동창회 사무총장
32	감사	허우린	속초시 교동 908-10 두산교육센터-	해오미속초21실천협회장
35	명예이사	서성만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399 진극아파트 9동 1012호	재경속초건설인협회장, 주)의종
36	명예이사	백광일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497-13 401호	재경속초건설인협회 사무국장
37	명예이사	이경우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8번지 한강현대아파트 107동 1201호	하사와병장 출신 재즈가수
38	명예이사	유종국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47-4 강원도민회관 402호	재경속초시민회장
39	명예이사	홍욱	서울시 중구 을지로 19길 31번지 주) 코맥스텔콤 대표	전) 재경속초건설인협회장
40	명예이사	손문영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수기로 67-53 수기마을 힐스테이트아파트 216-1001	재경속초시민회 회장
41	명예이사	윤강준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910-27 강남베드로병원	강남베드로병원 원장
42	명예이사	이승열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47-4 강원도민회관 402호	재경속초시민회 사무국장
43	명예이사	전호성	서울시 노원구 상계3동 172 대림아파트 106-502	한양타일상사 대표
44	명예이사	조명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흥덕마을 신동아파밀리에아파트 1211-1802	농협중앙회 상무
45	사무국장	김인섭	속초시 조양동 부영아파트 311동 506호	
46	사업과장	이정무	속초시 교동 동부아파트 102-401	
47	사무과장	김은중	속초시 교동 대명늘푸른 104동 10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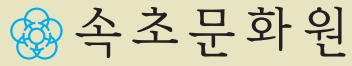
문화의 온기가 전해지는 속초문화원

문화를 통해 세상과 만납니다

속초문화원 주요사업

- 향토문화 연구 및 활동 기능 강화
 - 향토문화의 체계적 관리 및 전승
 - 향토사연구소 활발한 활동 및 기능 확대
- 사회 교육사업
 - 실질적인 문화학교 운영으로 문화교육 기회 마련
 - 청소년 방학 프로그램 운영으로 속초의 뿌리 교육정착
- 정보화 시대의 흐름에 부합된 문화DB 구축
 - 인터넷 홈페이지의 디지털화 변환
 - 관련기관 홈페이지와 DB 연계 구축
- 속초시의 종합 문화예술기관으로 위상 정립
 - 속초시 각종 행사에 속초 전통문화 공연 계획
 - 어르신문화학교를 통한 실버문화종합기관 구축
- 속초의 문화 재조명
 - 속초시사 홈페이지 체계적 관리
 - 속초사자놀이 전승 및 보존
 - 속초 도문농요 문화재 지정에 따른 체계적 전승
 - 실향민 문화콘텐츠 개발과 보존 및 전승





강원도 속초시 번영로 155 (영랑동 570-5)
Tel. 033) 632-1231, 639-2439 Fax. 632-1241
www.sokcho-culture.com